

하루만에 읽는 초대교회사

기독교복음사역원

메시지사역장 손 영

1. 사도들의 활동과 기독교의 시작
2. 오순절 성령의 역사
3. 예루살렘 교회
4. 예수님의 제자, 12사도들의 사역
5. 사도 바울의 신학
6.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
7.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8.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
9.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로마의 역사
10. 사도 바울의 로마 선교
11. 예루살렘 교회와 야고보의 순교
12. 로마의 박해와 베드로의 순교
13. 바벨론 포로시대 역사에서 주는 두가지 교훈
14. 마카베오
15. 유대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16. 사마리아,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17. 메시아, 메시아를 기다린 이스라엘
18. 기독교의 세계화를 향한 위대한 도구, 로마제국
19. 사도와 장로
20. 교회의 공적예배
21. 안식일과 주일
22. 이단, 그노시스학파
23. 로마제국과 유대교의 관계
24. 이단, 모나키안주의
25. 신앙고백서(사도신경)
26. 신약성경의 형성사
27. 인간론, 인간학
28. 기독교론, 예수 그리스도
29. 사도적 교부
30. 헬라교부
31. 라틴교부

32. 성 어거스틴

33. 세계, 10개 국가의 대표적 선교운동

1. 사도들의 활동과 기독교의 시작

기독교를 중심 사상으로 한 교회는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으로 하나님의복음전파를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후 교회가 조직된 것은 예수님 승천 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강림 하심으로 성령을 받고 전도하여 하루에 삼천명이나 회개하는 대역사가 일어나는 때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후로 교회의 중심은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알렉산드리아, 카테지로 확장되어가는 동시에 유럽에서는 로마가 그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를 향해 복음의 열정이 계속되는 동안 주후 64년 네로황제의 박해로 부터 303년 디오클레디아노 시대까지 무려 십대에 걸쳐 핍박이 계속되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영토는 끊임없이 확장되어 나갔고 마침내 주후 313년 콘스탄틴 대제는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전도로 부터 그레고리 1세가 즉위한 주후 590년까지로 잡았고 이것을 3기로 구분하였습니다 제 1기는 예수님의 전도로 부터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100년까지를 사도시대로 구분하였으며, 제 2기는 101년 부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313년까지를, 그리고 제 3기는 314년부터 그레고리 1세가 즉위한 590년까지를 니케아 회의시대라고 각각 구분하였습니다

1) 사도들의 활동

주후 27년 부터 100년까지를 제 1기, 즉, 수많은 박해속에서도 사도들의 활동이 팔레스타인에서 수리아, 소아시아, 헬라지방과 로마를 거쳐 유럽에 까지 전파되었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영구한 전형적이고 권위적인 신약전서가 이 짧은 시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일찌기 지상에 왕래하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으며, 영육이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하는 전혀 새로운 종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영적 세력은 신자의 생활에 충만하였으며 성장의 속도가 급속하여 복음의 확장이 폭발적인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역할은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예루살렘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의 지도하에 적은 교회가 있었을 뿐, 그 세력이 크지는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등장으로 전도의 세력은 그 활동과 사상이 전 세계적인 성격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저술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울서신

과 누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그러한 전파의 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후 60년을 전후로 하여 바울과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순교자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수십년간의 기록이 없어지게 되었으며, 오직 요한이 에베소 지역에서 만년을 보내었으므로 그 인격을 중심으로 고원신비(高遠神秘)한 사상이 유포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난 후로는 더욱 암흑기가 되어 모든 역사적인 증거자료가 이리저리 조각나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시대의 모든 일들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2세기 전반에 "바비아"의 주서 "주의 교훈"과, 유대인 "하게십보"가 177년 로마에서 기록한 "사도의 설교의 단순한 전설"이라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자료들마저 분실되고 오직 "유세비오"의 역사기록 중에 남게된 것이 오늘날의 추정 자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2) 기독교의 시작

로마제국 제 2황제 디베리오의 재위 15년 즉, 로마건국 781년인 주후 27년에 당시 세례 요한은 유대광야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당시 예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으로 부터 요한에게로 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후 기독교의 역사적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타났고, 그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체화 하였으며, 또한 구원의 사역을 영적인 가르침과 생활의 영역 가운데 여러가지 예들로 교훈하며 가르쳤습니다

또한 세상과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함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며, 더 나아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신앙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의 역할과 모델이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회를 시작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화는 그 대상에 있어서 세상의 인재양성과 모델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여러 구성원을 채택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렇지 아니한 부르심만을 받은 가롯유다도 그의 제자로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3년은 완전한 3년이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사랑과 자유와 메세지의 선포였으며 선포의 내용에 한치의 모순과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됨으로서 기독교의 생명은 절대적 위기를 맞이 하였습니다. 그것이 주후 30년의 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모든 진리의 죽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귀향을 선택하였고 본연의 직업으로 복귀하는 등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 것 역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40일동안 땅에 머무시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복음의 열정과 확신을 회복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았지만 확실히 믿게 되었고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헌신적 태도로 전환되었던 것입니다.

유월절후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됨으로서 복음 전파의 힘은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날에 회개하고 결신하는 사람이 3,000명에 이르는 기적같은 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한 증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기독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시발점이 되는 기준인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전체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와 전도에 헌신을 다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며 성찬예식을 주관하였습니다. 신자들의 교제가 친밀해지고 극빈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와 공동체 생활이 활력을 찾으면서 교회는 성숙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통한 온 세상을 향한 구원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제각각 흩어져 은둔생활로 되돌아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으며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순교자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과 복음의 선포를 알리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이루어진 새로운 종교의 탄생이었습니다.

구약의 완성이었으며 연결된 하나의 역사의 순환속에 있었지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양과 성격을 가진 것이었으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상할 수 없었던 메시아의 출현이었습니다. 중요한것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방식의 기준으로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보고도 알지도 못했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박아 처형까지 하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동조자가 되어 버린 참

혹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3) 사도시대 연대기(주후37~100년)

(1) 조직기

주후 30년, 디베료 가이사황제(주후12~37년)

성령강림(사도행전2:1~13)

사도들에 대한 박해 시작(사도행전2:14~42)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사도행전5:1~11)

일곱집사 피택(사도행전6:1~6)

스데반집사의 순교(사도행전7:1~60)

(2) 변혁기

주후 30년~, 디베료 가이사황제(주후12~37년)

빌립의 전도(사도행전8:5~13)

베드로와 요한의 사마리아 전도(사도행전8:14~25)

구스 내시의 개종(사도행전8:26~40)

주후 34년, 디베료 가이사황제(주후12~37년)

사울의 다메섹 회심(사도행전9:1~19)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림(사도행전9:36~43)

주후 37년, 갈리굴라 황제(주후37~41년)

바울의 예루살렘 1차방문(사도행전9:26)

주후 44년, 글라우디오 황제(주후41~54년)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사도행전12:1~12)

주후 45년, 글라우디오 황제(주후41~54년)

대 기근

바울의 예루살렘 2차방문(사도행전11:30)

(3) 확장기

주후 47~49년, 글라우디오 황제(주후41~54년)

바울의 제 1차 전도여행(사도행전13:2~14:28)

주후 49년, 글라우디오 황제(주후41~54년)

예루살렘 공회, 사도 회의(갈라디아서2:1, 사도행전15장)

주후 50~52년, 글라우디오 황제(주후41~54년)

바울의 제 2차 전도여행(사도행전15:36~18:22)
주후 53~58년, 네로 황제(주후54~68년)
바울의 제 3차 전도여행(사도행전18:23~21:17)
주후 58년, 네로 황제(주후54~68년)
바울 체포(사도행전21:30~26:32)
주후 59년, 네로 황제(주후54~68년)
베스도가 유다 총독이 됨
바울의 로마 여행
주후 61년, 네로 황제(주후54~68년)
바울의 로마 투옥(사도행전28:16)
주후 62년, 네로 황제(주후54~68년)
주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
주후 63년, 네로 황제(주후54~68년)
바울의 석방

(4) 환난기

주후 64년, 네로 황제(주후54~68년)
로마 대 화재
네로 황제의 박해(1차 박해)
주후 66년, 네로 황제(주후54~68년)
유대인의 반란
주후 67년, 네로 황제(주후54~68년)
바울의 순교
주후 68년, 갈바,오도, 비텔리오 황제(주후68~69년)
베드로의 순교
수리아 총독의 예루살렘 침입
주후 69년, 베스파시안 황제(주후69~79년)
로마장군 베스파시안의 예루살렘 침입
주후 70년, 베스파시안 황제(주후69~79년)
예루살렘 함락
주후 70년, 디도 황제(주후79~81년)
산헤드린 공회 폐지
주후 81~96년, 도미타아누스 황제(주후81~96년)
도미타아누스의 박해(2차 박해)
주후 95년, 도미타아누스 황제(주후81~96년)
요한, 밧모섬에 유배

주후 96년, 네르바 황제(주후96~98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죽음

주후 98년, 트라야누스 황제(주후98~117년)

트라야누스의 박해(3차 박해)

주후 100년~, 트라야누스 황제(주후98~117년)

암니아 회의

사도 요한의 사망

주후 118년, 구약정경 결정

2. 오순절 성령의 역사

기독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에 의해 복음을 전파함으로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 복음 전파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었습니다(사도행전2:1~11). 오순절 사건은 유월절 사건의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려 주신 유월절의 씨가 오순절의 추수열매를 가져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의 백성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것이 영적으로 실현된 사건입니다. 그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육체적, 공간적, 시간적 임재의 양태에서 그의 교회위에 영적으로 임재하심을 알게 하신 사건이 오순절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열매를 축하하는 오순절은 사도적 교회사의 첫 장을 열어주는 의미 있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 오순절 사건은 구속사의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과 성령강림일이 일치하는 것은 우연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순절에 대한 본래의 의미는 처음 익은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제로서 유월절로 부터 50일이 지난 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민수기9:11). 예수께서는 유월절 어린양으로 처형당하셨으며(고린도전서5:7)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후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서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이스라엘의 성전 중심의 제사는 신약교회의 말씀중심 예배로 전환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적 선민특권은 모든 영적 이스라엘의 신앙적 선민축복으로 교체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만이 제사장 백성이 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유대의 종교적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안식일과 할례를 중시하였으며, 그것은 그들 신앙의 핵심이자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성전을 모실 도시나 제사를 지낼 제사장이나 제물과 제단 등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축복스러운 진통을 수반하였습니다. 선민으로서의 우월감이 깨어지기 전에는 사도 베드로조차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제였던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불의 혀같은 방언이 터져도 유대인들은 끝끝내 오순절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곡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아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나선 소수의 전도자에 의해 복음은 불신과 박해의 장벽을 뚫을 수 있었으며, 오늘날 15억 인구가 복음을 믿게된 역사적인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상상력을 뛰어넘는 무한한 능력을 보여준 실체가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사건은 구속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획기적이고 전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교회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던 오순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성도들과 관련되어 있는 구속사적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지 물로 세례를 주었던 본인과 비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요한복음1:33)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오순절에 내린 성령강림 사건을 통하여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오순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의 오심을 설명하였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려주는 영이라고 표현하며 성령의 요심을 기독교적 시각에서 바라보았습니다(고전15:45). 오순절 성령사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며, 성령강림의 역사는 바로 교회의 역사를 열어가는 중심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현존이라 할 것입니다.

둘째, 오순절은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한 공동체의 조직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설립한 날임과 동시에 교회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오순절에 내린 성령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이자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던 것입니다(고린도전서3:16, 에베소서2:22). 구속사속에서 이와같은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은 이 땅에서 또 다시 재현될 수 없는 단회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교회사적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 의미나 성격상 구속사적으로 단회적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경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충만은 구원에 이르는 단회적 성령세례와 엄격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성령충만은 기독교인 각자가 자기 마음속 깊이 내재하고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매일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연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은사인 것입니다(사도행전2:4).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선포이자 교회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세계사적인 핵심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교회의 중심에 여전히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회적인 사건의 연속성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금도 유효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영원한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3.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속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교회사의 큰 분수령을 이루었던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핍박과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졌던 예루살렘지역에 교회가 설립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의 새언약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설립한 날이었습니다. 오순절에 내린 성령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이자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던 것입니다. 구속사속에서 이처럼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오순절 성령강림은 또다시 되풀이 될 수 없는 단회적 사건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던 자신을 대조시켜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오순절에 내린 성령강림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오순절의 진의는 그리스도 사역의 성취라는 시각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을 설명하였고, 바울도 성령의 오심을 기독교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며 부활 승천하여 존귀함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불가견적인 현림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의 은사 역시 교회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은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회개를 촉구하는 회복운동으로 퍼져 나갔으며, 하루 동안에 3,000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초대교회 대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사도행전2:37~41). 교회는 급성장 하였고 5,000명을 초과하며 부흥 성장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임은 날마다 이루어졌으며 재산과 소유의 구분없이 상호 통용하고 예배와 성찬이 한마음 한 뜻으로 이루어졌습니다(사도행전2:42~47).

그들 중의 대다수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조들의 관습과 언어를 고수하는 히브리파와는 달리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헬라 문화권에 속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헬라파는 히브리와 평행선을 유지하며 항상 대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일곱집사는 모두 헬라파였고 최초의 박해도 주로 헬라파 기독교인들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외에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던 많은 제사장들의 개종은 예루살렘 사회에서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으로 예루살렘교회는 수만명의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성장을 바라보던 유대지도자들의 박해 움직임도 심각한 양상을 보이
기 시작하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도들의 복음 전도를 공식적으로 비난하며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었고(사도행전4:1~4), 일곱 집사가운데 한사람이었던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사도행전6:8~7:60) 이로서 예루살렘교회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표출화되고 사실상 본격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구속과 스테반의 순교사건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교회가 도처에
전파되고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사도행전8:1) 특히 스테반의 순교사건
은 당시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울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스테반의 죽
음을 대하는 태도와 신앙적 신념은 결과적으로 박해자 사울이 변하여 전도자 바울
이 되게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확산을 강제
적이고 폭압적으로 막으려했던 산헤드린 공회의 표본적인 스테반 순교사건은 교회
를 지하화하게 하였으며 소규모, 지역적으로 확산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
던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이용한 기독교에 대한 무자비한 박해는 유대 지도자
들과 헤롯왕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치적인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요한, 야곱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며 복음전도 활동을
위축하거나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제시한 할례문제가 좋은 예로서,
지방 교회에 그들 교회안에서 파생되는 공동체와 신학적 이론에 문제가 생기면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나서서 중재와 해결점을 제시하는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유대적 의식에 관한 율법에서 자유할 필요가 있다는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은 이방
인 교회들로 하여금 유대적 지배로 부터 영적으로 해방되게 하는 길을 열어 주었습
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대내외적인 빈곤, 박해 등으로 영적 시련에 봉착해 있을때,
바울은 3차 전도여행에서 헌납받은 여러 공동체의 구제금 원조로 회복할 수 있었으
며, 이것은 영적 사랑의 교제로서 교회와 공동체에 관한 사도 바울의 역할이 적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활동에서 생사고비를 여러차례
경험해야 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가이사랴에서 2년이 넘도록 감옥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하여 사도바울은 로마 선교
의 길을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후 사도 바울을 체포하는데 실패를 거듭한 유대
인들은 본교회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끊임없이 핍박하였습니다

주후 61년, 총독 베스도(Festus)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하여 알비누스(Albinus)가
후임 총독으로 부임하기 까지 3개월간의 공석기간을 이용하여 유대인 대 제사장
하난(Hsnan)이 불법적으로 재판을 열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를 심문하고,

모세율법을 어긴 죄를 물어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난은 제사장직에서 해임되고 담내(Damnai)의 아들 여호수아(Joshua)가 임명되었지만 이러한 관계는 전혀 호전되지 않고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주후 64년, 풀로루스(Gessius Florus)가 팔레스타인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로마의 유대인 탄압정책은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66년 9월 과격파 유대인들에 의해 반란이 일어났으며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 그리고 네게브와 갈릴리까지 점령하는 전쟁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사태가 로마에 불리하게 되자 시리아 주둔군이었던 로마군 사령관 갈루스(Cestius Florus)는 가이사라를 점령하고 황제의 명장 베스파시안(Vespasian)을 통해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습니다. 이 와중에서 유대 사학자인 요세푸스(Josephus)는 베스파시안의 황제 등극을 예언하고 적중한 뗏가로 로마군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에서 방대한 역사서 저술작업으로 여생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사제와 군인이며 학자였던 요세푸스(Joseph ben Mattathias)는 제사장 가문인 마타디아스와 왕족 혈통의 어머니 사이에서, 예수의 활동시기 몇 해 후이며 유대 땅을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을 당시, 가이우스가 로마제국의 황제에 등극한 주후 37년에 태어나 100년 경에 세상을 떠난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요세푸스(Joseph ben Mattathias)는 유대인 동족들에게는 배신자로서 지탄을 받는 반면에 기독교인과 초대 변증가로 핵심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유대주의와 헬레니즘의 두 전통을 종합하였으며 로마의 세속 세계와 성경의 종교적 유산을 연결시켰을 뿐만 아니라 로마제국 치하의 여러 민족들의 멘탈리티, 특히 예수님 당시의 유대 백성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정보와 자료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탄생 이전 시대와 기독교 1세기 동안 일어났던 팔레스타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역사를 알려주는 유일한 역사서라는 점에서 그의 위치는 확고하다 할 것입니다.

주후 68년, 여름 네로 황제의 자살로 베스파시안이 황제에 즉위한후 그의 아들인 디도(Titus)가 전투를 이끌었고, 70년 7월 5일, 안토니아 보루가 무너지고 7월 17일, 성전의 제사는 중지되었으며 8월 8일,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생존자들은 사해 해안 맛사다 고지에서 3년간 저항하였으나 73년 4월 15일, 로마군에 의해 이 전쟁은 끝이 났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함락전에 베뢰아 지방의 도시 펠라(Pella, 데가볼리Decapolis)로 피난을갔던 유대인들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스스로 결정 하였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아갈 꿈으로 살았던 그들이었지만 남아있던 동족들의 반감과 오해속에서 국민의 배신자

로 낙인찍히고 다시는 귀환의 기회를 영영히 얻지 못하는 슬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교회사 학자 유세비우스(Eusebius)는 그들의 피난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지만 그 보다는 신앙적 양심을 따라 결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펠라의 피난사건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었던 유대적 크리스찬과 유대 민족 사이에 완전한 분리를 가져오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은 이방인들과 융합되어 함께 교회생활을 유지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촌이며 글로바의 아들인 시므온(Symeon)을 펠라교회의 목사로 천거함으로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더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펠라지방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생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후 하드리안(Hadrian)황제가 예루살렘 옛터에 이방도시(Aelia Capitolina)를 건설하고 유대인의 출입을 금지시킴으로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교회를 건설할 꿈이 차단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구별성과 차별성은 거의 사라졌던 것입니다.

주후 81년,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유대인들이 매년 예루살렘에 보냈던 헌금을 황제에게 바치도록 강제조항을 들어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불복한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러한 기독교도들 때문에 다른 모든 신들이 노했다는 죄명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박해를 피해 지하무덤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카타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당국자들의 심경속에 유대인과 기독교 신자들 사이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교적 풍습을 좇는 모든자들을 대상으로 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유대교 신자와 기독교 신자를 구별하지 않는 새로운 박해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예배하였으므로 이교도들은 기독교인들을 흔히 무신론자들과 비교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핍박 가운데 요한계시록이라는 묵시록이 기록되어졌던 것입니다.

주후 84년, 팔레스타인 유대지도자들은 각 처에 흩어진 유대인 회당에 공한을 보내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그들의 모임에서 추방할 것을 권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로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소유하면서 동시에 유대인의 지위를 공유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술은 새부대에 담겨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향한 비전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4. 예수님의 제자, 12사도들의 사역

사도(使徒, Apostolus)라는 말은 '파견된 자', '사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샬리아(shaliach)에서 유래하고 그리스어의 아포스톨로스(apostolos)의 동의어입니다. 사도의 자격은 성육신하여 역사적이고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간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났고, 그 분의 가르침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4대복음서에서는 예수의 제자 12명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마가복음3:16-19) 그러나 그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가룟유다가 자살하여 사도직을 버리자, 사도들은 '예수께서 활동하실 때 우리와 같이 있던 사람'중 하나인 맛디아에게 사도직을 맡겼다(사도행전1:21-26) 이후 성령강림주일에 탄생한 교회(사도행전 2:1-47)를 탄압하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하여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였으며 기독교에서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였던 것입니다(고린도전서15:10)

12명으로 구성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 바돌로매, 도마, 마태와 야고보(알패오와 마리아의 아들), 유다(야고보의 아들, 다대오), 시몬, 가룟유다 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면서 특별하게 정한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모습의 평범한 삶을 살았던 동시대의 보통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최측근의 제자들이었지만 그 관계가 오늘날의 오너와의 관계와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1. 베드로(가버나훔지역 어부출신, 안드레의 형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베드로전후서를 기록한 최고의 사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버나훔지역 사람으로 그의 직업은 어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보통의 사람보다도 낮은 직업을 가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생애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베드로 또는 페트로스(Πέτρος, petros), 페트루스(? ~64년)는 사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였던 사람입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와 형제 관계로서, 안드레에 의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Simon)이라 하며(마태복음 4:18, 요한복음 1:40),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어 준 새로운 이름으로서, 그 뜻은 바위라는 의미의 아람어 케파(kefa)를 고대 그리스어로 Κηφας(kephas)로 소리나는 대로 적은 후, 낱말 뜻을 고대 그리스어 페트로스(πέτρος, Petros; 라틴어 Petrus)로 풀이한 것입니다(요한복음 1:41).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제자로 선택하였을까요? 관상을 보고 선택하였을까요? 아

니면 그의 학벌과 문벌, 그리고 집안 배경을 보고 그랬을까요? 한낱 어부에 지나지 않는 베드로가 당시 어떤 괄목할 만한 학력과 지식을 섭렵하였을까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왜 무슨 이유로 선택하였을까요? (그 해답은 지금 바로 당신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북쪽지역의 벳새다에서 성장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친구 빌립 등과 함께 어업에 종사 하였습니다 어느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때 밤새도록 한마리의 고기도 잡지못한 베드로가 실망하여 고개를 떨구고 있을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5:1~2)

복음에 무관심한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란 보통의 선생님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간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빌려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고기가 많은 곳을 가르쳐 주시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만선이 되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계기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는(요한복음1:35~42) 예수님의 첫번째 제자가 되어 그의일생을 송두리째 바쳐놓은 대역사의 시작을 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보좌하며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였지만, 예수님의 죽음앞에서는 모든 사람앞에서 세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과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삶의 모양과 생각과 행동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예수님의 바른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앞장서서 전파하고 수많은 기적과 죽은자를 살려내었으며 예수님을 따라 물위를 걸어 간 첫 번째 사도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적 기독교회의 모교회로 등장할 때, 베드로는 항상 지도적 입장에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가이사랴와 안디옥 지방으로 선교여행을 다녔으며(갈라디아서2:11~14), 전설에 의하면 주후 67년 말년에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고 순교하였다는 설이 있으나 역사적으로 증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후 43년에 유대왕인 헤로데 아그리파에 의해 체포되었으나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탈출을 하였습니다. 주후 49년에는 예루살렘교회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주재하여 이방인들을 굳이 유대교의 강제 규정에 따른 할례를 요구하지 않고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그는 안디옥으로 가서 스스로 최초의 사도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로마로 갔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

지만 초대 교회 시절의 서술가들은 그가 로마에서 사역을 하다 순교했다고 하나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베드로가 64년경 로마황제인 네로의 치세에 처형되었다고 전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로마 여행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바울의 서신 가운데에서도 베드로를 언급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에 베드로의 로마선교 여행은 아주 미미했거나 실제로는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로마교회를 세운 첫 감독으로 보는 견해 또한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는 바울의 로마 선교정책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인 것입니다

요한 복음에 예언된 베드로의 순교 기사에는 장소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십자가 처형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부터 부름을 받은 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며, 더 나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고, 그의 설교에 감동된 청중들이 하루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은 기적같은 일들이 4대복음을 통하여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후 64년~66년경, 로마제국 네로 황제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베드로전후서는 "소망의 서신"(the Epistle of Hope)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 전서는 환란중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곧 닥쳐올 대 박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어떠한 고난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도록 촉구하는 "격려의 서신"(Epistle of Courage)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외부의 박해에 대하여 거짓교사와 방종한 생활 등 교회내부의 문제에 대하여도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 정확한 지침과 경고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때 갈릴리 한 지방의 어부에 지나지 않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 기독교사의 가장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 되었으며, 교회가 서 있는 세계 모든 나라와 지역과 가정에서 그의 행적과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처럼 위대하고 광대한 이름으로 존귀하게 여기게 되고, 아무리 뛰어난 지략과 전략을 가진 사람일 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수 없는 어둠에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 야고보(알패오의 아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서의 저자이며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야곱의 헬라어 번역이며 영어 성경

에서는 제임스(James)라는 이름으로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께는 네명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었습니다(마가복음6:3, 마태복음13:55) 이들은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서 30년을 함께 살면서도 정작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그의 삶은 전환되었고 그의 서신인 야고보서에서 그는 자신을 예수님의 형제라고 소개하지 않고 예수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설명함으로서 그의 신앙적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Saint James the Just) 그리스어:Ἰάκωβος), (주후 62년 사망) 의인 야고보(James the Just), 예루살렘의 야고보(James of Jerusalem), 하나님의 형제 야고보(James Adelphotheos)[1], 또는 야고보, 주의 형제(James, the Brother of the Lord)라고도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와 동일시 되는 인물입니다.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그는 첫 번째 예루살렘의 주교이고, 신약성경 누가복음10:1-20에 언급된 칠십 인의 사도중 첫 번째 사람입니다. 주후 62년, 네로 황제의 박해로 총독 안나스의 손에 순교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한 사도로서(갈라디아서2:9)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와 유세비우스(Eusebius)는 베드로가 선교여행을 떠난 후 실질적인 예루살렘교회의 감독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가 부재중인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며 모범적 설교와 생활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러한 야고보를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만나기를 원한 사람이었으며(갈라디아서1:19) 베드로도 그에게는 겸손한 언행으로 대하였습니다(사도행전12:17) 유대인 크리스찬 헤게시푸스(Hegesippus, 170년경) 에 의하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항상 양떼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에 힘써서 그의 무릎이 약대 무릎같이 굳어졌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서신 야고보서는 그의 신앙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 교회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신앙하면서도 유대교의 식사법과 금식법등 율법을 병행하여 준수하고 있었는데 야고보도 이러한 행위적 신앙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차이점은 모세의 율법이 아닌 자유의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야고보서2:12)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에게 있어서 죽은 믿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2:17)

야고보는 다윗 혈통 계승자로서 유대인의 율법의 한구절도 소홀이 하지 않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경건 생활로 인하여 의인(Zadik)이라는 별명까지 있었으며, 예루살렘교회의 확장을 두려워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개종시키기 위해 온갖 유혹과 심문을 획책하였지만 끝끝내 신앙을 지킴으로서 돌에

맞아죽는 처형을 당하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3. 요한(세배대와 살로메의 아들이며 야고보의 형제로서 어업에 종사)

사도 요한(히브리어: יוחנן, 그리스어: Ιωάννης, ?~100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야고보와 형제 관계에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 활동하였습니다(요한복음1:35~40) 요한의 아버지는 세배대(마태복음4:21), 어머니는 살로메(마태복음27:56)로 요한복음 19장 25절과 비교하여 설명하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요한의 모친 살로메는 자매였으며, 그러므로 예수님과 요한은 이종사촌관계인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한 최초의 제자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 부터 "우뢰의 아들"(막복음3:17)이라는 별명을 받을 만큼 강직하고 강렬했던 사람이었습니다(마가복음9:38, 10:37, 누가복음9:54) 사도 요한의 가정은 샅군을 두고 어업을 경영할 만큼 부자였으며(마가복음1:20), 대제사장과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습니다(요한복음18:15~16) 그는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변화산과 겔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동행하였으며 특별히 4대복음 속에는 예수님으로 부터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언급이 5회에 걸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만찬에서 주를 팔자가 누구냐고 질문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요한복음13:23~25) 그는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행적을 따라 가야바의 집에까지 이르렀으며, 모친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마지막가는 모습을 지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인 마리아의 노후부양의 부탁을 받고 그 책임을 다하는 제자였습니다(요한복음19:26~27)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빈무덤을 가장 먼저 본 제자였습니다(요한복음20:1~10)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다가 언제 떠났는지는 잔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주후 58년 사도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때 야고보외에 다른 사도들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일부 견해로는 주후 50년 경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을 떠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교회에서 성전문앞의 얇은뱅이를 고치고(사도행전3:1~10),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였으며(사도행전4:1~22),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마리아로 전도단을 파송할 때에도 베드로와 같이 파송되어 아름다운 결과를 맺었습니다(사도행전8:14~25)

주후 64~67년, 네로 황제의 박해와 그후로 밧모섬에 유배되기 직전인 주후 85~90년 사이에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으며 요한복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헬라사고에 익숙한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들이 다소 객관적인 성격을 띤 것과는 대조적으로 주관적인 해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행적을 실재화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후 사도 요한은 주후 85~86년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를 거치면서 밧모섬에 유배를 당했으며(요한계시록1:9), 이곳에서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노경에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에서 오래동안 교회를 지도하였으며, 이곳은 예루살렘이 무너진 후로 한때 초대교회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주후 98년, 트라얀 황제의 박해가 있었으며 90여년의 세월동안 수많은 박해를 이기며 기독교의 산증인이며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에베소 교회를 감독하다가 자연사 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순교자의 명단에 그의 이름이 있어서 순교한 것이란 소수의 견해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을 일컬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지도자들 중의 한사람"(갈라디아서2:9)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신성을 강조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엄청난 비밀의 키워드를 우리에게 남겨 줌으로서 희망과 새로운 천국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4. 안드레(벧세다 출신의 어부, 요한의 아들)

안드레(그리스어: Ανδρέας, ? - ?)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며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안드레라는 이름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사내다움' 또는 '용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형과 달리 성실하고 온건하며 신중한 성격의 인물로, 러시아에 최초로 복음을 전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벧세다 출신의 어부로 요한의 아들이며 예수님께 베드로를 소개한 세례요한의 제자였습니다(요한복음1:40). 요한복음 1장 35절에는 그의 첫번째 스승이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칭하여 "하나님의 어린양"이라는 말씀을 전해듣고,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쫓아가서 그와 함께 하루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 세례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에 의해 소명되었다는 짧은 기록이 있습니다(마태복음4:18).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리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로 안내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스승이셨던 세례 요한은 약대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분리된 삶을 선택한 세례 요한의 청빈한 생활이었으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념과 신념으로 살아가는 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러한 스승을 둔 안드레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이 가르키는 하나님의 어린양에 대한 궁금점과 의문점은 기대로 발전하였고 그는 이것을 계기로 제자의 삶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외경인 안드레 행전에는 그의 행적에 관하여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하였으며, 그 후 러시아 남부 스타키아 지역에 이르면서 복음을 전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숱한 고난과 역경이 있었으나 사도 안드레는 굴복하지 않는 신앙의 생활을 지켜 나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교활동의 영역확장으로 나아갔다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희랍 아가야 지방의 페투테에 이르러 행정 최고책임자인 지사의 부인과 동생들을 전도하여 영접하게 하였고, 흑해연안 지역을 두루 섭렵하며 선교하다가 전설에 의하면 그리스에서 순교하였다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5. 도마(갈릴리 출신, 디두모)

도마(Thomas, St Thomas the Apostle, Judas Thomas, Didymus)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며 아람어로 '쌍둥이'를 뜻하는 이름입니다 그는 갈릴리 출신으로 어부로 생활하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디두모라 불리는 갈릴리 출신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손에 있는 못자국을 확인한 제자로 널리 알려 졌으며 동방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 인도에 까지 이르러 활동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인도에 노예로 팔려간 도마는 군다포루스 왕의 궁전을 건축하는데 도움을 주어 신임을 얻었으며 그후로 복음을 전하다가 힌두교 사제들이 던진 창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인도에는 도마의 이름을 딴 성 도마교단이 있는데 그들은 교단의 기원을 인도에서 순교한 도마의 선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베다니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다른 제자들이 바리새파의 음모에 의해 위험해 질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였으나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가야한다고 고백한 제자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에 대

하여 도마는 잘 이해하지 못함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도마와 앓은 제자들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갯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체포되시자 도마는 두려움에 떨며 도망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후 제자들앞에 나타나셨을때 도마는 믿지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모습을 보였을때에도 손에 못자국을 보고 확인한 후에야 믿음을 보이는 현실주의자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과 성격은 어떤면에서는 거짓없는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의 모양과 삶들은 이와같이 다양한 모습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마처럼 의심하며 살았던 제자도 있었지만, 더 나아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비 양심적인 가롯유다와 같은 제자도 함께 있었으니 예수님의 이러한 섬김과 마음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알수 없을 것 같습니다

6. 빌립(벧세다출신 어부)

빌립(Philppus)은 갈릴리 벧세다 출신으로 세례요한의 제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제자가 되었으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으로 주로 소아시아 내륙지방에서 선교하였습니다

성경속에서 만날 수 있는 빌립에 대한 흔적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벧세다에서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즉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5천 명이나 되는 무리를 배불리 먹이려고 할 때 자신을 따라온 수많은 군중들을 보고 빌립에게 “이 사람들이 먹을 만한 빵과 물고기를 어디에서 사면 좋겠느냐?” 하고 시험하자 그는 “2백 데나리온의 빵과 물고기를 사서 조금씩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도저히 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후 빌립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날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리스인들을 예수님께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최후의 만찬에서 성찬예식이 있는 후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으니 나의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 분을 알게 되었다. 아니, 이미 만났다”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 빌립은 “저희에게 아버지를 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빌립에게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답하며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빌립 뿐만 아니라 최후의 만찬이 있는 당일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길한 예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예수님 체포이후의 삶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20세기, 나그함마디 사본 에서는 마리아 복음, 도마 복음, 빌립 복음, 가롯유다 복음 등이 발견되었으나 명확하지 않은 여러 현상과 진실성의 결여로 인하여 정경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빌립에 대한 많은 전설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있는 자료들은 더이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십자가 순교에 관한 이의를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은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그의 순교를 향한 복음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7. 바돌로매(요한복음의 나다나엘과 동일인으로 가나출신 갈릴리 사람)

바돌로메(아람어: ܒܕܠܝܬܐ ܕܡܪܝܝܐ, 그리스어: Βαρθολομαῖος, ? - ?)는 가나출신으로 예수께서 그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고 만나게 되었으며 그후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사람이 되었습니다 '톨로메오의 아들(바르)'이란 뜻이며, 신약성경에서는 그저 사도들의 명단에만 언급되어 있을 뿐, 그 외에는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서 초대 교회의 교부들의 기록에도 별로 기록된 바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를 빌립에 의해 예수에게 부름을 받았던 갈릴리에 있는 가나의 나다나엘(Nathanael: 하나님의 선물)과 동일 인물로 보고 있으며 나다나엘이 그의 본명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따르면,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실에 기쁨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빌립은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 묵상에 잠겨 있던 나다나엘에게 다가가 말하기를 "나는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분을 만났는데 그 분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란 작은 마을에서 무슨 신성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의심하였으나 빌립의 소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로부터 "보라!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사람이다. 그에게는 조금도 거짓이 없다", "빌립이 너를 찾아가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 그때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 라는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감동한 나다나엘은 예수에게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는 그보다 더욱 큰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바돌로매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바돌로매는 예수께서 승천한 후 소아시아 지방인 프리기아와 리카오니아 등지를 거쳐 아르메니아에 도달해 그 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교 사제들의 선동을 받은 아스티아제스라는 왕에 의하여 참수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돌로매는 아르메니아에서 산 채로 칼에 의해 전신의 살가죽이 벗겨지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머리가 잘려 나가는 등 온갖 혹형을 당하며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유해는 알바노 시에 매장되었다가 후에 메소포타미아의 다라 지방으로 옮겨졌고, 6세기에 시칠리아 섬 근처에 있는 리파리 섬에 이송되었다가, 주후 839년에는 사라센의 침략을 피해 베네벤토에, 983년에는 로마로 운반되었고, 오늘날에는 티베르 강 가운데 있는 한 섬에 건축된 성 바르톨로메오 성당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8. 마태(알패오의 아들, 세리)

마태(히브리어: מָתִי, 그리스어: Ματθαῖος 맛싸이오스)는 알패오의 아들이며 세리 마태는 레위라고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마태복음의 저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갈릴리태생으로, 마가복음 2장 14절과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그를 레위(Levi)라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완전한 성명은 '레위 마태'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후손인 알패오의 아들(마가복음 2:14)로서, 처음에는 가버나훔에서 로마제국을 위해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세리로 일하였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특별히 강했던 그는 선민으로서의 긍지를 갖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현실주의자로 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창녀와 죄인과 같이 천대받는 부류였던 세리가 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걷어들여 모으기에 급급했던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한 그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어 인생이 180도 전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가 믿던 가치관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새롭게 변화되자 세상의 재물에 쏟았던 그의 마음은 예수님께로 전이되었습니다. 로마의 하수인으로 일하면서 불의하게 모은 재물로 큰 잔치를 벌여 자기 죄를 회개하였고, 자신과 동일한 처지에 놓여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구원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선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같이 생활하면서 사도로서의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갓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자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자신의 스승을 버리고 도망치는 한계를 드러기도 하였습니다. 그후 3일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만나고 오순절 성령세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사도로서의 직분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태는 유대를 순회하며 전도하다가 동방으로 갔으며, 로마 순교록에는 그가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다른 기록에 의하면 페르시아 지역에서 순교했다고도 하는 등 다양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은 그가 북쪽으로 선교여행을 떠나 흑해연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또한 전설일 뿐 정확한 것은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의 유해는 처음에 에티오피아로부터 페스툼으로, 다시 10세기에 이탈리아의 살레르노로 옮겨졌습니다.

그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마태복음은 예언과 성취를 이어주는 구약과 신약의 교량역할을 하는 중요한 경전이 되고 있습니다. 주후 50~70년 사이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알려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으며,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통일성과 보편성을 강조하여 유대기독교인과 이방기독교인을 하나되게 하려는 공동체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보를 중심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서술하였으며, 신학적인 체계와 구조를 완성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있으며 이러한 역사적 계보를 이어나가는 가장 신뢰할 만한 가치를 완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 시몬(알패오와 클레오파스의 마리아의 아들, 소야고보의 형제)

시몬(히브리어: שמון)은 "응답하셨다" 또는 "들으심"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주의 정당인 혁명당원(zelotes)이었습니다.

시몬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알패오와 클레오파스의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소야고보와 형제관계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가나안에서 태어나 자랐으며(마태복음 10:4), 사도가 되기 전에는 바리새파로 구성된 극단적인 유대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열심당의 일원이었으며, 마카베오의 후계자를 자처하며 로마제국으로부터의 유대인 해방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과 그들에게 순종하는 동족 유대인들에 대해서 동료들과 함께 약탈

과 살인 등 테러와 비슷한 공격을 자행하였습니다. 또한 열심당은 장차 예언에 따라 메시아가 이 땅 위에 강림하면 군대를 이끌고 로마 제국을 몰아내 조국을 해방시켜 주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라한 행색을 한 예수를 결코 자신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결국 두 세력은 극과 극으로서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과 동료였던 시몬은 예수의 설교와 기적을 듣고 본 후 감화되어 열심당에서 탈퇴하여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또한 성실하거나 피동적으로 순종만 하는 사람들만 제자로 맞아들이기보다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을 포섭하고자 했기에 자신에게 오는 시몬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에 순종했던 과거를 가진 마태와 로마 제국에 반대했던 극단주의자 시몬을 모두 자신의 제자로 맞아들임을 통해서 서로 상반된 이념으로 인해 빚어지는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시몬은 이집트에서 선교를 한 후, 유다 타데오와 함께 페르시아 지역으로 가서 선교 활동을 벌였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설교한 후 그 곳의 신상을 파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격분한 이교도들은 그를 포박한 후 죽였는데, 시몬은 기둥에 거꾸로 매달려 사타구니에서부터 머리까지 톱으로 육신이 두 동강이 나는 형벌을 당하여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0. 유다(야고보의 아들, 다대오)

유다(Θαδδαῖος, ? -62년?)는 '존경받는' 또는 '찬미하리'라는 뜻을 지닌 예수님의 제자로서, 야고보의 아들이며 다대오(마음이 크고 넓다라는 의미의 이름)라고도 불려지는 사도입니다. 소(小)야고보와는 형제 관계이며,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유다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그를 유다라고 부르고 있지만(누가복음6:16, 사도행전1:13),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를 다대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그에 관한 언급은 유일하게 사도들의 이름을 나열할 때 뿐인데, 전체적으로도 4번 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당시 유다는 예수님께 "주님, 주님께서 왜 세상에는 나타나 보이지 않으시고 저희에게만 나타나 보이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하였습니다(요한복음 14:22).

전설에 의하면, 성령 강림 이후 유다는 시몬과 함께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에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페르시아제국 지역으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가운데 그곳의 신상을 우상제물이라 하여 파괴한 까닭으로 현지인들의 폭력으로 사망하였는데, 어떻

게 순교하였는지는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전설의 내용이 함께 사역을 한 시몬과 유사한 점들을 미루어 보아 순교하였다는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

11. 야고보(알패와 마리아의 아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히브리어: יַעֲקֹב, 그리스어: Ἰάκωβος, 라틴어: Iacobus, ? ※62년)는 알패오와 마리아의 아들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다른 사도인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동명이인이라 혼동을 피하기 위해 흔히 '소(小)야고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야고보들 사이에서 진실을 찾아내기가 무척 어렵고 전해 내려져 오는 전설 또한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향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야고보의 행적은 찾기가 어렵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른 야고보(세베대의 아들) 사도와 마찬가지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하여 헌신을 다하였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롯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은 삶을 살았고 그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그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으며 복음의 영향력 또한 적지 않았음을 비추어 볼때 아무런 흔적없는 삶을 살며 세상으로 돌아간 것은 결코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야고보는 그를 시기하고 경계하던 바리새파에 의해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부활절, 야고보를 강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끌고 가 각종 감언이설로 배교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끝끝내 배교를 거부하며 저항하자 화가 난 바리새파는 그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린 다음 돌로 쳐 죽임으로서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2. 가롯유다(유다출신으로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

가롯유다(히브리어: תוריק שיא הדורי) 또는 가롯 사람 유다는 유대 출신으로 가롯 시몬의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나 나중에 예수를 배반하여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죄인이자 사탄의 하수인이요, 배신자의 대명사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가롯'이란 말에는 '가롯(남부 유대의 지명) 사람' 외에 '암살자', '가짜', '위선자', '거짓말장이', '단검'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가롯 유다는 가롯 시몬의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택받은 12사도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수학적 재능이 우수하여

사도단의 회개와 재정을 말하면서,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공금을 횡령하기도 하였습니다.

요한 복음의 다른 기록에는 베다니 지역의 마리아의 집에서 그녀가 값비싼 삼백데나리온(노동자 1년연봉) 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는 헌신을 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가롯 유다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비싸게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는가”라고 하며 마리아를 책망하였는데 그것은 실제로 가롯유다의 가난한자에 대한 진실된 마음이 아니라 횡령을 마음에 둔 발언으로 위선적인 태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도리어 가롯유다를 책망하며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들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들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오히려 마음에 심히 격분하여 당시 유대교의 대사제(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제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제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하고 예수를 그들에게 팔아 넘길 것을 제의하는 결코 돌이킬수 없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천금과 같은 제의를 받은 제사장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여 가롯유다에게 은 30개를 보상으로 제의했습니다. 당시의 시세로 은 30은 로마의 노예가 황소에게 반혀죽었을때 주인에게 지불하던 보상금액으로 가롯 유다의 스승에 대한 사고와 가치관이 어떠했음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이자 목요일 밤에 일어난 최후의 성만찬에서 예수는 자신의 죽을 때가 임박해 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여러 암시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사도들이 식사를 하던 도중에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라는 폭탄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사도들이 모두 근심하고 두려워 떨며 부인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연이어 “나와 함께 접시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 빵 한 조각을 들어 가롯 유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에 가롯 유다가 그 빵을 받자마자 사탄이 그의 마음 속에 들어갔고 가롯 유는 회개의 기회마저 잃어버린채 망언의 행위를 향하여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스승의 이러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뒤로한채 너의 일을 행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악행에 동참하였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끝난후 예수께서는 11명의 사도들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마지막 눈물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가 다 끝났을 때 가롯 유다는 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가 입맞춤을 하였고 바로 그자리에서 예수는 체포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에 의해 체포된 예수에 대한 형 집행은 신속하게 처리되었고, 산헤드린 의회는 최고형인 십자가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바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데려가 집행을 보다 빠르게 마무리 하여 줄것을 유다백성들과 함께 선동하며 강력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때늦은 후회를 하며 가롯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하면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개를 돌려 주며 “내가 죄 없는 사람을 팔아넘겨 죽게 만든 죄를 범하였다”라고 간청하며 석방을 요청했지만 “그게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네 일이다” 라는 돌이킬수 없는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가롯 유다는 그 은을 성전 안에다 내던지고 나와서 목을 매달아 자살하였고, 대사제들은 이것을 주워다가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용 토지를 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제사장들이 구입한 묘지용 토지에서 가롯 유다가 자살했다고 하지만, 사도행전에 의하면 가롯 유다가 자살한 피밭이라고 불리게 된 곳은 나그네들이 객사하면 묻어주려고 산 땅이 아니라, 가롯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회계를 맡고 있을 3년동안 횡령한 돈으로 산 대 농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증거로 대사제들이 산 나그네 묘지용 토지는 작은 밭(헬라어로 아그로스)이었고, 가롯 유다가 죽은 피밭은 대농장(헬라어로 코리온)이었습니다 가난한 예수공동체 일원이었던 가롯 유다가 대농장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사용한 생활비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예수의 복음증거에 봉헌을 했기 때문이다.

2006년 복원된 영지주의자들의 복음서인 가롯유다복음에 의하면 가롯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의 비밀에 붙여진 요구에 의한 것이었고 이러한 가롯유다의 행위는 인류사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스토리라는 억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가치한 복음서들의 출현은 당시 여러곳에서 수없이 복사되고 미화된 사례들로서 일고의 가치가 없는 복음이라는 이름이 더럽혀지는 사악한 서적이라는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택하셨고 그를 제자로 불러 쓰신 엄청난 축복의 기회자였지만, 그것을 한순간에 팽개쳐 버리고 세상의 몰락과 유흥을 좇아갔던 최악의 인간형이라는 데서 우리는 우리안에도 이러한 사악한 생각이 없는지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5. 사도 바울의 신학

들어가면서

바울(그리스어: Παύλος)은 기독교 초대교회의 선교와 신학에 기초를 작성한 사도이며, 첫 번째 신약성경인 데살로니가전서(주후 51년경 저술)를 저술한 신학자입니다. 로마 가톨릭(Roman Catholic Church)에서는 바오로, 기독교(Protestant Church)에서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기독교 역사에서 결코 제외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그가 기록한 로마서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이유와 삶의 목적을 명확히 제공함으로써 이 땅에 기독교가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 기독교회를 이끌어 나간 가장 우수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신학적인 이념을 정립하여 준 가치로서는 1순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리를 선포하려는 열정으로 아프리카(북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한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를 오직 도보로 방문하였습니다. 무려 20,000km에 이르는 거리를 돌아다닌 그의 선교여행과, 신약성경 27개의 문서 중 13편에 달하는 그의 이름으로 된 서신서들은, 초대 교회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업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선교여행 중에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맞았다고 말 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다섯 번 매를 맞고,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배가 파선되었다는 것이 그의 선교여행에서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목숨을 다하여 선포한 지역에 기독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는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지성이 없이 열정만 있는 맹신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구약성경을 근거로 변증하는 지성적인 신앙에 뿌리를 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연대기

주후 5년경,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출생
32~33년경, 스테파노 부제 순교, 바울의 회심
33년~39년경, 요르단강 동부 거주
39년경, 다마스쿠스 탈출, 예루살렘 교회 방문
39년~43년경, 시리아와 길리기아 거주
43년~44년경,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공동목회
44년~49년경, 제 1차 전도여행

49년경, 예루살렘 공의회

50~52년경, 제 2차 전도여행,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작성

53~58년경, 제 3차 전도여행, 에베소에서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번째 편지 작성,

53~58년경, 감옥에서 빌립보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집필,

53~58년경,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고린도교인들에게 보낸 두번째 편지 집필

58년초경, 고린도에서 로마서 집필

58년경, 예루살렘에서 체포

58년이후, 로마로 이송, 로마선교

62~63년경, 석방되어 63년경, 스페인에서 선교하였을 것으로 추정함(로마서15:28)

역사학자중에는 사도 바울이 62년 잠시 석방되어 2년간 고린도교회, 마케도니아 지방교회, 로마교회를 돌아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하는 설이 있으나 확인된 바는 없음

64~68년경, 로마에서 순교함

1) 사도 이전의 사울

주후 5년경,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로 유대인이었지만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지 않고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로마의 지배아래에 있었던 다소는 지중해 연안 길리기아 평원을 흐르는 시드누스 강 입구에 있는 항구로서 멀리 유브라데로 부터 소아시아를 가로질러 온 모든 길이 끝나는 종착지였습니다 따라서 다소는 내륙지방의 상품을 수출하고 외국의 문물이 들어오는 세계적인 항구도시였습니다

이로서 탄생과 동시에 로마시민권을 획득한 바울은 이방인 세계에서 엄격히 분리된 유대인이었으며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의 히브리인이라는 표현과 빌립보서 3장 5절의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은 단지 이스라엘 자손이라든지, 유대교의 일반적인 귀의자를 지칭하는 것 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유대인 사회내부에는 헬라인이 히브리인과 구별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 자신은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임과 동시에 팔레스타인 유대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 이름인 "사울"로 불리워 졌던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교법사 가말리엘 문하에서 쉼마(신명기6:4~9, 11:13~21, 민수기 15:37~41), 창조주 이야기(창세기1~5장), 의식법(레위기1~8장), 할렐(시편113~18편)

등 율법 교육을 받았으며 엄격한 바리새인(격리된 자)으로서의 사울의 삶은 기독교도들에 대한 철저한 핍박이었으며 그 결과 스데반 집사의 순교적 사건의 중심에 서 있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의하여 증인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진 후에도 사울은 계속하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다메섹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핍박하려 가던 도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으며 그 일이 계기가 되어 그의 일생은 단번에 변화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홀연히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눈이 멀어버린 사울은 지금까지와는 정반대의 새로운 삶을 선택하였고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서야 눈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첫번째 실천한 행동은 다메섹에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혹한 핍박자로서의 사울에 대한 인식은 쉽게 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전력은 사울을 주의 사도로 받아들이는데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의 행동을 의심하고 있었으나 바나바의 지혜로운 중재로 그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는 3년 동안 베드로와 신앙적 교제를 나누며 예루살렘으로 올라 왔던 것입니다

2) 사도로서의 바울

그는 로마 시민권의 소유자로서 이것을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 전파의 유용한 방편으로 이용하였습니다 그는 로마가 누리는 질서와 평화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보고 복음 전파를 위한 디딤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뒤 아라비아에서 은거한 후 다메섹으로 돌아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변화된 삶의 첫발을 내 디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야고보와 3년간 교제하였으며 그 후로 고향인 길리기아로 돌아가 8년 이상을 조용히 지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시작된 제 1차 전도여행은 구브로를 시작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이르기 까지 복음을 전파하였으며, 마가 문제로 인하여 바나바와 헤어진 제 2차 전도여행에서는 실라와 함께 안디옥을 출발하여 드로아 항구를 경유,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보뢰아, 아덴, 고린도 전역에 이르기 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어 3년간의 제 3차 전도여행에서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서부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로 보냈습니다 이러한 3차에 걸친 전도여행 중에 투옥되고 핍박받는 일을 끊임없이 되풀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복음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던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후 유대인에게 붙잡혀 연금을 당하고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주후 60년 로마에 입성하지만 주후 67년경 네로 황제시대에 대화재 사건에 연루되어 투옥되고 결국 순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사도바울은 스페인에 이르기 까지 전도하였다고 전해지며 학자들에 의하면 그가 도보로 여행한 거리가 6,000마일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정열적인 사도 바울로 인해 오늘날의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누구보다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해석한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도록 양육하는데 전심을 기울인 책임감있는 목자였습니다 또한 교회내의 많은 문제들, 개인적인 삶에 관한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준 최고의 설교자인 것입니다

3) 사도 바울의 신학

사도 바울의 신앙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된 삶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유대교적 신학의 바탕위에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트 계층의 바리새파인 그가 일생일대의 전환기적 삶이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그에게 평생의 충격적인 삶의 허물이었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 최고의 교법사 가말리엘 문하에서 쉼마(신명기6:4~9, 11:13~21, 민수기 15:37~41), 창조주 이야기(창세기1~5장), 의식법(레위기1~8장), 할렐(시편113~18편) 등 율법 교육을 엄격하게 적용받았던 바울에게 있어서 신학의 전환은 쉬운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에 있어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차별화와 구별이 어려운 혼합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두가지 다 구약성경에 기초한 연유에 있었으며 여전히 구약의 율법과 문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어떤 철학이 생성하고 그것이 새로운 진화과정을 거치기까지는 수많은 진통과 세월이 필요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초유의 사태는 바로 이러한 두가지 혼합된 사상을 완전히 분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약과 신약으로 대립되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사상에서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립한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토대가 되는 구약성

경을 결코 무시하거나 경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강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조하되 그 바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율법의 기초로 세움으로서 그 율법의 완성을 가져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폐위가 아닌 완성의 의미는, 율법을 지키되 그것을 "외식과 거짓"이 아닌 "진심과 순종"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정립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부르심으로 부터 구원에 이르는 9단계를 정립함으로서 기독교의 핵심교리에 대한 신학적 사상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즉, 부르심(Calling)이라는 소명(召命)을 1단계로 거듭남(Born again, 중생(重生)), - 회개(Conversion, 회심), - 신앙(信仰, Faith), - 칭의(稱義, Justification, 의로움), - 양자(養子, Adoption, 하나님의 자녀), - 성화(聖化, Sanctification, 성결한 삶), - 성도의 견인(堅忍, Perseverance, 택함에 대한 보증), - 영화(榮華, Prosperity, 천국, 동일한 가치)에 이르는 구원의 서정 9단계 (또는 8단계)라고 하는 기독교의 핵심적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을 인용한 것은 적으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을 잘 알고 있었으며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의 삶과 내용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상적 중심은, 객관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으며, 주관적으로는 구원이 행함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의해 이루어 진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속죄인 까닭에 하나님의 은총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나타난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적 사상 가운데 핵심적 용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삶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연결성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보이지 않는 라인과 같은 영적 탯줄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세상의 욕망과 죄의 속성으로 인하여 사람은 항상 죄성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유에서 사도 바울 자신은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고 하였으며, "죄인중의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신비적인 인물로서, 속죄를 설명함에 있어서 법률적인 적합성을 일치시켜 설교하였습니다. 즉,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음은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일치성을 조직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사상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

활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말하는 자들과 논쟁함에 있어서 기독교 사상을 명확히 한 바가 많으며,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이 시대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말년에 로마에 감금되어 있던 시대에 기록한 서신에는 논쟁의 내용보다 영적인 측면을 강조한 기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영광의 주님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심과 모든 만물이 다 그에게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말한 대목은 다른 초대 사도들과 일치하는 것이었으나 말년의 사상은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이 세계에 충만하시다는 영적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함으로서, 교회의 권위와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만물이 충만한 그리스도가 가장 많이 교회에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철폐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었으며, 이 교리의 영향이 세계적인 기독교로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로마서를 비롯하여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등 13권(히브리서 제외)을 기록한 저자로서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적 관점을 정립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것입니다.

4)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1) 제 1차 선교 여행/13:1-14:28

- (1)안디옥에서의 행적/13:1-3
- (2)구브로에서의 행적/13:4-12
- (3)갈라디아 지역에서의 행적/13:13-14:20
- (4)안디옥으로 회귀하는 동안의 행적/14:21-28

2) 예루살렘 공의회/15:1-35

- (1)분쟁/15:1-5
- (2)토론/15:6-18
- (3)결론/15:19-29
- (4)안디옥에 보낸 편지/15:30-35

3) 제 2차 선교여행/15:36-18:22

- (1)개별적 선택/15:36-40
- (2)교회를 재방문/15:41-16:5
- (3)유럽으로 부르심/16:6-10
- (4)빌립보에서의 사역/16:11-40
- (5)데살로니가, 베뢰아, 아덴에서의 사역/17:1-34
- (6)고린도에서의 목회 활동/18:1-17
- (7)제 2차 전도여행을 종결/18:18-22

4) 제 3차 선교 여행/18:23-21:26

- (1)에베소 - 말씀의 능력/18:23-19:41
- (2)그리스/20:1-5
- (3)소아시아 - 드로아와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하는 설교/20:6-38
- (4)말레도에서 가이사랴/21:1-14
- (5)예루살렘 교회와 바울/21:15-26

5) 로마 여행/21:27-28:31

- (1)바울의 체포와 변호/21:27-22:29
- (2)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됨/22:30-23:10
- (3)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함/23:11-35
- (4)벨릭스 앞에서의 바울의 변호/24:1-27
- (5)베스도 앞에서의 바울의 변호/25:1-27
- (6)아그립바 앞에서의 바울의 변호/26:1-32
- (7)바울의 항해와 배의 파선/27:1-44
- (8)말타에서의 바울과 로마 도착/28:1-16
- (9)로마에서의 바울/28:17-31

5) 사도 바울의 서신

(1) 로마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 3차 전도여행이 끝날무렵(로마서15:19)인 주후 57년경, 고린도에서 머무는 3개월 동안 기록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서는 스페인 선교를 위한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 방문을 준비하게 하며, 또한 사도들로 부터 성경적 가르침을 받지 못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유대인 성도들의 율법주의적 신앙체계를 교정하고 바르게 훈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서신서이지만 복음서에 가까운 것으로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 즉 죄, 구원, 은혜, 믿음, 칭의, 성화, 부활 등 핵심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이것을 생활에 적용하는 과정까지 방대한 분량을 한권으로 집약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성경 66권을 대표하는 성경으로 알려져 있고 신학자들 사이에서 모든 성경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2) 고린도전서

주후 55년, 사도 바울의 제 3차 전도여행중에 예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다양한 견해의 신학적 논쟁을 해결하고, 또한 고린도 교회내의 신학적 질문서에 대한 회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신학적 사상을 정립한 신학교리 또는 조직신학적 정서에 근접하다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교회 내외의 분쟁과 현실적 고민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생활을 실재적인 접근을 통하여 해석한 지침서가 되고 있습니다.

(3) 고린도후서

주후 55년, 사도 바울의 제 3차 전도여행중에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것으로,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변론하고 자신의 사도적 정당성을 변호하였으며, 교회내 분쟁의 중심에 서있던 유대주의자들을 척결하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헌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가 논리적인 방향으로 성도의 생활을 지도해 나갔다면, 고린도 후서는 감성적인 호소로 지도한 양면성을 가진 것이라 할 것입니다.

(4)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의 기록연대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으나 대략 세가지의 이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 1차전도여행이 끝난후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기전이라는 설이 있고, 둘째는 제 2차 전도여행중에 기록했을 것이라는 설이 있으며, 셋째는 제 3차 전도여행 중인 주후 56년경 마게도냐에서 기록하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신뢰받는 설이 제 3차 전도여행 중인 주후 56년경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율법을 통한 구원을 주장하는 유대인 교사들의 잘못된 주장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갈라디아서는 기록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이것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신득의 사상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으로서 유대인들의 사

상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보다 강한 논조로 지도하고 있는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5)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주후 62년경, 사도 바울이 제 1차로 투옥되었던 로마에서 기록한 것으로, 각 각 지역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교회들에 대하여 만유의 주재로서 통일하시는 그리스도안에서 교회공동체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성도들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되어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보낸 서신이지만 교회의 문제에 관한 지적보다는 교회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에 대한 일치와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러한 통일성과 일치성의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사상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은 교회론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의 3대 원칙을 명확하게 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예배와 전도, 그리고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선포(케리그마), 구제와 지역사회의 확장을 선도하는 봉사(디아코니아), 성도간의 화목과 친교,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교제(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6) 빌립보서

빌립보서는 주후 62~63년경, 로마 감옥생활 가운데 기록한 것으로 빌립보교인들의 헌금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투옥되어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의 근황을 알리며, 또한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일심동체로 연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다른 서신과 달리 구약성경에서 인용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아는 지식의 깊이를 더해가며,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라는 권면을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 골로새서

골로새서는 주후 62~63년경, 로마 감옥생활 가운데 기록한 것으로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인 에바브라로 부터 교회내에 이단이 침투하였다는 심각한 보고를 받고 이단을 배격하며, 정통적 기독교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내에 성행하던 잘못된 철학, 유대의식주의, 천사숭배, 신비주의, 금욕주의 등 이단 사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후 51년경, 사도 바울의 제 2차 전도여행 중 갈리오가 고린도 지역 총독으로 부임하기 직전에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경건한 삶에 대한 교훈을 주며, 생활의 중심이 되는 종말론적 신앙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4장과 5장을 통하여 치밀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9)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후 51년경,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수개월후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서를 기록할 때의 상황과 크게 변화한 것이 없다고 판단한 사도 바울은 박해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재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지도하였으며, 생활의 경제 활동에 관심을 가질것을 경고하되 유대적 기법으로 엄격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종말론적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더 많은 할애를 하여 바른 교훈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10)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후서, 디도서와 함께 목회서신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주후 63~65년경, 로마 감옥에서 1차로석방되어 동방여행을 하는 도중에 기록되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 이단에 대하여 경고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윤리도덕적으로 연단하며, 교회 조직의 효과적인 운영지침과 올바른 목회지침을 제시해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영지주의와 거짓교사등 이단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고 있는 디모데 전서는 신학적 사상보다 윤리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며 공중예배와 교회 행정과 권징에 대한 교훈, 그리고 목회자의 의무 등 교회생활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현대 교회행정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서신이라 할 것입니다.

(11)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서신의 최후서신으로, 주후 66년경, 로마 제국에 의해 2차로 투옥되어 순교하기 직전에 감옥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교사들로 부터 복음과 진리를 수호하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만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디모데의 소심한 성격과 연약한 육체를 염려하면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낼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

도로서 시련에 대한 인내와 말세에 나타날 여러가지 시험에 대한 대비를 기록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사역자들의 삶을 기록하며 또한 그러한 지체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12) 디도서

주후 66년경,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디도서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에게 보낸 목회서신입니다 신앙의 선한 행위가 종식되면서 혼란스러움으로 가득차 있는 그레데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고, 바른 신앙관을 정립하며 또한 디도를 격려하여 율법학자 세나(Zena)와 아볼로를 통하여 영적 양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디도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의 실천을 강조하며 기독교의 교리와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구원의 보편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데 사람들의 부패성과 비도덕적인 생활을 지적하며 목회자 디도에게 신앙적, 윤리적 모범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3) 빌레몬서

주후 62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1차로 투옥되었을 때 옥중에서 기록한 것으로 주인의 재산을 도적질하여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복음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회심케 하였으며, 그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 보내면서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과 또한 복음전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빌레몬서는 노예신분에 대한 혁파를 논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우리 모두는 신분과 관계없이 한 형제이며 사랑안에서 모든 허물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활적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 히브리서(저자는 미상)

주후 60~69년경, 기록된 것으로 사도바울을 비롯하여 바나바, 누가, 아볼로, 클레멘트 등이 기록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나 명확하게 정리되는 논리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서로서 서신과 설교의 중간지대에 있는 논문 형식의 서신 또는 변증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중 동족의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유대교로 회심하려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품성과 사역과 신앙의 3가지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지도자를 나열하는 가운데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 보면서 그들보다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월성은 구약을 넘어 오늘에 이르기 까지 불변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우월성을 신앙하며 믿음을 굳게 지킬것을 간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6. 사도 바울의 제 1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의 제 1차 전도여행과 선교 정책에 대한 특징

교회사 내에서 사도 바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활발한 전도여행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울이 유대인에 국한하여 전도하였다면 기독교가 로마와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계획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나선것이 아니라(로마서11:13),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에 의하여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방선교를 감당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갈라디아서1:1, 1:16). 사실상 사도 바울만큼 이방인의 사도로서 적합했던 인물도보기 더문것이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의 고도 다소 출신인데, 다소는 주 전(BC) 1세기 경 헬라철학의 본고장이었으며, 동서양의 합류지점에 위치했기 때문에 헬라철학과 로마적 세계관이 동방의 신비주의와 혼합되어 그 도시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소에서 성장한 바울도 이러한 환경에 영향을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그가 헬라 교육을 받은 흔적들로서는 그의 서신들에 나타나는 정교한 반어법(고린도전서1~4장), 혹은 명확한 논리체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엄격한 히브리식 교육을 받았으며 유대인으로서 로마시민권을 가진 소수의 엘리트중 한사람이었습니다(사도행전22:25). 따라서 바울의 극적 회심(사도행전9:1~31)은 이방선교의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모(母)교회의 탄생에서 부터 이방 선교의 요람이었던 안디옥 교회의 출범에 이르기까지의 진전된 사건이 사도행전 1장으로 부터 사도행전 12장을 끝으로 초대교회의 전편은 그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으로 부터 사건은 급전하여 바울행전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시작된 세계선교는 시작부터 기독교들의 생각조차도 아주 미미한 흔적, 또는 소득없는 것으로 여겨 졌을지 모를 일이었으나, 성령의 위대하신 능력이 개입됨으로서 유럽과 세계의 역사를 전환시켜 놓은 일대 혁신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전도와 선교란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사람들을 인도하는 모든 행위와 수단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전도가 주로 내국인 또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복

음을 증거하는 행위라면, 선교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하로 펼쳐지는 사도 바울의 선교적 특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의 선교는 이론적인 형태의 수동적 선교보다는 실천적인 선교의 능동적 행위였습니다 역사상 많은 운동과 사상들이 탁상공론으로 종료된 것에 비하여 사도 바울의 선교는 목숨을 건 타국민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공격적인 형태로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도 바울의 선교는 교회의 후원으로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스스로 자비를 벌어서 일부를 충당하기도 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기도와 물질적 후원으로 인하여 선교정책을 달성함으로써 독자적인 선교보다 교회와 함께 협력해 가는 선교문화정책을 정착시킨 것입니다

셋째, 사도 바울은 동역자와 함께 팀을 구성하여 선교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를 혼자 보내지 아니하고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조력자를 함께 수행하게 하여 효과적인 선교를 달성하게끔 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공동체의 구성과 협력에 있어서 동역자의 역할과 조명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넷째, 사도 바울의 복음은 이방종교나 문화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타협하여 본질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진리를 선택하였습니다 비록 선교지의 문화와 종교적 토양에 따라 선교의 정책에 관하여는 다양한 방법과 논리로 접근하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인 진리의 요소들을 변경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음으로서 세계선교의 정책 가운데 가장 본질을 지킨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고린도전서10:20~23, 갈라디아서1:6~10)

다섯째, 사도 바울의 선교사역 속에는 성령의 강한 능력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진리의 핵심이 되는 성령의 선교라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한 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사실상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역사는 세계 선교를 향한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시기였으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세계적 선교정책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피를 뿌리는 과정속에서도 결코 후퇴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사도바울의 제 1차 전도여행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

행은 바나바와 바울의 기획에서 착안된 여행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에 따라 교회가 그 두사람을 파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바나바가 바울보다 더 중심적인 인물로 부각되어 있으나(사도행전13:2) 곧 바울이 전면으로 부각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사도행전13:13~)

두 사도의 첫번째 행선지로 구브로섬을 선택하였습니다 복음과 무속신앙의 마찰이 극심하게 일어났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을 주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사단의 모든 방패를 물리치고 승리의 전진을 계속하게 됩니다 구브로섬은 지중해 동북방에 위치한 섬으로 안디옥에서 서남방으로 마주보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의 출신지이기도 한 곳입니다 주전 22년경, 구브로는 원로원 선거권이 있는 지역으로 지명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구브로섬은 원로원의 통치 아래에서 총독이나 지방장관에 의해 다스려 진 곳입니다 여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거짓 선지자 박수를 곁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미신이나 점성술 등을 신봉하는 습성이 있어서 그것을 노리는 거짓 점성가들이 호황을 누리는 예가 흔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지면서 안디옥은 50만명의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의 출발지가 안디옥이었음은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중요한 출발지였기 때문입니다

구브로 섬을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감당한(사도행전13:13~52) 바울은 디아스포라의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다는 원칙을 이곳에서 부터 줄곧 지켜 나갔습니다(사도행전14:1, 17:1, 18:4) 이러한 사도 바울의 원칙은 그의 서신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받고 구원에 이르는데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로마서3:21~31) 이처럼 평등이 전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 비해 역사적, 지식적으로 복음에 접할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유대교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자처하면서도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였던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유브라데까지 이르렀던 로마의 대로는 주전 6년경에 남부 갈라디아의 중심지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부터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고니온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철저히 로마화된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인종적으로는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등이 함께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고니온의 사역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훗날 이곳은 선교 확장의 중심지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들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의 사건은 매우 극적으로 전개되어 있어 목격자 즉, 디모데의 보고를 토대로 하여 기록된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루스드라는 주전 6년경에 로마의 식민지로 흡수되었던 곳입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는 이곳으로 고참직업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이주시켜 변방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 주민의 대부분이 교육을 받지 못한 루가오니아인들로서 자기들만의 언어를 따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배 계층은 로마 직업군인들로 이루어졌고 교육과 상업들은 소수의 헬라인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을 거쳐 더베등에 이르기 까지 복음을 전파하였으나 다소산맥을 넘어 동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 1차 전도여행과 예루살렘 총회

사도행전 15장은 주후 49년에 개최된 예루살렘 총회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자 초대교회들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공존하고 히브리사상과 헬라사상이 공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갖고 있던 문제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였던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총회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할례문제를 발단으로 하여 처음으로 개최된 예루살렘 총회는 초대교회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으며 이에 대해 예루살렘 교회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사도행전 10~11장)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산되자 예루살렘 교회는 다소 당혹감을 느꼈던 것 같으며 특히 구약율법에 충실한 자들은 노골적으로 반발을 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기독교 초기부터 심각한 당파현상이 벌어질 판국이었습니다

당시 이미 복음은 바울과 바나바의 제 1차 전도여행에 의해 이방인들에게 널리 전파된 이후 였습니다 또 그 이전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서 그들이 회개하고 방언을 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사도행전 10:1~11:18)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방인들에 의해 교회가 문란해질 것을 심히 우려하였습니다

또 율법과 선민의식에 투철한 일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는 율법이나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근거로 들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주워 졌음을 변증하였습니다 그 후 베드로가 그 의

견에 동의하고 야고보가 아모스9장 11~12절 말씀을 인용하여 구약에 이미 이방인들의 구원이 예언되었음을 밝힘으로서 이 문제를 이방인들에게 준수해야 할 금지조항을 내세워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으로 일단락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결의를 굳힐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주였다고 볼 수 있는 배드로의 단호한 성명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사도행전 15:7~11)

예루살렘 총회는 복음안에 있는 성도들이 피차 문화적 다양성과 양심의 자유를 이해하고 서로 포용해야만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회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15장 22~35절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서신형식으로 안디옥 등지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 가운데 두드러진 두가지의 특징은 첫째, 유대인과 이방인간의 차별이 해소되고 유대교의 제도와 형식이 철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서 사도 바울의 이방인 국제 선교사업은 더욱 활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 기존 유대교의 이론과 틀을 철폐하는 선언의 이면에는 이로 인하여 기독교회는 예루살렘교회 내의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심한 압박과 핍박을 받게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전략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파되었던 복음이 유대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 세계로 확산되는 분수령을 이루는 것이 사도행전 13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전략에는 일곱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대상 지역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미 복음이 전파된 지역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고 그곳에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던 사도바울의 절박함이었습니다 둘째, 각 지역의 대도시와 중심지역을 대상으로 사역의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그리고 전파력이 뛰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원하였습니다 셋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회당은 복음이 사역되는 곳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있는 곳입니다 진리는 바로 그곳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사도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성경의 메시아이며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시대, 그는 목숨을 걸고 복음에 매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는 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다급하고 화급을 다투는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다섯째, 복음을 듣는 사람에 따라 복음은 보다 쉽고 이해하기 편리하게 전달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사명과 소명, 의지와 목적 그리고 이것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융통성과 같은 복음의 향방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진실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섯째,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택하여 교회를 감독하게 함으로서 지속적인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는 창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인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는 원칙을 실천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힘겹고 벅찬일이었지만 그는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았고 곳곳에서 생명력있는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일곱째, 교회들의 연합이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별로 이기적이지 않고 공동체로서 상호 교통하고 소통하며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 1차 전도여행 일정(사도행전13:4~14:28)

안디옥▶ 실루기아(사도행전13:4)▶ 구브로의 살라미(사도행전13:4~5)▶ 바보(사도행전13:6)▶ 바보의 총독 서기오 바울의 회심(사도행전13:12)▶ 밤발리아에 있는 버가(사도행전13:13)▶ 밤발리아의 버가에서 요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감(사도행전13:13)▶ 비시디아 안디옥(사도행전13:14)▶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가 처음으로 기록됨(사도행전13:16~41)▶ 이고니온(사도행전13:51)▶ 루스드라(사도행전14:6)▶ 더베(사도행전14:20)▶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사도행전14:21)▶ 버가, 앓달리아(사도행전14:25)▶ 안디옥(사도행전14:26)▶ 디모데의 회심(사도행전16:3)

7. 사도 바울의 제 2차 전도여행

예루살렘 총회의 인정을 받은 사도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와 복음 사역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그의 사역을 안옥에만 국한시켜 진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까닭은 제 1차 전도 여행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복음의 진척과 진행 상황을 알기 위해서라도 재방문의 필요성이 절실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사차원의 방문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상태를 점검하고 더욱더 확고한 신앙을 뿌리 내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을 떠나게 된것입니다(사도행전 15:36)

그러나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 대한 계획과 의도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 더 넓은 세계로 바울을 인도하였습니다(사도행전16:9)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와 유럽 등지에 이르는 제 2차 선교여행을 3년간에 걸쳐 수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정책이 개인적인 사욕이나 명예, 이권을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명감에 젖어 있었습니다(사도행전15:36)

마가 요한은 제 1차 전도여행 당시 중도에서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였습니다(사도행전13:13) 바울은 그 사건으로 인해 마가 요한에 대한 불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친했고 그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훌륭한 복음 사역자로 다시 천거하였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의 두말할 나위없는 드림팀은 분리되어 서로 다른 방향의 복음사역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즉,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향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향하였습니다.

바울의 초개같은 신앙과 단 한번의 실수에 대하여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단호함에 대하여 무엇이 정의다 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온화함으로 다가가서 더욱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나가는 바나바가 더욱 훌륭한 지도자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상 오늘날의 리더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면에는 이러한 분리정책을 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복음 사역자가 증가하였고 복음전도 구역도 더욱더 확산되어 빠른 속도로 진척될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바라 볼수는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는 1차전도 여행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을 간략하게 언급하고만 넘

어갔습니다 그러나 복음 사역의 새로운 리더였던 청년 사역자 디모데를 중요한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디모데는 모친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도움으로 유소년 시절부터 성경에 익숙하였으며(디모데후서1:5,3:15), 바울의 제 1차 전도여행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며 그의활동은 매우 모범적인 신앙인의 태도였습니다(로마서16:10, 고린도전서4:17, 디모데전서1:2)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등의 여러지역을 방문한 후 사도 바울은 로마를 따라 예베소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의 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방향인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비두니아지역으로 북상하려고 했으나 이마져도 제지를 당하였습니다 이 때 사도 바울에게 보였던 것이 마게도냐 환상이었습니다(사도행전16:6~10)

우리는 이와같은 일련의 현상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사도행전 16장에는 성령(6), 예수의 영(7), 하나님(10) 등의표현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교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게도냐 환상이 역사상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만약 마게도냐 환상이 없었다면 유럽 문화와 문명의 역사는 예측할수 없을 만큼 달라졌을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경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으나 빌립보를 첫 성으로 선택한데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습니다 빌립보가 로마 제국내에서 유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주전 42년경, 빌립보 전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구스도는 브루터스의 시저를 이기고 로마황제의 권좌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아구스도는 빌립보에 용맹한 군인들을 이주시키고 빌립보를 로마의 식민지로 승격시켜 황제의 직속하에 두었던 것입니다 빌립보는 해안과 육로를 연결하는 교두보라는 점에서 전략상 주요지점이었고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였으며, 당시 세계적 명성을 지녔던 의학교육기관이 소재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제 2, 3차 전도여행중에서 빌립보에서의 사역에 가장 많은 것을 할애하였습니다 유럽으로 통하는 관문이었던 빌립보에서의 전도는 비교적 짧은기간 동안에 이루어 졌지만 지리적,정치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때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설립자인 사도 바울에게 일관된 존경심과 충심을 보였으며(빌립보서13~5), 바울 자신도 빌립보 교회에서만 재정적 원조를 허락할 만큼 그 성도들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빌립보서 만큼 바울의 기쁨을 전달하고있는 서신서도 없다는 점에서 빌립보에 대한 바울의 애착을 읽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두아디라가 고향인 루디아를 전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바게도냐 지방의 수도로서 마게도냐에서 가장 크고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내륙의 풍요로운 농경지를 동쪽의 육로와 해로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키케로(주전106~43)는 "우리 영토의 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를 발칸 반도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삼았습니다. 빌립보에서 고문과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160km나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필사적으로 들어온 이유가 바로 이러한 요충지라는 측면이 강하였을 것입니다(데살로니가전서2:2)

사도 바울의 전도정책의 우선순위와 핵심은 유대인과 헬라인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사도행전13:46, 로마서1:16). 사도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 세가지로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믿는 신앙과 그 어느 부분에서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귀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마태복음11:5)라고 선포와 증거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그가 아는 사람도 없으며 그 어떤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목숨을 걸어가면서 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몸에 질병을 가지고 다니는 육신의 삶이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유대인과 이방인과 또 다른 민족을 향하여 그들이 원하지 않는 복음을 담대히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고찰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전하는복음과 메세지를 통하여 교회가 일어나고 믿음의 지체들이 일어나며 복음이 확장되어 간다는 놀랍고 경이로운 사실앞에 우리는 감동과 역사와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바라봅니다.

베뢰아는 마게도냐 평원 남방향 조그마한 언덕에 위치한 도시로서 인구가 많은데 비해 역사적, 정치적인 배경이 부족한 평이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온건하고 순한 사람들로 구성된 베뢰아 지역의 선교활동은 비교적 순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도착하였을 때에 아덴은 이미 옛 영광이 사라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아덴인들은 여전히 학문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있었으며, 에피큐로스(주전342~270) 학파는 당시 철학 사조를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사도행전17:18). 이러한 종교와 철학적 관념에 습성화 되어있는 바델지역에서의 복음은 참된 신관을 정립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아덴인들의 복음에 대한 냉담한 반응은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적 지식주의가 갖고 있는 냉철한 비판성과 교만성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에피큐로스학파의

발생지였던 아덴 사람들은 신에 대한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으나 신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 구별되어 서로 상관하지 않는다는 독특한 신앙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확장에 있어서 아덴의 성과를 실패로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정책은 하나님을 전하는 선포와 증거에 있습니다. 이러한 선포와 증거에도 불구하고 불신을 선택하는 것은 그들이 몫이라 할 것입니다.

고린도는 국제적인 항구도시로 온갖 부패와 비행들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부패된 모습을 가리켜 "고린도인들이 짓거리"라는 헬라어 표현이 있으며, 현대 영어에서도 패륜아를 가리켜 "고린도인"(Corinthian)이란 단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역을 통해 복음 전도 사역이 미궁에 빠져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양치기들이 사용할 천막짓는 일에 일시적으로나마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러한 사역들에 대하여 천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감사한일로 여겼습니다. 또한 과도한 욕심으로 재물을 쌓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유용할 정도로만 생계를 이어 갔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설립한 교회로 부터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힘겨운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사역을 통하여 존경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전하였습니다(사도행전18:3).

갈리오는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주전4년~주후65년)의 형으로서 독창적이고 청렴 결백하고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총독에 부임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친절함을 이용하여 유대인들은 바울을 모함하고(사도행전18:12~13) 처벌을 동조하였으나 갈리오는 불편부당한 로마 총독으로서 사법권 외의 종교적 문제에 관하여 개입을 꺼려했기 때문에 고초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사도행전18:15).

마게도냐 환상을 보며 감동과 환희로 내 디뎠던 제 2차 전도여행도 막받이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등에서 심한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오래동안 건강이 좋지않았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린도에 입성하고 그곳에서 만난 아굴라부부(사도행전18:2)는 잊을 수 없는 큰 위로와 힘이었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신실한 동역자였으며(로마서16:3~4), 이로서 바울의 기나긴 제 2차전도여행도 막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부터 수리아와 안디옥에 이르는 긴 여행을 누가는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제 2차 전도여행의 성과를 보고함으로서 전 교회간의 유대와 공동체적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방사본(Westrn Text)과 비잔틴사본(Byzantine Text)에는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어조의 문구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사도행전18:21). 주후

52~53년경, 안디옥으로돌아온 사도 바울은 제 3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며 휴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바울의 제 2차 전도여행 일정(사도행전15:39~18:22)

사도 바울의 제 2차 전도여행의 특징은 복음의 유럽진출입니다 유럽은 향후 모든 세계의 중심지로서 복음의 세계화전략에 가장 중요한 경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전도전략이 갖는 경향은 복음의 세계화와 그 시기에 대한 임박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예수님의 재림이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시급하고 빠른속도로 전파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마가의 동행 문제로 바나바와의 갈등(사도행전15:37~39)▶ 더베, 루스드라(사도행전15:40~16:1)▶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의 합류(사도행전16:3)▶ 드로아(사도행전16:6~8)▶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봄(사도행전16:8~10)▶ 빌립보(사도행전16:11~12)▶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간수의 회심(사도행전16:14, 33)▶ 데살로니가(사도행전17:1)▶ 데살로니가에서의 강론(사도행전17:2)▶ 베뢰아(사도행전17:10)▶ 아덴에서의 아레아바고 설교(사도행전17:22)▶ 아덴, 고린도(사도행전18:1)▶ 1년 6개월 동안의 고린도 사역(사도행전18:1~11)▶ 에베소(사도행전18:19)▶ 예루살렘(사도행전18:22)▶ 안디옥(사도행전18:22)

8. 사도 바울의 제 3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의 제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서부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방향 카이스터 계곡의 입구에 위치하는 항구도시로서 교통과 무역의 관문 역할을 하는 소비도시였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이방 미신이 성행하여 이교도들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는데(사도행전19:19), 만사형통의 복을 준다는 "에베소 주문"을 몸에 지니고 다닐 정도로 극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토테미즘 사상과 이방종교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사도행전19:24) 사회적인 부패와 타락까지 만연해 있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3년간(주후53~56년경)이나 머물며 교회의 기초를 세우며 성장과 확장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음행을 경고하는 고린도전후서를 기록하였고, 이들이 보낸 답장의 회신도 이곳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에베소에는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교인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사도행전 18:24~25). 아볼로는 세례요한의 세례를 강조하는 신앙을 전파하였고, 그가 고린도 지방으로 떠난 다음에도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교인들은 에베소에 남아 살고 있습니다(사도행전19:3).

"침략자"라는 뜻을 가진 아볼로는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며 구약에 정통한 변증가였습니다.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는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아볼로는 특히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하였으며(사도행전18:28), 말년에는 고린도교회의 주교로서 사명을 다 하였습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강조한 요한의 세례는 요한이 베포 물세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향을 받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령세례를 이야기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으로 에베소 사역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세례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구약시대 3대 사건은 노아 홍수(베드로전서3:20~22), 홍해사건(고린도전서10:2), 할례 의식(골로새서2:11~12)입니다. 고대 동방 세계와 유대교의 일부 종단에서 세례의식을 통하여 신생(新生), 단체의 가입서약, 신(神)과의 신비적 합일을 상징하였으나 그 직접적 배경은 구약의 3대 사건이었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이전의 죄를 깨끗이 회개하여 씻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공중의 서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적이고 외형적인 물세례가 인간의 서원을 강조한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의 행위라면, 성령세례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내적 연합을 강조하는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요한의 세례를 넘어 성령세례를 강조하려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유대인 회당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파하였으나, 3개월이 지나가는 동안 유대인 회당내 비판자들이 증가하면서 에베소지역의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 2년여 동안 활동하게 되었습니다(사도행전19:8~20). 두란노라는 이름의 부호가 순회 강연자들에게 제공한 강연 장소였거나, 또는 두란노라는 철학자가 강론한 강의장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두란노서원에서 사도 바울은 오전 11시 부터 오후 4시까지 복음전파를 위해 활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성경강해와 공부를 위한 공간으로 마련된 두란노 서원은, 오늘날 성경공부의 장을 펼치는 주요공간으로서의 대명사가 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역사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딜(S. Dill)에 의하면 당시 사람들은 가정보다는 크고 국가보다는 작은 사회기구를 많이 형성하고 있었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데메드리오" 등이 사도 바울을 공격한 동기가 외적으로는 "아데미" 여신에 대한 종교적 열성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경제적 수익성 때문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서 많은 유방을 가진 생식을 주관하는 여신으로 분류되며, 데메드리오 등은 이러한 아데미 모형의 은감실(아데미 신전 또는 아데미 신상을 한 작은 모형, 기념품)을 판매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종교 상업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각종 미신들이 난무하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생각보다 많은 고초와 고난과 방해공작에 부딪히며 복음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와 아시아를 재차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점령군들의 유대인들에 대한 강력한 지배구조로 말미암아 로마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의 복음사역은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사도행전20:1~5).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쉬운 곳은 한 지역도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선교는 저항을 받았고 고난과 함께 시작되고 역경과 함께 종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명과 소명의식을 끊임없이 일깨워 가며 복음증거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배를 이용하여 드로아로 입성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7일여를 머물며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때마침 "유두고"라는 청년이 낮에 일을 마치고 저녁이 되어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육체의 피로로 말미암아 다락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왔던 한 청년이 사망한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어 복음 증거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사도 바울은 그를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보여줌으로서 교회는 더욱 힘을 얻

게되었고 신앙이 담대하여 지기 시작하였습니다(사도행전20:6~12)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선교와 사역뒤에는 항상 그분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뚜렷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앓소와 미둘레네를 거쳐 기오와 사모에 이르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러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했던 사도바울은 유대인들의 살해음모로 지체가 되고 30~50km되는 거리를 도보로 여행하며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사도행전20:13~16) 이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이 힘에 부딪히고 몸에 힘겨운 상황속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고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16~41)과 14장(15~17), 그리고 17장(22~31)과 22~26장에 이르는 설교와 기독교 변증에서 보여주는 모든 설교는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사도행전 20장17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심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만 충심을 다하였습니다 다른 어떤 의도나 인기적영합에도 무관하였으며, 복음의 파숫군으로서 사명을 다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는 동역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의 삶과 어려움과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주는 신실한 목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성령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복음 증거를 위하여 직접 생계수단을 활용하였으며, 복음을 가장 위대한 진리로 여겼고, 그것을 값없이 취한 은혜로 여겼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충성하여도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로 밀려오는 배교를 경계하고, 바른 진리에 대한 교훈을 선포함으로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나타내었습니다

주후 58년경, 사도 바울은 밀레도를 떠나 고스로 가서 로도와 바다라에 이르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상륙하여 제자들을 찾아 7일을 함께하였습니다 돌레마이와 가이사랴에 이르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함으로서 바울의 제 3차 전도여행은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보고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때, 바울에 관한 괴소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에게 조상의 규례와 율법을 파기하도록 권했다는 헛소문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성향은 민족

주의 선민사상의 우월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바울의 세계적 복음사역이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사도 바울이 나실인의 서원을 한 네사람의 결례에 동참하며 그들의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려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제안을 수락했지만, 구원을 위해서 의식법을 준행한다는 사상은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정면충돌하므로 이견이 있음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나긴 1,2,3차 전도여행은 이것으로 종결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로마로 향하고자 하는 열정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인가? 그는 왜 이토록 험난하고 고통이 수반되는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차 있을 수 밖에 없는가? 한순간도 편리함과 쉼을 허락하지 않는 그의 생애를 통하여, 그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되고 있는 복음의 열정과, 목숨보다 귀한 복음으로서의 가치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흔적들을 통하여, 아주 짧은 순간에 읽어내려가는 사도행전속에서 한 사람의 피와 눈물과 고난과 공포를 넘어서는 사도 바울을 그냥 스쳐 지나가서는 결코 않될 것입니다 그와 우리가 다르지 않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그는 왜 그토록 목숨을 건 전도여행을 해야만 하고, 우리는 왜 이토록 세상과 근접해 지려고 하는가 하는 정반대의 삶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세상의 혼탁함으로 인하여 사명과 소명의식을 잃어가는 오늘의 기독교인들에게 강한 교훈과 책망으로 훈육하는 경고의 메세지가 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직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바울의 제 3차 전도여행 일정(사도행전18:23~21:17)

사도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2차 전도여행 종료후 바로 진행된 것으로 2차 전도여행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이 시기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역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그의 정성은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려내는 기적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안디옥▶ 갈라디아, 브루기아(사도행전18:22~23)▶ 에베소(사도행전19:1)▶ 장기간에 걸친 에베소에서의 사역(사도행전19:1~20)▶ 마게도냐, 헬라(사도행전20:1~2)▶ 빌립보, 드로아(사도행전20:6)▶ 드로아에서 죽은 유두고를 살림(사도행전20:7~12)▶ 미둘리네, 사모, 밀레도(사도행전20:14)▶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의 작별(사도행전20:17~38) ▶고스, 로도, 바다라, 두로(사도행전21:1~3)▶ 가이사랴, 예루살렘(사도행전21:7, 15)▶ 가이사랴에서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사도행전21:8~14)

9. 사도 바울과 로마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로마의 역사

1) 사도바울과 로마교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탄생한 초대교회는 산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할 중차대한 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마태복음 28:18~20) 한편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의 진통끝에 태어난 초대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역사속에 특별한 무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초대 교회가 활동하였던 그 때 그 상황은 결코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뜻으로 말미암아 오랜 세월을 두고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섭리의 때와 장소였던 것입니다

즉, 오랜 유대의 역사, 거대한 로마제국 및 고도의 헬라문화는 초대교회의 배경으로서 정치, 종교 사상적인 측면에서 복음의 씨앗이 자라도록 하나님에 의해 조성되어진 터전이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로마제국이 갖는 의미는 지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 교회의 복음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국한되었더라면 이처럼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경 사해의 고인 물처럼 소수 민족의 종교로 변질되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는 지중해를 내륙호처럼 끼고 있었으며 그 판도가 영국에서 페르시아까지,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 북유럽까지 뻗어있는 대 제국 로마를 활동무대로 삼음으로서 복음의 씨앗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구스도의 통치때 부터 약 200년 이상 지속된 로마의 평화(Pax Romana)는 다민족, 다종교, 범신론적 사상을 단일화된 법과 언어하에 통일한 배경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그 배경하에서 복음이 종족과 언어와 국가를 초월하여 어디든지 뚫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강한 군대를 내세워 여러 국토를 통일한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기치하에 동서와남북의 벽을 뚫어 훌륭한 군사와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복음이 이러한 루트를 통해 원활하고 신속하게 로마제국 전역으로 뻗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당시 높은 수준의 로마법으로 말미암은 질서유지는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도 바울에게 더 할 수 없는 편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사도행전16:37~39, 22:25~29) 이러한 모든 점들을 고찰해 보면 실로 로마는 초대교회의 복음사역을 위해 인류 역사상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마련된 복음의 온상이요 무대였음을 실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 문화적 배경을 기독교에 맞춘 로마는 처음에는 기독교를 탄압하여 수많은 순교자를 희생시켰으나 나중에는 그 진리와 생명력에 굴복하여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기독교가 세계사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결

정적인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선교하기 전에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이름을 다수 거명하면서 인사를 할 만큼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교회가 언제 설립되었는지는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추측컨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대로 로마로 부터 온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강림을 체험하고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견해로는 로마에 자리잡고 있던 유대인 촌에 복음이 들어가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울의 로마 방문 이전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 촌은 주전 62년, 팔레스타인으로부터 포로로 끌려와 노예 수용소처럼 있었으나 후에 폼페이와 승리로 자유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글라우디오(주후41~54년)황제때 로마에서 유대인들의 추방령이 내려져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변방 식민지로 유랑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사건이 다 이런 정치적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도들의 전도로 인해서 반감을 가지고 자주 데모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민심이반을 막기 위한 조치였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입니다

아돌프 하르낙(Adolf Harnack)은 이런 유대인의 박해를 무릅쓰고 로마에서 전도한 기독교도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주동적 인물이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로마교회에 서신을 쓸 무렵엔 이미 크게 성장하고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플라티우스(Aulus Plautus) 장군의 부인인 폼포니아 그래시나(Pomponia Graecina)는 기독교를 신봉한다는 죄목으로 14년간이나 가택연금의 처벌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가이사의 집 친척들이 그들에게 문안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기독교의 복음이 로마의 가이사 황족이나 귀족들에게까지 전파된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돌프 하르낙에 의하면 기독교 전래후 50~60년 사이에 황제의 한 딸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네로의 박해 후 30년에는 황태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까지 했다는 주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후 60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였을 무렵에는 이미 복음이 로마 전역에 확산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의 스페인 선교를 협력하기를 호소하기 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청원대로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도

와 스페인 선교를 추진하였는지에 대한 문헌은 남아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바울이 크게 감동하였을 만큼 이미 훌륭한 교회를 이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마침내 길고도 참혹한 로마의 박해를 이기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2) 로마제국의 역사

로마 제국은 아우구스투스가 황제 지배 체제 혹은 원수정(principatus)을 시작한 주전 27년 부터 몰락까지의 로마황제의 통치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정 시대의 종식은 주후 395년 동서 로마의 분할, 476년 서로마제국의 멸망, 1,453년 비잔티움 제국 멸망 등 상호적 관점에 따라 많은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지중해 동부의 헬레니즘 문화권과 이집트, 유대, 서부의 카르타고, 히스파니아, 갈리아 등의 기존 영토에 이어 브리타니아와 라인강 서쪽 게르마니아, 그리스 북쪽의 다키아까지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패권주의는 로마 제국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사회와 문화를 지중해 중심의 세계에 확산시킴으로서, 로마 제국의 건축양식과 법률, 정치 등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2-1)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주전 27~주후 14년)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패배로 끝난 악티움해전 이후, 로마의 유일한 최고 권력자가 된 옥타비아누스는 군사, 재정, 정치 전반에 걸친 대규모 개혁에 착수하였고, 주전31년 안토니우스를 제거한 그는 원로원에 의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뒤를 이어 종신 독재관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내전 당시 제거된 귀족들의 직위를 지방 출신 관리들로 충원하였으며 또한 이들이 원로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었습니다. 주전 29년, 옥타비아누스는 감찰관에 선출되었고 내전의 종결로 자신에게 위임된 비정규 특권을 원로원과 로마 시민에게 반납을 선언하였으며, 로마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존엄한 자"를 뜻하는 칭호인 "아우구스투스" 를 수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옥타비아누스는 집정관이었고,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가 갖고 있는 금화, 은화 발행권을 되찾아 올만한 권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직접 속주를 다스리고 군대를 이끌지는 않았지만 옥타비아누스는 군대의 높은 지지기반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옥타비아누스의 후원에 힘입어 출세한 많은 지지자, 피호민, 또 그가 가진 엄청난 부는 로마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바가 되지 못했습니다.

원로원은 전과 다름없는 위엄과 권한을 지닌 듯했으나 실권은 없었고 옥타비아누스는 실질적으로 군사와 재정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특히 원로원 의원직을 자기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로원을 전통과 여론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존중했고, 원로원에 정책 자문을 구하였으며, 정무관을 임명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원로원을 존중해 원로원 의원과 기사계급으로 이루어진 특별위원회가 법무관과 집정관을 선출하게 했고, 켄투리아회는 이를 자동적으로 승인케 하는 상호 공존의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속주들은 원로원 속주라 하여 원로원이 통제했으나, 편입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밖의 속주들은 황제가 통제하였습니다. 황제는 그가 통제하는 속주에 군대를 주둔시켜 지배력을 강화하였으며, 속주 총독직에는 원로원 의원뿐만 아니라 기사 계급도 임명하였습니다. 속주는 직접세와 간접세를 로마에 바쳤으나 기본적으로는 각각 자체의 민회와 시 의회, 관리를 거느린 지방국가(Civitas)를 단위로 자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속주에 파견된 관리의 수준이 높아졌고 감독이 강화되었으며 평화가 정착되어 더 나아졌고 로마 시민권을 받으면서 지치도시로 승격되었습니다.

이러한 평화에 대해 많은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와 그의 가문을 숭배함으로써 감사를 표시하였으나 실질적인 권력기반은 바로 그에게 개인적인 충성을 서약한 군대였습니다. 군대는 군단, 보조부대, 근위대, 해군으로 이루어졌으며 황실 근위대의 병사는 대개 이탈리아인이었으나, 많은 군단과 거의 모든 보조부대의 병사는 주로 황제가 다스리는 서부 속주 출신이었으며, 군단은 입대하는 날로, 보조부대는 제대하는 날로 시민권을 얻었고, 보조부대에서 제대한 병사들은 주둔했던 속주에 정착했으므로 제국 전역을 로마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는 많은 지역을 정복했으나 로마화가 쉬운 지역만을 속주로 병합해 도로를 건설하고 역참(驛站)제도를 시행한 반면, 로마화가 어려운 지역은 아르메니아왕국과 같은 위성국가로 만들어 방어에 따르는 비용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토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전쟁보다는 카파도키아, 트라키아왕국과 같은 위성국가를 먼저 만든 뒤 속주로 병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제위 계승의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옥타비아누스는 일찍부터 후계 문제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군대는 부자상속에 정통성을 두었으므로 그는 왕조를 세우려 했으나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가까운 친척들도 그보다 먼저 사망하여 결국 그는 티베리우스를 양자로 삼아 후계자로 지명하고 호민관의 권한을 주었으며 주후14년 옥타비아누스인 아우구스투스가 죽은 뒤 티베리우스가 자동적으로 권좌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2-2) 티베리우스 ~ 셉티미우스 세베루스의 역사 (주후14~235년)

티베리우스(주후14~37년)는 변방을 보호하고, 국가의 행정 조직을 강화하였으며, 원로원의 귀족들과 밀착되어 있던 민회를 폐지함으로써 하층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후계자인 게르마니쿠스가 암살당하자 티베리우스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고, 이것으로 로마 시민들로부터 배척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사망한 후, 가이우스 카이사르, 즉 칼리굴라(주후37 ~ 41년)가 그 뒤를 이었으나 그는 원로원을 모욕하며 낭비를 일삼는 등 과대망상적인 폭군이 되어 결국은 암살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칼리굴라의 숙부로 그 다음 황제가 된 클라우디우스(주후41 ~ 54년)는 정부의 중앙 집권화를 크게 진척시켰고 대외팽창에 많은 관심을 보여 브리타니아를 합병했으며, 서부 속주들의 로마화를 촉진시켰습니다 그는 전제 정치를 하여 재무관리를 강화하고 재판 제도를 개혁하였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16세의 의붓아들 네로황제(재위 54년 ~ 68년)였습니다. 네로는 가족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을 살해하였고, 로마 대화재를 일으켜 그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 그들을 박해했지만 반란이 일어나자 자살하는 비운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네로가 죽은 뒤 내란이 벌어졌고, 이 내란의 마지막 승리자인 베스파시아누스(주후 69 ~ 79년)와 두 아들이 플라비우스 왕조(주후69 ~ 96년)를 이루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내란으로 약해진 변경수비를 강화하고 재정을 튼튼하게 했으며 원로원에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원로원을 행정관 배출 기구로 제한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티투스(주후79 ~ 81년)는 많은 인기를 누렸으나 얼마 안되어 죽었고, 뒤이어 그의 동생 도미티아누스(주후81 ~ 96년)가 올라 군대의 충성을 확보하고 제국의 복지를 증진시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압적인 전제로 말미암아 주후 96년, 암살당함으로써 플라비우스 왕조는 막을 내렸습니다 플라비우스 왕조는 변경 주둔군을 그들의 출신 속주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배치했고, 군단을 일정한 장소에 주둔시켜 변경 주둔군과 비슷한 성격을 부여했으며, 이 군대로 그들은 브리타니아에서 지배 영역을 넓히고 라인 강 유역을 되찾았습니다

도미티아누스를 암살한 자들은 군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마르쿠스 코케이우스 네르바(주후96 ~ 98년)를 황제로 추대하였으며 그는 "구빈 계획"(救貧計劃, alimenta)으로서 이는 이탈리아 지역의 소농민을 돕고, 가난으로부터 구제해 출생률을 높이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아들이 없던 그는 군인이며 속주출신인 마르쿠스 율피우스 트라야누스(주후98 ~ 117년)를 양자로 삼아 후계자로 세웠고 그는 법규를 준수하고 겸손해 인민과 군대 모두에게서 인기를 얻었으나, 제국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원로원까지 도외시하며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오류를 범하였으며 또한 지방 자치 쇠퇴와 비대한 관료 체제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나우강 지역과 동쪽 변경을 평정하였고, 북으로는 라인강유역과 브리타니아를 점령하였으나 중동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푸블리우스 아일리우스 하드리아누스(주후117 ~ 138년)가 재위에 올랐고 그는 영토 확장에 반대하고 평화를 추구해 변경 수비 강화에 치중하였으며, 속주를 지킬 주둔군을 그 속주 자체에서 충원했고 레기온과 주둔군의 차별화를 철폐하였습니다. 하드리아누스는 그의 치세 때 관료제가 정착되었는데, 그의 법률적 업적 특히 "영구 고시록"(법무관의 고시에 따라 해석되는 법)의 법전화는 현저한 것이었습니다. 또 새로운 형식의 라틴 시민권을 창설해 이 권리를 얻은 도시의 지방 원로원 의원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어 로마 원로원의 많은 성원이 속주의 귀족으로 보충되게 하였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그는 136년, 티투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누스 피우스를 양자로 삼았으며, 안토니누스 또한 처의 조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베루스의 아들 루키우스 베루스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하드리아누스가 죽은 뒤 제위에 오른 안토니누스 피우스(주후138 ~ 161년) 때 로마 제국은 세계주의화를 제창하며 조용한 번영을 누렸으나 변경지역이 이민족에 의해 잦은 침략을 당하고, 내부에서도 반란이 일어나 위험스러운 기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주후161~180년)는 루키우스 베루스를 공동 황제로 지명해 하드리아누스의 뜻에 충실하였으나 이는 제국의 동서 분리를 예고하는 것이되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치세에는 이민족이 강력하게 침략해온 절정의 시기였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제국 동쪽 변경에 밀어닥친 위험은 줄였으나, 게르만 민족의 도나우강 지역 침입은 동부에서 벌어진 반란과 함께 힘겨운 상황이었으며, 게르만 족을 진압하는 도중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뒤를 이어 황제가 된 그의 아들 콤모두스(주후180 ~ 192년)는 무능하고 변덕스러우며 쾌락만 추구하다가 암살당하는 비운을 맞이하였습니다

192년 12월 31일, 콤모두스가 암살당한 후 내란이 일어났고, 도나우 강 주둔군이 193년에 추대한 트리폴리출신의 셉티미우스 세베루스가 승리를 거두었으며(197년) 그는, 트리 동부인과 자신의 세력기반인 군대를 증강하고 병사의 급여를 인상하는 등 포상을 많이하여 군대를 특권계급으로 우대한 반면 이탈리아인과 원로원을 도외시 하였습니다. 또 그는 관료제를 강화해 중앙권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료층인 에퀴테스를 우대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를 더욱 압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지출이

크게 늘어나자 그는 이탈리아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그의 황제권은 사실상 군대에 의존해 있었으며, 세습에서 황제의 정통성을 찾으려 한 그는 두 아들을 후계자로 지명하였습니다.

211년, 그가 죽자 큰 아들 카라칼라(주후211 ~ 217년)는 부친의 정책을 그대로 따랐으나 재정이 계속 궁핍해져 악성 인플레이 등 부작용을 낳았고, 또한 제국의 모든 주민에게 시민권을 확대해 제국의 통합을 강화했으나, 동시에 시민권의 가치를 줄이고 군대 충원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방정복을 꿈꾸고 원정을 나갔다가 부하인 마르쿠스 오펔리우스 마크리누스의 지령을 받은 자객에게 암살당하는 비운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어 마크리누스가 황제에 올랐으나 군대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곧 세베루스 가문의 반란으로 218년 살해당하였습니다. 그 뒤 황제가 된 세베루스 가문의 바시아누스는 그가 모시던 신의 이름을 딴 엘라가발루스로 유명해졌으나, 당시 14세였던 그는 로마인에게 낯선 신을 광적으로 숭배하고 지나친 낭비를 했기 때문에 결국 222년에 살해당하고, 뒤를 이은 세베루스 알렉산데르 황제도 주후 235년, 살해당함으로써 세베루스 왕조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2-3) 제국의 분열 (주후 235 ~ 395년)

주후 3세기의 위기는 235년에서 284년까지의 로마 제국의 붕괴와 쇠퇴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로마 제국내에서 25명의 황제가 난립했고, 제국은 군사, 정치, 경제 분야에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 시대는 디오클레티아누스(주후284 ~ 305년)의 집권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고, 이는 결국 고대 서양 세계의 붕괴를 유발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거대한 제국을 한번에 통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주후 285년, 막시미아누스를 부제(Caesar)로 삼았다가 이듬해 바로 정제(Augustus) 승격시키는 결단을 합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제국 동방의 문제를 관할하는 동안 막시미아누스는 제국의 서방을 책임지는 2분권력으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주후293년, 두 명의 정제 외에 두 명의 부제를 더 두어 사두 정치 체제를 이루었는데, 이러한 정치적인 체제를 "테트라키"(사두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트라키는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의 죽음과 함께 붕괴되었고, 콘스탄티우스의 군대는 즉시 그의 아들인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정제로 옹립하였습니다. 이후 연속적으로 일어난 내전을 종식시킨 콘스탄티누스는 주후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

독교를 국교로 공인하였습니다. 330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비잔티움을 로마 제국의 새로운 수도로 정하였고, 337년, 그가 죽자 비잔티움은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는 뜻의 콘스탄티노폴리스로 개명되었으며, 361년 율리아누스가 황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국교인 기독교에 박해를 가하였으며 신플라톤 철학과 미트라교에 의한 이교의 부흥과 개혁을 기도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율리아누스는 또한 페르시아의 샤푸르 2세와 전쟁을 벌였으며,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고 363년 사망하고, 요비아누스가 군대에 의하여 황제로 추대되었습니다.

요비아누스는 샤푸르 2세와 로마군의 무사귀환을 조건으로 평화조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가로 297년 갈레리우스에 의해 로마령이 된 싱가라(지금의 이라크 신자르)와 니시비스(지금의 터키 누시이빈), 아미다 등의 도시와 티그리스강 동쪽의 로마 영토 전부를 양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요비아누스는 기독교의 권한을 원상회복시켜 주었으나, 364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후 발렌티니아누스 1세가 정제로 추대되었고, 친척인 발렌스가 그를 도와 공동 황제가 되었습니다. 365년 장군 프로코피우스는 이에 불복하여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자신을 황제로 선포하고 반란을 일으켰으나, 367년 발렌스에 의하여 진압됨으로서 2년간의 진통은 헛됨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주후 367년, 8살의 어린 그라티아누스는 발렌티니아누스 1세의 명으로 제국 서부의 공동 황제에 추대되었으나 374년 발렌티니아누스 1세는 게르만족에 대해 군사적인 압박을 가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일로 16세의 그라티아누스는 단독으로 황제가 되었으나 군대는 그의 어린 이복 동생인 발렌티니아누스 2세를 서부 로마의 공동 황제로 즉위시켰고, 그라티아누스는 이에 복종을 하였습니다.

당시 제국의 골치거리는 동고트족과 서고트족을 압박해오던 훈족의 침입이었습니다. 376년 동고트족의 에르마나리크왕은 훈족의 아틸라와의 전쟁에서 사망하였고, 서고트족의 족장 아타나리크 또한 훈족에 쫓겨 발렌스에게 트라키아로 이주해 달라고 청원하였고 발렌스는 이를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트라키아의 총독인 루피키누스는 황제의 명령을 거절하고 서고트족을 탄압하였고 이에 반기를 든 서고트족과의 전투에서 패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서고트족과 모든 트라키아의 고트족, 여기에 훈족까지 가세하여 로마를 압박하자 로마는 전면전에 돌입하는 대규모 전쟁을 착수하게 됩니다.

378년 봄 발렌스는 서방황제 그라티아누스가 지원군을 보낸다는 말을 믿고 발칸 반도로 진군하여 초기에 아드리아노폴리스 근처의 마리차 강변에서 상당한 규모의 고트족 군대를 물리치고 진군하였으나 서방에서의 지원군의 도착이 늦어지는 관계로 서방황제 그라티아누스는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대규모 전투를 하지 말라고 긴급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발렌스는 적을 과소 평가하고 공격주장을 받아들여 고트족과 전면전을 벌여 378년 8월 9일아드리아노폴리스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고 발렌스는 화살에 맞아 전사하는 운명을 맞이하였습니다. 역사가 암미아누스 마르켈리누스는 이 전투에서 로마군의 3분의 2가 괴멸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이 전투의 패배로 노련한 병사들과 관료들이 죽었고, 제국의 통치력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으며 그라티아누스는 동부의 황제로 379년 테오도시우스 1세를 지명하였습니다.

주후 383년, 마그누스 막시무스가 브리타니아에서 그곳의 군단에 의해 황제로 추대되었고 갈리아로 건너와 싸우지도 않고 도망하는그라티아누스를 살해함으로써 12살의 발렌티니아누스 2세만이 서방의 정제로서 남게 되었습니다. 막시무스는 테오도시우스와 발렌티니아누스 2세에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자 했으나 실패하였고, 388년 테오도시우스는 막시무스에 대한 원정을 개시하여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를 사형에 처하였습니다.

392년 발렌티니아누스 2세가 살해당하고 그 이후에 아르보가스테스가 에우게니우스를 황제로 지명하였으나, 동방의 황제인 테오도시우스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서방을 침공하여 아르보가스테스와 에우게니우스를 전사시켰습니다. 이로써 테오도시우스는 로마 제국 전역을 통치하게 되었으며, 주후 392년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 이교도를 압박하고 신전령을 몰수하였으며, 393년에는 올림피아 경기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395년 테오도시우스는 죽으면서 자신의 두 아들인 아르카디우스와 호노리우스에게 제국을 양분하여 물려주었고, 로마 제국은 이로써 두 개의 나라로 완전히 분리 되었으며 다시는 통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2-4) 서로마 제국의 쇠퇴 (주후395 ~ 476년)

395년 이후, 분리된 서로마 제국의 황제는 상징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대신 군벌의 지도자들이 제국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서로마 제국에서 게르만족의 영향력이 증대되자,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는 게르만족 용병들을 단순한 이민족 군대로 취급하지 않고 로마 제국의 정규군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이탈리아를 장악한 오도아케르는 로마 황제의 직위를 포기하고 스스로 이탈리아의 왕을 자처하였습니다. 제국은 명맥을 유지할 수는 있게 되었으나 이는 오래가지 못했고 주후 476년, 결국 멸망하고 말았으며 이 사건으로 고대 로마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도아케르는 이탈리아를 장악하고 제국의 기장을 동로마 제국의 황제인 제논에게 보냈으며 제논은 오도아케르를 이탈리아의 군주로서 인정한다는 사절과, 동시에 율

리우스 네포스에게 보내어 황제 복위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네포스가 죽자 제논은 달마티아에 대한 지배권이 동로마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오도아케르는 달마티아를 공략하였고, 뒤이어 동고트의 왕 테오도릭과도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붕괴 요인으로서는 많은 의견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군사적인 요인에서 찾을 수 있으며 결정적으로 게르만 이주민들의 반란이 로마 붕괴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역사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2-5) 비잔티움 제국 (주후476 ~ 1453년)

서로마 제국이 붕괴할 무렵인 5세기에,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동로마 제국은 파괴된 제국을 복구하였습니다. 6세기 중반, 비잔티움제국으로 불리우는 유스티니아누스 1세 치세의 동로마 제국은 동고트 왕국으로부터 이탈리아와 일리리아를 접수하고 옛 영토의 일부를 회복하였으며, 반달족으로부터는 북아프리카를, 서고트족으로부터는 히스파니아를 되찾았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히스파니아 지배는 오래가지 못했으나, 북아프리카는 약 1세기간, 이탈리아는 5세기간, 일리리아는 거의 천년간 동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주후 610년경, 동로마에서 예전의 로마적인 형태는 사라지게 되었고, 헤라클리우스 황제는 제국내에서 그리스 문화를 널리 보급하였으며, 특히 그리스어를 정부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라틴 문화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으며, 610년대 이후로, 동로마 제국의 문화는 그리스 문화의 영향력에 들어갔으며, 이는 후세의 역사가들이 동로마를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부르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국 스스로 이러한 이름으로 칭하지는 않았으며, 여전히 자신들이 로마 제국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자긍심으로 여겼습니다.

주후 1204년, 제 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시키자, 동로마 제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동로마 제국은 역사가 단절되고, 영토 또한 라틴 제국을 위시한 가톨릭 세력의 침공으로 대부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1261년, 미카일 8세 팔라이올로고스는 가톨릭 세력을 몰아내었지만, 이는 불완전한 회복이었으며 동로마 제국의 영향력과 위상은 이후로 영원히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잔티움 제국은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당할 때인 1453년까지 스스로를 로마 제국이라 불렀습니다. 1453년 비잔티움 제국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함락으로 결국 멸망하였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정복자인 메메드 2세는 스스

로를 로마 제국의 황제(Caesar of Rome / Kayser-i Rum)라 일컬었으나, 역사가들은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를 콘스탄티누스 11세를 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 또한 그리스인들도 로마 제국의 멸망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당시가 아니라,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한 1453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 사도 바울의 로마선교

1) 로마 선교여행에 관한 사도행전의 흔적/21:27-28:31

- (1)바울의 체포와 변호/21:27-22:29
- (2)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됨/22:30-23:10
- (3)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함/23:11-35
- (4)벨릭스 앞에서의 바울의 변호/24:1-27
- (5)베스도 앞에서의 바울의 변호/25:1-27
- (6)아그립바 앞에서의 바울의 변호/26:1-32
- (7)바울의 항해와 배의 파선/27:1-44
- (8)말타에서의 바울과 로마 도착/28:1-16
- (9)로마에서의 바울/28:17-31

2) 유대인들의 반란과 사도바울의 체포

사도 바울이 제 3차 전도여행 보고를 위해 예루살렘에 갔더니 본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에게 조상들의 규례와 율법을 폐기하도록 권했다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소문이 꼬리를 물고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바울을 잡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교회의 장로들과 야고보는 나실인의 서원을 한 네사람의 결례에 동참하는 것과 아울러 이들의 모든 비용을 사도바울이 지불하는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자체에 대하여 신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로마서7:12) 그러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로마서8:2, 갈라디아서3:24), 즉, 율법 자체의 형식에 사로잡혀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시도 만큼은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지향하는 목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형식주의, 습관적 유대주의의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정확한 진리의 방향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은 아시아 지역 유대인의 예루살렘 방문으로 인하여 상황이 격화 되었고 결국 이일로 인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투옥되어 로마감옥으로 이송되는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오해를 해소 시키기 위해 나실인 규례에 참석하였던 바울의 노력은 아이러니하게도 또 다른 유대인들에 의해 결국 허사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아시아 지역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소에 데리

고 들어갔다고 모함하여 무리를 선동하게 되었고, 이 소요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로마 천부장인 글라우디오 루시아(Claudius Lysias)는 장본인인 사도 바울을 체포하였던 것입니다(사도행전23:26) 이렇게 되어 사도바울은 이방인의 손에 넘기운채 5년간 감옥에 갇히는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설득력있는 변증과 논리적 전개는 동일한 유대교적 입장에 있는 아시아지역 유대인과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침묵하게 하였습니다. 그로한 호소력은 영적인 측면에서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진리를 갈구하고 있는가를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 달려들었던 당사자들을 향한 변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사도행전22:1~30)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핵심적인 원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앙생활이란 자신에게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며(빌립보서2:12), 둘째, 성도들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는 것이며(히브리서12:2), 셋째,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원리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고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방전도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자 유대인들은 다시 광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선민사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으로 여겨진 연유에서 였습니다.

천부장인 글라우디오 루시아(Claudius Lysias)는 사도 바울을 중죄인으로 단정하고 고문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캐내려 하였으나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결박을 해산시키고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문제삼아 5회에 걸친 재판을 개시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침착한 어조로 변증하려 하였으나 제사장인 아나니아의 험악한 반응으로 공회원들간에 시비가 일어나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로마 시민에 대한 정식 재판권은 총독에게 있었으므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의 총독부로 이송되는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한 살해의도가 노골화 되면서 글라우디오 천부장은 예루살렘 주둔 병력 절반을 대동하며 이송을 보다 빠르게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는 지형 자체가 험하고 유대인들의 거주 지역이 많았으므로 각별히 주의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사도행전23:12~35)

3) 사도 바울의 가이사라에서의 변론과 송사

사도 바울이 체포된지 만 5일만에 헤롯궁으로 호송되었으며,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변사로 유명한 더들로와 함께 동행하여 변론을 계속하였습니다. 변사인 더들의 송사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끝끝내 죽이고자 하는 강한 음모를 드러내었습니다. 더들의 고소내용은 첫째, 바울이 로마제국을 대항하여 정치적 선동을 도모하려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사도행전24:5). 그것은 폭군 벨릭스총독이 유대통치기간중 소요주동자는 물론 단순가담자들도 십자가에 처형하는 등 로마의 평화를 해친다는 죄목을 걸어 무자비한 숙청을 거듭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사도바울이 거짓 메시아가 출현하였다고 민심을 속여 혹세무민케 한 이단(하이레스) 세력의 괴수라고 모략하였습니다. 셋째, 성전 모독죄를 들고 나왔습니다(사도행전 24:1~9)

사도 바울은 변론에서 학식과 능변에 능한 변사 더들의 논리를 하나하나 항변하며 반박하였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복음전파에 관한 보고를 위함이었을 뿐, 어떠한 음모와 계략도 없었고 그러한 조직도 갖추고 있지 않으며, 둘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기간은 모두 12일로서 그 가운데 5일은 죄수로 감옥에 있어서 단기간에 반란을 꾸민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한 것이며, 셋째, 사도바울이 잡히기 직전까지 성전에서 결례의식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동적 사례가 불가능하며, 넷째, 더들의 고소는 조작된 것일뿐 어느 것 하나 신빙성있는 주장이 없다는 것입니다(사도행전24:10~21)

뇌물과 여색, 살인과 협박으로 유대를 통치하던 벨릭스 총독(주후52~58년)은 사도 바울의 변호에는동조하였으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 선택으로 사도 바울을 또다시 구금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의 2년여에 걸친 구금 생활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으며 기회가 닿는대로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벨릭스 총독의 아내 드루실라는 사도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대표적인 기독교인이었습니다(사도행전24:22~27)

유대총독 벨릭스가 퇴임하고 베스도(Porcius Festus)가 부임하자 유대 지도자들은 또 다시 사도 바울에 대한 처형을 계획하고 음모와 공작을 꾸몄으나, 베스도의 정치적 판단에 저항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을 산헤드린 공회로 이송하여 처리할 것을 계획하고 베스도에게 정치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베스도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가이사라의 법정에서 재판이 다시 속개 되었으나 베스도 총독은 사도 바울에게서

정치적, 법률적 죄목을 찾지 못하여 난처한 입장이 되자,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함으로서 결과적으로는 베스도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결정한 것은 죽음이 두렵거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의 명령을 따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5:1~12)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사도 바울로 인해 베스도 총독은 해당사건의 전모를 로마로 보내기 위해 유대인의 풍습과 신앙등에 관한 지식을 섭렵하고 있었던 아그립바 왕에게 논의를 청하였습니다 아그립바 왕은 아그립바 1세의 아들이며 헤롯대왕의 증손이었습니다 아그립바 1세가 주후 44년경 별세를 하였을때 아그립바는 17세에 불과하여 팔레스타인의 전권을 이어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행정관의 통치에 들어갔고, 주후 50년경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 갈기스 왕에 임명되었으며, 빌립과 루사니아의 분봉왕들의 영지를 비롯하여 갈릴리와 베레아 등지를 유산으로 이어 받았습니다 이로서 아그립바와 로마 총독과의 관계는 정치적으로 종속관계를 이어가며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아그립바왕의 앞에서 변론하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대로 그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사도행전9:15)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난하고 눌린 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었지만 그 뿐만 아니라 임금과 통치자들에게도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급과 신분을 타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그립바왕과 베스도총독의 권위와 세력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상상만 해도 감격스럽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확신도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6장 23절에 이르기 까지 비교적 긴 구절로 구성되어 있는 아그립바왕과의 변론에서 사도 바울의 신앙의 위대성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사도행전25:23~26:23)

재판정의 분위기는 처음의 상황과 대조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당당하고 진지한 복음의 메세지는 아그립바와 베스도와 수많은 회중들과 청중들을 압도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그 어떤 특정죄목을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신앙적 결단을 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베스도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사도행전26:24)라고 선언하며 황급히 심문을 종료해 버렸습니다 이것으로서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서의 2년간의 구금생활을 마치고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가지만 복음을 들고 로마로 향하여 전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사도행전26:24~32)

사도 바울은 그의 이름에 관한 의미에서 주듯이 "작은자"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베냐민 지파의 소속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가말리엘 문하에서 율법을 배웠고, 랍비라는 칭호를 수여 받은 유대인의 명예였습니다. 그는 신념에 투철한 바리새인이었으며, 그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기독교인들을 이단세력으로 규정하여 핍박을 일삼아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의 사망으로 인하여 심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고, 뒤 이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서 그는 전후 일생일대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불멸의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마감하기까지 그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따라 살았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4)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를 떠나 지중해 서단의 멜리데 섬에 이르기까지의 긴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기록문에서 행선지에 관한 기록은 짧게 이어가면서도 "유라굴로"라는 동북풍의 광풍에 직면하였을때 사도 바울의 활약과 그로 인하여 수백명의 승객들이 안전을 지킬수 있었던 주요한 장면들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타고 있던 배는 유라굴로 태풍으로 인해 주야 14일간, 미항에서 부터 멜리데 섬까지 800km를 표류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중대한 난관에 봉착하였을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 갈길을 주시거나 위로의 말씀을 베푸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까지 사도 바울로 인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그의 신앙에 대한 숭고함과 위대함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사도전27:1~44)

멜리데에 도착한 사도 바울 일행은 그 섬의 주민들로 부터 융숭한 대접을받던 중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배에서 위기를 맞이한 그가 또 다시 이러한 위기에 봉착하자, 정령신앙(animism, 샤머니즘)과 같은 토테미즘적 사고를 드러내며, 결국 그가 죽을 것이라는 운명적 결론을 내었으나 사도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고 전혀 상함이 없음을 보고 귀히 여겼습니다(사도행전28:1~10)

주후 60년 10월경, 멜리데섬에 도착하여 겨울을 보낸 후 이듬해인 61년 2월경, 로마제국의 교통중심지, 이달리아 반도의 보디올에 입항하였습니다. 이로서 로마 제국의 수도를 방문하려던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드디어 성취되었습니다. 비록 파수병의 감시하에 있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방문자들과

자유롭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로마서1:16) 라고 하는 바울의 선교정책은 로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와같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제국의 심장부에 이르기까지 살아있게 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를 신앙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작지만 거대한 승리자를 통하여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구류형식으로 2년동안 셋집에 기거하며 비교적 자유로운 몸으로 복음증거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디모데(빌립보서1:1)와 두기고(에베소서6:21), 에바브로(빌립보서4:18) 등 공동체의 동역자들이 그를 방문하여 위로를 하였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기소가 되지 않아 구류상태에서 자동 석방되었으며 그는 에베소와 마게도냐(디모데전서1:3), 드로아(디모데후서4:13), 그레데(디도서1:5), 니고볼리(디도서3:12)로 여행하며 복음을 증거 하였습니다. 주후 67년경,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또 다시 투옥되었고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참수형을 당함으로서 그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을때, 결코 목숨을 두려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정치지도자와 권력자들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그 어떤 경우에도 진리를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가는곳 마다 고난이 있었고 질병을 달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지치고 상한 몸으로 또 다시 몸을 추스려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나는 육신이 피로하지 않고 편하게 오래 살 수 있을 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가지 않는 곳의 사람들의 영혼이 죽는다. 내가 가면 그들은 나를 죽일 지 모른다. 내가 죽는 것은 육신의 한조각 뿐이지만 그들이 죽는 것은 영혼의 전부이다. 그러므로 나는 가지 않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 일에 하나님으로 부터 동역자의 허락을 받았고 그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사도 바울안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그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희망을 가지며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11. 예루살렘 교회와 야고보의 순교

"발꿈치를 잡음" 또는 "추종자" 라는 뜻을 가진 야고보는 예수의 친동생으로 알려졌으나 그가 함께 살아온 짧지 않은 인생으로 인하여,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항상 의심하였습니다. 그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3일만에 일어난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체험한 후에야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후 사도들과 더불어 복음전파에 힘을 기울였으며 예루살렘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교회를 치리하였습니다(사도행전15:13, 21:18). 주후 45년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대전쟁 발발 직전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함락으로 기독교회들은 멸망과 큰 타격을 입게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의 지위에 있었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책임감이 더욱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야고보를 비롯하여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신앙하였다는 기록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부모를 모시고 있는 한 형제 그 이상으로 여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관념을 깨뜨리기 쉽지 않았고 그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야고보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고린도전서15:7).

그 후, 제자들로 부터 신앙적 신임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으며, 베드로, 요한과 함께 교회의 기둥으로(갈라디아서2:9) 추대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록에서 보듯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총회의 결의에서 야고보가 최종적인 승인을 한것으로 볼 때, 그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음이 분명하였으며, 또한 바울로 부터 선교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보아 예루살렘 교회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모든 지역의 선교활동을 총괄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계십보에 의하면 유세비오 교회사 제 2권 23장을 인용하여 그를 "의로운 야고보"라고 칭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무릎이 낙타의 발처럼 되었다는 전승이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철저히 주의 권능에 의지하는 기도의 용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 당시 야고보라는 수많은 동일인에 대한 여러가지 분류작업에 있어서 오류의 위험성이 있었으며 이러한 전승에 관한 기록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러한 여러가지의 전승에 관한 내용들이 한사람의 야고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야고보의 조합일 수도 있다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않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율법시대에서 복음시대로 넘어가는 혼란기에 갇가지 산적되어 있는 다양한 견해차와 어려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처리함으로서 초대교회 신앙의 기초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일관했기 때문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야고보에 대한 좀 더 많은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단순하면서도 정확한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행동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의 과정속에 성도들에게 수반되고 일어나는 시련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련은 인생의 과정중에 한 부분으로 신앙을 강화하고 인내의 연단을 위한 기회이며 훈련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도, 죄의 유혹에 관한 문제는 엄격성을 드러내며 구분되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설명하고 있을뿐 그 어느 부분에서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사실을 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야고보서 1장 19~27절에서 야고보서의 집필 목적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죄악과 연관된 온갖 행동을 단절하는 것이고, 죽기까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을 단절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종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입각한 적극적인 선을 행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으면서 단지 신앙고백만을 외치는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안에 한 부분을 차지하며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법률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재산과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로 인하여 복음은 변질되고 진리는 훼손되어 엄격해야 할 진리가 도전을 받게 되는 극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복음은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노예와 상인과 권력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하나의 소중한 영혼으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러한 계층간 구분만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구분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해산시키는 것입니다 즉, 그가 원수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바로 이러한 초월에 따르는 실질적인 행위와 가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이러한 교훈은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지역의 관습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체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안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야고보서는 세가지로 함축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혀를 조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야고보서3:1~12) 혀는 교회생활에 있어서 가장 파괴적인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일한 입술로 남을 정죄하고 해치며 이간질시키는데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이로인한 교회의 분쟁은 시대와 국경을 넘어 지금에 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둘째, "욕심에 대한 경계"입니다 야고보는 욕심을 모든 죄의 근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야고보서1:14~15) 교회안에서의 언쟁과 반목과 질시의 근거에는 항상 욕심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부자들은 자신의 재물로 인하여 자기들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야고보서4:13~16),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의 삶을 주관하도록 허용하지 않으려 합니다(야고보서4:7~5:6)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실제로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가진 재물의 풍요로움 때문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동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진자나 덜 가진자나 욕심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존재하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욕심을 경계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절대적인 가치 때문입니다 천국의 가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이러한 이 땅에서의 배설물과 같은 것들에 대한 욕심을 파기시키는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인내" 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부자들에게서 불의한 취급을 당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용주들에 의해 임금을 착취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인내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항하여 사회적 이슈로 내세우지 말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사람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의 모든 억울함을 인내로 다스려라는 것입니다 교회안에서 일어나는 오해와 여러가지 억울함에 대하여 성도는 병어리처럼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의 교훈은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주교로서 감당해야할 여러가지 치리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초대기독교의 영적 중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중심에서의 결정은 여러지역의 교회들의 법률적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13~21에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지하고 있는 유대교신자들에게 대해서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일을 엄격하게 했는가 하면, 한편으로 바울과 이방인의 신자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유연성있는 복음주의적 공정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지혜롭게 수행하였습니다

야고보는 그의 이력을 성경에서 밝히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밝히는데 소중한 가치를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종으로서의 삶속에서 드러나듯이 종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야고보 자신의 가치로서도 맞지 않은 언행이었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누구인지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확한 기록은 비록 세상에는 남아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책에는 빠짐없이 기록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헤롯 아그립바가 요한의 형인 야고보를 죽인 후로는 유대반란전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후 61년, 총독 베스도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하여 알비누스가 후임총독으로 부임하기까지 3개월여 공석기간이 있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유대인들은 긴급사안으로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 야고보를 심문하고 모세 율법을 어긴 죄를 물어 돌로 쳐 죽이게 하였습니다

유세비오가 인용한 하계십보(헤키사브라)에 의하면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돌로 치매 사경에 이르는 가운데서도 그가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고 격분한 나머지 한 사람의 유표자가 공본으로 타살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비누스 총독이 부임한 후 이 일로 인하여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직에서 해임되고 담내의 아들 여호수아가 임명되었지만 이러한 관계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한 후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의 사촌이며 글로바의 아들인 시므온(Simeon)을 후임자로 세웠으나 주후 70년,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교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보고 예루살렘 함락전에 성을 떠나 베뢰아 지방의 도시 펠라(Pella)라는 곳에 은둔하며 박해를 모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아갈 꿈을 안고 살았지만 동족들간의 오해로 인하여 그들의 꿈은 결국 이루어 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12. 로마의 박해와 베드로의 순교

갈릴리 벳세다의 어부 출신으로 요나의 아들이자 안드레의 형인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로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전반에 걸쳐 활동한 인물로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 때까지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마태복음16:16)로 고백함으로써 기독교적 신관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 당시 그의 스승이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세번씩이나 부인하였지만 자살한 가룟유다와는 달리 회개함으로서 새로운 삶의 전환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기둥으로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죽은자를 살리고 물위를 걸었으며, 앓은뱅이와 소경을 고쳐준 많은 기적을 끊임없이 베풀었던 베드로의 복음은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신앙할 정도의 초능력적인 기록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주후 60년경, 네로의 기독교 박해시에 십자가형을 당하면서 그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처형을 당할 수 없다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지만 로마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는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로 부터 유대인을 추방하려 시도 했으나 그 수효가 너무 많아 혹여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여 취소했다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기독교 신자들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유대인이 아닌 신자가 로마교회를 주동하게 되었으며, 네로 황제때에는 그 수효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어 로마시의 인구를 150~200만명에 이르게 하는 초유의 국가적 도시로 성장하게 하는 요인으로 등장하였습니다.

네로(Nero)는 로마제국의 제 5대 황제(주후 37년 12월 13일~68년 6월9일)이자 율리우스-클라우디우스 왕조의 마지막 황제로서 본래 이름은 루키우스 도미티우스 아헤노바르부스(Lucius Domitius Ahenobarbus)이며 황제가 되어 네로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Nero Claudius Caesar Augustus Germanicus)로 칭하였습니다. 흔히 네로 황제라고 하면 정신 이상자 내지는 폭군으로 생각하지만, 그의 재위 기간 동안 로마의 문화는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신이 자신에게 로마문화를 발전시키라는 명령을 했다는 근거를 내세워, 스스로를 예술가로 생각하여 시, 노래, 건축 등 예술분야에 집중 지원하였으며, 지금도 네로 시대 당시 지어진 화려한 건축물중 일부가 남아 그 당시의 화려함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주후 54년경, 글라우디우스황제가 사망하자 의붓동생이자 클라우디우스의 친아들인 어린브리타니쿠스를 제치고 황제로 취임하여 정치 철학자인 세네카와 근위군단 장교 부루스의 보좌를 받아 치세 초기에는 선정을 베푸는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주후 55년, 이복동생이며 정적인 브리타니쿠스를 독살하는 잔인함을 드러내더니(그의 모친의 소행이라는 의견도 있음) 이어 59년에는 직간접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온 친어머니 소 아그리피나를, 62년에는 아내 옥타비아를, 그리고 65년 세네카를 자살 명령이란 죄목으로 살해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나타내었습니다.

주후 64년 7월 18일, 로마시에 대화재가 발생하여 6일 동안 진화작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로마시 14구 가운데 3구는 완전히 전소되었고 7구는 소실되었으며, 겨우 4구만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로마의 역사가 타키루스는 기름창고에서 실수로 일어난 화재가 도화선이 되어 큰 참상을 가져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타키루스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을 로마 방화가 아닌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인들의 배덕행위와 로마는 물론 모든 인류를 범죄자로 취급하고 증오했다는 종교적 범죄가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사악한 미신", "반(反)종교적 성향을 가져 미움받는 자", "로마제국에 의해 처형된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오명을 쓰고 있던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사회혼란을 해결하려는 희생양으로 탄압하기 시작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당시 화형으로 처형당함으로서 기독교 설립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화재를 모면한 두 구역에는 유대인과 기독교인 거주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화재 당시 안데움에 거하다가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환급히 로마 시내로 달려와 진화작업을 지휘하였으나 그의 속셈은 화재의 참상을 보기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로마의 대화재는 네로가 일으켰다는 소문이 시민들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기 시작하자 네로가 자신의 죄를 면하기 위하여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후 54년경 다기도(Tacitus)사가의 기록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 기록에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연구로 죄를 받게 된 것이 아니라 방화죄로 죄를 받게 된 것이라고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호도하여 선전하였던 것입니다.

우매한 백성들은 네로의 거짓 선전에 현혹되어 기독교 신자들을 무차별 폭력적으로 박해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로마를 비롯한 대내외적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일순간에 질풍노도와 같이 이루어 졌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피난처를 찾지 못한채 죽음을 맛보았으며 이 때 죽은 기독교인들이 숫자를 헤

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참한 만행과 학살이 지속적으로 자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주후 68년 네로 황제의 수족이라 할 수 있는 친위대까지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타라콘네시스 속주 총독 갈바가 일으킨 내전이 일어나 확전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각지의 총독들이 동조하여, 마침내 원로원으로부터 “국가의 적”으로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네로 역시 정신병력증 증세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서 불행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네로황제(주후54~68년)의 박해로 인하여 순교하게 된 기독교 역사의 별종의 별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비단 로마에 의한 것 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헤롯왕과 산헤드린 공회에 의하여 기독교는 편법적이고 교활한 수법으로 박해의 강도를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터 시작된 기독교의 불씨는 박해로 인하여 순교하는 숫자만큼 확장되고, 그 불씨는 더욱 거세졌으며, 세계 전역으로 확산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기록은 클레멘의 서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를 불의한 자로 몰아세워 수차례에 걸쳐 고난을 받게 되었으며, 마침내 그가 받아야 할 영광은 주께로 돌아갔습니다 (클레멘서 5장)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박해를 심하게 받던 중 로마성을 빠져 나가 도망하려 했는데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다시 로마로 되돌아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의 근거는 테둘리안의 기록에 남아 있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말은 오리겐이 기록한 것입니다 유세비오스는 이 두사도의 명단이 그때까지 로마의 무덤 묘비에 남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율리우스-클라우디우스 황조

아우구스투스(BC27~AD14년)~티베리우스(AD14~37년)~칼리굴라(37~41년)~클라우디우스(41~54년)~네로(54~68년)

2. 군인황제

갈바(68~69년)~오토(69년)~비텔리우스(69년)

3. 플라비우스 황조

베스파시아누스(69~79년)~티투스(79~81년)~도미티아누스(81~96년)

4. 네르바-안토니누스 황조

네르바(96~98년)~트라이아누스(98~117년)~하드리아누스(117~138년)~안토니누스 피우스(138~161년)~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161~180년)~(공동,루키우스 베루스 161~169년)~콤모두스(180~193년)

5. 난립기

페르티낙스(193년)~디디우스 율리아누스(193년)

6. 세베루스 황조

셉티미우스 세베루스(193~211년)~카라칼라(211~217년)(공동, 게타 211~212년)마크리누스(217~218년)~엘라가발루스(218~222년)~세베루스 알렉산데르(222~235년)

7. 군인 황제

막시미누스 트락스(235~238년)~고르디아누스1세, 고르디아누스2세(238년)~푸피에누스, 발비누스(238년)~고르디아누스3세(238~244년)~필리푸스 아라부스(244~249년)~데키우스(249~251년)(공동 헤렌니우스 에트루스쿠스, 251년)~트레보니우스 갈루스(251~253년)(공동, 호스틸리아누스, 251년)~아이밀리아누스(253년)~발레리아누스(253~260년)~갈리에누스(260~268년)~클라우디우스 고티쿠스(268~270년)~퀸틸루스(270년)~아우렐리아누스(270~275년)~마르쿠스 클라우디우스 타키투스(275~276년)~플로리아누스(276년)~프로부스(276~282년)~카루스(282~283년)~카리누스(283~284년)(공동, 누메리아누스, 283~284년)

8. 테트라키아

디오클레티아누스(284~305년)(공동, 막시미아누스, 286~305년,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 293~306년, 갈레리우스, 293~311년)~콘스탄티누스1세(306~337년)(공동, 갈레리우스, 리키니우스 308~324년)~막시미누스 308~313년)

9. 콘스탄티누스 황조

콘스탄티우스2세(337~361년)(공동, 콘스탄티누스2세(337~340년)~콘스탄스 337~350년)~율리아누스(361~363년)~요비아누스(363~364년)

10. 발렌티니아누스 황조

발렌티니아누스1세(364~375년)(공동, 발렌스(364~378년)~그라티아누스(375~383년)(공동, 발렌티니아누스2세(375~392년)~마그누스 막시무스(383~388년):제위 찬탈 서방황제

11. 테오도시우스 황조

테오도시우스 1세(379~395년)

12. 서로마제국

호노리우스(395~423년)(공동, 콘스탄티우스3세, 421년)~발렌티니아누스3세(425~455년)~페트로니우스 막시무스(455년)~아비투스(456~457년)~마요리아누스(457~461년)리비우스 세베루스(461~465년)~안테미우스(467~472년)~올리브리우스(472년)~글리케리우스(473~474년)~율리우스 네포스(474~475년/480년)~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475~476년)~오도아케르와 동고트 왕국

13. 동로마제국

아르카디우스(395~408년)~테오도시우스2세(408~450년)~마르키아누스(450~457년)레오1세(457~474년)~레오2세(474년)~제논(474~475년)~바실리스크스(475~476년)~제논(복위, 476~491년)~비잔티움 제국

13. 바벨론 포로시대 역사에서 주는 두가지 교훈

기독교회의 근원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종교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22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요 약속에 따른 후사들(갈라디아서3:29)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도 유대인의 인적 자손이며, 초대교회 교인들의 대부분이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초로 기독교회의 종교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1) 바벨론 포로시대의 역사

유대왕국은 다윗왕에 의해 주전 1,000년경에 세워졌습니다. 다윗왕의 40년 통치는 선정의 표본이요 비록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사울왕 시대에 비하여 태평성대의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다윗의 왕정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적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후 유대왕국은 남북으로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앗수르 오아에 망하여 식민지가 되었으며 남방 유대 또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정복되어 수많은 엘리트들이 포로로 끌려 갔습니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생활가운데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비롯하여 세명의 선지자들이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아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하고 소수의 남은 사람들을 위해 일했으며 마침내는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하였습니다.

남 유대의 엘리트이며 왕족이었던 다니엘은 기원전 606년 느부갓네살의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갔지만 명석한 지혜의 소유자로서 투철한 신앙심을 지켜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으로 부터 신뢰를 받아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또한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일반 포로들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야 포로들은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조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며 포로생활의 뼈 아픈 교훈을 잊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로와 망명생활은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이었지만 그들의 신앙적 관점에서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들을 구심점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사상을 정립하는 일이었으며 또한 율법과 회당제도였습니다.

2) 유일신 사상의 정립

앗수르에게 정복을 당한 북왕국 이스라엘이 종교적 타협을 통하여 세속화 된 것과는 달리 남 유대는 포로생활 가운데 회개의 신앙을 가지며 철저히 여호와 유일신앙을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지난날 그들의 삶이 우상을 섬기며 가나안의 잡신 숭배사상에 젖어 있었음을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함으로서 여호와 한분에게로 회복하는 영적 성숙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다왕국이었던 다니엘의 생명을 건 신앙에서 말해주듯이 장소로서의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 다른것이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 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3) 회당제도(Synagogue)의 정립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성전은 종교적 최대의 유산이었으며 모든 것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은 바로 그의 설교가 이 두가지를 모두 다루는 과정에서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였으며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유일무이한 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전혀 가져갈 수 없었으며 그들의 예배는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과 예배가 그들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에서 그들이 이 두가지 모두를 잃은 것은 가장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온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성전을 대체할 수 있는 회집 장소가 절실히 필요하였고 그러한 연유에서 나온 것이 회당(Synagogue)이라는 회집소였습니다.

회당에서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대신에 성경읽기와 강해를 통하여 메세지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때부터 안식일에 모인 유대인들은 회당장이 소개하는 율법사에 의하여 성경교육을 받는 새로운 회당제도에 익숙해 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운명하실때에 성전회장이 우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성전시대의 종언을 고하는 결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중심의 의식에서 회당에서 드리는 말씀 중심의 예배로 옮겨지는 현상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구약에서 부터 적용되어 예언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점진적인 계시의 섭리속에서 포로시대 흩어진 유대인(Diaspora)들은 가는 곳 마다 회당을 짓는데 열정적인 헌신을 다 하였습니다. 바로 그 많은 유대인 회당들은 훗날 초대교회의 복음의 접촉지와 선교의 선터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기

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4) 이스라엘의 왕국과 통치기간 - 북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 왕국(기원전 931년경~기원전 722년경)은 연합 이스라엘 왕국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르우벤, 스불론, 시므온, 므낫세, 단, 잇사갈, 아셀, 에브라임, 납달리, 갓 등 열 지파가 분열하여 만든 왕국으로서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수도로 삼고 있었으며, 209년간 존속해 19명의 임금이 나라를 다스렸지만 예후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나님의 계명을 잊고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주전 722년경 앗수르의 침략으로 멸망하였습니다

북 이스라엘(B.C.930년~B.C.722년)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 전성기를 누린 다윗왕과 솔로몬 왕 이후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중 한 나라가 <<북 이스라엘>> 왕국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통치 말기에 이방 여인들을 들여온 문제로 국운이 기울게 되었고, 이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 1세가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왕상11:29-31).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승리를 확신한 여로보암은 손을 들어 솔로몬 왕을 죽이기 위해 성급히 반란을 일으켰고, 이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자 애굽 왕 시삭에게로 도피하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거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솔로몬의 아들 로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나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강요하여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국가 노역에 시달리던 백성들(12지파)중에 10지파(르우벤, 시므온, 단, 납달리, 갓, 아셀, 잇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는 여로보암 1세를 초대 왕으로 추대하여 북 이스라엘왕국을 창건하게 되었습니다(왕상12:1-20). 초대 왕인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인 호세아까지 약 208년 동안 9 왕조의 19명의 왕들을 걸쳐 이어졌으며, 마침내 B.C. 722년 앗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왕하17:22-23)

1. 여로보암1세(Jeroboam)(22년), 주전931~909년경(열왕기상12:20)
2. 나답(Nadab)(2년), 주전909~908년경(열왕기상15:25)
3. 바아샤(Baasha)(24년), 주전908~885년경(열왕기상15:33)
4. 엘라(Elah)(2년), 주전885~884년경(열왕기상16:8)
5. 시므리(Zimri)(7년), 주전884~884년경(열왕기상16:15)
6. 오므리(Omri)(12년), 주전884~873년경(열왕기상16:21)
7. 아합(Ahab)(22년), 주전873~852년경(열왕기상16:29)
8. 아하시야(Ahaziah)(2년), 주전852~851년경(열왕기상22:51)
9. 요람(Joram)(12년), 주전851~842년경(열왕기하1:17)

10. 예후(Jehu)(28년), 주전842~815년경(열왕기하9:6)
11. 여호아하스(Jehoahaz)(17년), 주전819~804년경(열왕기하13:1)
12. 여호아스(Jehoash)(16년), 주전805~790년경(열왕기하13:10)
13. 여로보암2세(JeroboamII)(41년), 주전790~750년경(열왕기하14:23)
14. 스가랴(Zachariah)(6개월), 주전750~749년경(열왕기하15:8)
15. 살룸(Shallum)(1개월), 주전749~749년경(열왕기하15:13)
16. 므나헴(Menahem)(10년), 주전749~738년경(열왕기하15:17)
17. 브가히야(Pekahiah)(2년), 주전738~736년경(열왕기하15:23)
18. 베가(Pekah)(20년), 주전736~732년경(열왕기하15:27)
19. 호세아(Hoshea)(9년), 주전732~722년경(열왕기하17:1)

5) 남 유다

솔로몬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강대국을 만들며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없는 국가적 번영을 누렸으나 솔로몬은 통치 말년에 육신의 정욕에 빠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 잊어버리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뺨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열왕기상 11:11-13)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열왕기상11:14-22), 또 다메섹(수리아)의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열왕기상11:23-25). 그리고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주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이 말씀대로 솔로몬이 죽자 여로보암 1세는 열 지파를 중심으로 <<북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두 지파(유다와 베냐민)를 중심으로 <<남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 분단국가의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어진 원인은 솔로몬의 범죄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남 유다 왕국의 초대 왕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을 비롯해서 남 유다의 모든 열왕들은 그 혈통이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다윗왕조>>로써, 아홉 차례나 왕조가 바뀌는 북 이스라엘왕국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 유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범죄를 거듭하다가 주전 586년 신 바벨로니아제국의 느부갓네살왕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열왕기하25:1-12)(역대하36:17-21)

1. 르호보암(주전930~913년)
2. 아비암(주전913~910년)

3. 아사(주전910~869년)
4. 여호사밧(주전871~847년)
5. 여호람(주전847~840년)
6. 아하시야(주전840~840년)
7. 아달랴(주전840~835년)
8. 요아스(주전835~796년)
9. 아마샤(주전796~767년)
10. 웃시야(주전791~739년)
11. 요담(주전750~735년)
12. 아하스(주전731~715년)
13. 히스기야(주전715~686년)
14. 므낫세(주전696~642년)
15. 아몬(주전642~640년)
16. 요시야(주전640~609년)
17. 여호아하스(주전609~609년)
18. 여호야김(주전609~598년)
19. 여호야긴(주전598~597년)
20. 시드기야(주전597~586년)

14. 마카베오(Maccabees)의 독립

1) 헬라시대, 알렉산더왕의 우호적 통치

주전 332년,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후 그는 통일된 하나의 문화를 이용하여 대제국을 하나로 조직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적이며 국제적인 그리스적 요소를 도입하여 하나의 통합된 헬레니즘(Hellenism) 문화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헬레니즘(Hellenism)은 '말하다', '그리스인처럼 행동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hellenizein에서 유래한 것으로 헤브라이즘(Hebraism)과 함께 유럽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헬레니즘은 19세기초 인도의 역사가 J. G. 드로이젠에 의해 정의되었으며, 오늘날 가장 영향력있는 사상으로 세계사 속에서 고대 그리스에서 연원된 독자성을 지닌 역사적 개념이지만, 광의의 의미에서는 그리스 정신에서 '그리스화한' 문화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알렉산드로스 3세의 죽음에서 로마 제국에 의한 이집트 합병(BC 323~30)까지의 대략 3세기에 걸친 기간이며, 지역적으로는 주로 고대 그리스 본토와 알렉산드로스 3세의 뒤를 이은 여러 왕들에 의해 점령되고 지배되어 새로이 헬레니즘화한 땅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 헬레니즘(Hellenism)의 영향력은 로마의 통치기간 중에도 오래동안 라틴어가 아닌 헬라어가 계속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아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헬레니즘(Hellenism)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에 대제국은 곧 분열되어 4개의 국가로 급속하게 나뉘어 지게 되고 팔레스타인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레우코스왕조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놓여 있게 된 위기의 소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유대와 헬라의 우호적인 관계는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에 이르러 적대관계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포로 귀환후 250년간 누려왔던 평화와 종교적 자유가 침탈당하게 된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2) 마카베오(Maccabees)

마카베오(Maccabees)는 주전 2세기경, 팔레스타인에서 활약한 제사장 가문으로서, 셀레우코스 왕조의 통치자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후 정권을 잡는데 성공하였으며, 더럽혀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봉헌하는데 일등공신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마카베오라는 이름은 주전 168~164년 유대 독립전쟁의 영웅 마타시아스의 아들 유

다에게 주어진 영예의 호칭이었습니다. 그 후 유다의 아버지 마타시아스와 4형제 요한·시몬·엘르아잘·요나단에게 주어졌으며, 이것이 시몬의 아들 요한 히르카누스에게까지 이어졌는데 그는 형제들이 모두 사망하자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마카베오라는 호칭의 의미에 대해 일치된 견해는 없으며, 히브리어로 '망치'·'대장장이'·'소화기'(鎗火器)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1세가 '스코틀랜드의 망치'라는 호칭을 받았듯이 유다가 시리아와의 오랜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에게도 같은 호칭이 붙은 것으로 짐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전 2세기 내내 유대와 예루살렘은 이집트와 시리아의 두 강대국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시리아는 셀레우코스 왕조가 각각의 영토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국가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뒤 그 제국이 20여 년에 걸쳐 해체되고 마지막까지 남은 국가들이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주전 175~164(또는 163)년에 시리아를 통치했으며, '신의 현현'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에피파네스(Epiphanes)라는 별칭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의 기록에서 보여주듯이 그는 야심적인 정복자였으며, 이집트 영토였던 유대 지방을 정복하기 시작함으로써, 배타적이며, '비타협적인' 유대 민족의 종교를 타도하였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카스피 해까지 이르는 지역의 여러 종족을 통일하여 광대한 제국을 만들기 위해 하나의 종교를 만들기로 계획을 구상하였습니다.

안티오코스 생존시에 시리아인들은 그리스 문화에 열성적이었으며 문화란 바로 '선'(善)의 추구였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의 문화적 식민화과정을 계속하려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질문하고 창조하는 그리스 정신은 바로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휴머니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삶에 대한 유대인의 견해는 중동 전역에 퍼져 있던 헬레니즘(Hellenism)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의 총체적인 삶의 양식이었으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헬레니즘(Hellenism)을 자연숭배의 한 형태 내지 여호수아 시대 이후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신앙과 대립되었던 가나안 종교의 정신적인 요소들로 이해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안티오코스가 지중해 연안의 셈족에게 자신을 가나안의 고대신 바알을 섬기도록 강요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신들은 카멜레온과 같은 인간 심성의 분노·증오·욕망·시기·탐욕 등 죄악이 우상화되어 신격화된 것에 불과한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을 초월적이고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선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과는 전적으로 '다른 거룩한' 존재이며 유일무이한 신(God)입니다. 사람이 신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천지와 함께 창조하였으

며,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을 밝혀주는 빛'(이사야)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가 지니는 의미를 세상에 입증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임무는 인간의 힘과 욕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을 구현함으로써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3)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탄압과 예루살렘 성전의 정복

안티오코스는 에피파네스라는 별칭에 어울리듯 인간인 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유대교를 정복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종교의식을 공격했으며, '질투심 많고' 편협한 신이 제정했다는 이유로 안식일과 전통적인 유대교 축제를 강제로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모든 제사의식과 모세 율법송을 금지시켰고 "토라(Torah)" 등 율법 필사본들을 찾아서 모두 불태우도록 명령하여 기독교사의 중요한 사료들이 이시기에 유실되거나 소실되었습니다.

할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여 이를 금지시키는 한편, 이러한 종교의식 대신 사람들이 모여 연구·학습하여 친교를 즐겼던 김나지아(gymnasia)라는 문화 활동을 장려하였습니다. 안티오코스는 이데올로기적 통합을 위해 부속국가들에게 헬레니즘 종교를 강요한 것입니다. 이렇듯 안티오코스는 유대의 헬라화 정책을 강화하며 유대교를 해체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앞에서 운동장을 설치하여 제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등 종교적 자우를 침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육체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도 '선'의 추구로 보았기 때문에 모든 운동경기는 나체로 하였고 목욕도 터키탕과 같은 남여 혼성으로 하게 하는 극단의 조치들을 강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하나님을 모독하며 그들의 종교를 비하시키는 최악의 수단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던 안티오코스는 주전 168년 마침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예루살렘성전을 훼손하는 극악을 행하였습니다.

대제사장 야손의 지도 아래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보편적인 새 조류와 타협하는 쉬운 길을 택했으나, 신앙적으로 타협점이 없었던 유대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은 충격과 경악속에서 강력한 저항을 하였습니다. 주전 168년말 안티오코스는 다시 예루살렘을 함락하여 아크라 요새를 예루살렘 성전위에 세웠고, 주전 167년 12월 25일 예루살렘 성전을 올림피아의 신 제우스에게 봉헌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4) 마카베오(Maccabees)의 독립운동

주전 167년, 사제 마타시아스(Mathahias)의 고향 모디임(지금은 고고학적으로 중요

한 지역으로 예루살렘 서북쪽 27km)은 안티오크스와 헬레니즘(Hellenism)에 대한 저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마타시아스(Mathathias)의 아들이며 5형제인 요한 가디, 시몬 타시, 유다 마카베오, 엘르아잘 아바란, 요나단 아푸스가 마카베오 저항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마타시아스의 증조부에게 아사모나이오스(Asamonaio)라는 성을 붙였으며, 이에 따라 마카베오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왕조에 하스몬(Hasmonean)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마타시아스는 헬레니즘문화에 편승하여 권력을 탐닉한 대제사장 야손의 지도 아래에 있던 변절한 유대인을 공격하고, 왕의 관리를 죽임으로써 저항운동을 게릴라식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마타시아스와 그의 가족은 깊은 산속으로 은신하며 많은 사람들을 규합했고 특히 모세의 율법을 신봉하던 신앙심 깊고 엄격한 하시딤 추종자들이 합류했다.

처음에는 안식일에 휴전하여 1,000명이 몰살하는 비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마타시아스는 피할 수 없다면 안식일에도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것이 게릴라전으로 확대되어 민족전쟁이자 내전으로 확산되었고 마타시아스는 모든 협력자에 대하여 외유내강으로 결속력을 강화하며 치리하였습니다.

마타시아스가 죽자(BC 166경) 셋째 아들 유다 마카베오(Maccabees Judas)가 저항운동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으며,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이 임명한 지도자라고 여겼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계승자라는 사명감을 느꼈던 그는 게릴라 작전중에도 전투를 중단하고 사람들을 모아 "깨어 기도하고 토라(하나님이 계시한 모세의 율법)를 낭송하라"고 할 만큼 말씀과 기도 충실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유대 백성들에게 "바로의 군대가 우리 조상들을 추격했을 때 우리 조상들이 홍해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해 보라"(마카베오1서 4 : 9)고 하며 믿음과 신앙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 시대처럼 나팔을 불어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에 의해 적과 맞서려고 했으며, 마카베오 유다도 여호수아처럼 당시의 관습에 따라 정복한 도시의 모든 남성들을 멸절시키려 하였습니다. 그의 몇몇 행위들은 소위 '거룩한 전쟁의 규칙들'(Rules for holy war)과 일치하는데 그 규칙들은 BC 1세기에 쓰인 사해 두루마리 중 하나에 매우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 예루살렘 성전의 복원과 제사

BC 164년 12월 유다 마카베오(Maccabees Judas)는 안티오크스의 예루살렘 성전 함락 3년 만에, 아크라를 제외한 전 예루살렘을 탈환하여 정결한 사제들로 하여금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제단을 새롭게 건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봉헌을 뜻하는 히브리어 하누카(Hanukka)는 이 사건을 기념하여 유대인이 8일간 거행하는 빛의 축제를 지칭하는 말로 지금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유대력 키슬레브 월 25일에 시작되는 이 축제는 그리스도교의 크리스마스와 같거나 혹은 비슷한 시기에 거행되고 있습니다. 이후 유다는 갈릴리와 트란스요르단 등지에서 전투를 계속했으며 그의 이름은 "온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사이에서도"(마카베오 1서 5 : 63) 큰 존경과 칭송을 받았습니다.

주전 164년,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가 죽자 아들 안티오크스 유파톨이 어려서, 시리아의 장군 리시아스가 실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지역의 문제를 안고 있던 시리아 장군은 유다와 일종의 평화관계를 유지했고 유대인들은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확보하게 되었으나 전쟁이 다시 시작되어 유다는 도움을 얻기 위해 로마로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는 결국 로마가 유다를 정복하는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이후 5년간 전쟁을 더 이끌다가 전투에서 사망하고 그의 동생인 요나단과 시몬 타시가 왕으로 등극하였으며 완전한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마카베오 유다의 동생, 요나단이 장군직을 계승하여 알렉산드로스 발라스(알렉산드로스 에피파네스라고도 알려짐)와 평화조약을 맺었고, 주전 153년(또는 152), 요나단을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스몬 계통의 대제사장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율법 규정 때문에 엄격한 율법 신봉자들은 그로부터 일정간격을 두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로 율법 신봉자들은 강력한 반대파를 구성했는데, 후에 가장 보수적인 바리새파(성문법파와 구전 율법에 대한 이들의 해석과 적용은 후기 유대교에서 전통으로 받아들여짐)로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전쟁은 계속되었고 아크라는 적의 수중에 있었으며, 요나단은 아크라 요새를 봉쇄하려다 배반당해 죽었고, 형 시몬이 그의 뒤를 계승하였습니다. 시몬은 다른 형제들 가운데 가장 충성스러운 지도자이며, 또한 인격적이고 신중한 사람이었으며, 예루살렘에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하스몬 가문의 2번째 대제사장이었으며 BC 135(또는 BC 134)년경에 암살당함으로서 운명을 맞이하였습니다.

6) 요한 히루카누스 1세

마타시아스의 5명의 아들은 모두 전사하였고, 히루카누스 1세로 알려진 시몬의 아들 요한이 계승하였습니다. 그는 주전 104년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으며, 길고 혼란스러웠으나 유대 통치권을 강화하고 영토를 확장시켜 사마리아

를 정복하였습니다 이두매인(사해 남동부에 살았던 고대 에돔족의 후손들) 요새를 함락시켜 이들을 유대교로 개종시켰으며 이것은 예수 시대 이두매 왕 헤로데가 유대인인 것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요한 히루카누스의 통치기간은 마카베오가의 역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확고한 유대교 신앙과 애국적인 열정으로 시작했던 이 독립운동은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요한 히루카누스는 자신의 할아버지 마타시아스의 바리새파적 경향을 본받지 않았고, 사두개파가 되었습니다 이 파는 오직 성문화된 모세 율법만이 하나님의 계시와 권위를 나타낸다고 보는 상류계급 보수파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독립과 자유도 80년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주전 63년 유대내의 계속된 내란은 마침내 로마 침략의 계기를 주었고 그때부터 또 다시 60년간 식민국가의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5. 바리새파(Pharisees)와 사두개파(Sadducees)

로마가 유대를 점령한 후 마카베오(Maccabees)의 혈연이 있는 에돔사람 헤롯을 왕으로 임명하였으며, 헤롯왕이 죽은 후 그의 아들인 알케라우스(Archelaus)가 유대와 이두매와 사마리아를 통치하였습니다. 그후 알케라우스는 가이사 아우구스트 황제에 의해 폐위되었고 그가 다스리는 지역은 로마 총독의직할 통치구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로마는 식민국가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유대인들의 자치기관으로 산헤드린(Sanhedrin) 공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산헤드린(히브리어: סנהדרין, 그리스어: συνέδριον, synedrion, sanhderin)은 "함께 앉는다"는 뜻으로 모든 유대의 도시에 유대교 법에 의해 세워진 23명의 판관들의 회의기구입니다. 로마제국에서는 반(反)로마투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식민지 국가의 종교와 자치활동을 인정했으므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산헤드린 의회는 영향력이 있는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대 산헤드린(Great Sanhedrin)은 유대교 판관들의 기구로 최고 법원 역할을 하는 고대 이스라엘의 재판 기구였습니다. 대 산헤드린은 지도자인 나쉬, 코헨 가돌(대제사장/대사제), 부 판관인 아브 베잇 딘, 그리고 69명의 평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후 70년 멸망하기 전의 예루살렘 제2성전 시기에, 대 산헤드린은 성전 안에 있는 돌에 낮 동안 열렸으며, 대제사장의 지도아래 주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들이 권력을 좌우하였습니다.

1) 유대교와 유대교 경전

유대교는 기독교와 대비되는 종교로 유대인의 종교로서 구약성경의 10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400만여 명의 신도가 있는 것으로 통계되고 있으며 특히 공산주의 국가들과 독일 나치의 탄압을 받아온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율법의 문자적 해석을 주장하는 보수파와 자유로운 해석을 주장하는 개혁파로 나뉘며,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주후 초기에는 바리새파(Pharisees), 사두개파(Sadducees), 에세네파(Essenes) 혁명당 등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라(히브리어: תּוֹרָה, 율법)는 "가르침", "법" 이란 뜻으로 구약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모세오경(הַשְּׁמִינִיּוֹת)을 말하는 것으로 유대교 경전가운데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토라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해준 것 이라고 하지만 성서학자들은 모세오경 또는 토라를 P(제사장 집단), D(신명기 집단) 등의 복수의 저자들이 JDPE문서로 전송된 이야기들을 그들의

신학에 맞게 편집한 신학작업의 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토라, 즉 모세오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는 종교는 유대교를 비롯하여 기독교와 이슬람교 등 3대 종교 뿐입니다.

타나크(Tanakh, 히브리어:תנ"ך)는 토라와 함께 널리 알려진 유대교의 경전으로서 이 이름은, 이를 구성하는 세 분류명을 늘여서 쓴 형태이며 (מִיְבוֹחַת מִיַּיְבוֹנ הַרְוּת), 각 분류명의 맨 앞글자를 따서 약칭으로 '타나크(תנ"ך)'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성경은 주전 1500~400년대, 장구한 세월을 거쳐 바빌로니아, 팔레스티나, 이집트 등의 지역에서 각각 다른 책들로 기록된 경전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서, 장기간의 검토를 거쳐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여 타나크는 총 2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경전으로 받아들인 기독교에서는 오늘날 종파에 따라 다른 분류를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공인된 구약성서와 유대교의 성경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거의 일치하나, 경전을 나누는 분류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경전의 목록을 확정할 당시 따랐던 전승의 차이에서 기초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성경은 각각 다른 지역에서 쓰여진 기록이었기 때문에, 지역 및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른 판본과 날권들이 생겨나, 성서를 하나로 묶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경전으로 삼을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와 의견들이 집약되었습니다. 결국 유대교에서는 히브리어로 쓰인 판본이 남아 있는 문서를 대상으로 경전화 작업을 행하였으며, 주전 4세기에 오늘날의 모습으로 체계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당시 그리스어로 된 판본만이 있던 일부 문서들은 경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한편 기독교에서는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70인역에 보존된 내용을 근거로 구약성서를 정립하게 되었으며, 70인역에는 제2경전이라 불리는 7개의 서적 및 2개의 정경 추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히브리 사본이 없는 관계로 유대교에서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타나크 또한 성서의 판본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원문은 소실되어 없으며 원문의 본질에 적합하거나 유사한 여러 판본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표준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마소렛'이라 불리는 유대인 성서 본문 비평가들의 작업과 전승에 의해 내려온 판본인 것입니다.

탈무드(히브리어:תלמוד, 영어:Talmud)는 유대교의 규율과 율법과 관한 랍비의 해석을 담은 유대교의 중요한 경전입니다. 탈무드는 미슈나(Mishnah)와 게마라(Gemara) 등 두가지로 분류되며, 그 가운데 미슈나(Mishnah)는 유대교의 구전된 규율을 200년경에 글로 모은 것이며, 게마라(Gemara)는 미슈나와 그밖의 타나크 등에 대한

해설과 논의들을 500년경에 정리한 것입니다. 탈무드와 게마라는 혼용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게마라는 랍비 규율의 기반이 되며 다른 랍비 문서에도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탈무드를 히브리어 시샤 세다림(shisha sedarim)의 약자로, 미슈나의 여섯 order을 의미하는 샤스(Shas, ש"ס)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탈무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용할 정도로 유대교의 이념과 철학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경전입니다.

2) 바리새파(Pharisees)

구약시대 말기 유대의 역사는 파쟁과 분쟁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파쟁운동은 이미 포로시대 때부터 시작된 것이나 마카베오(Maccabees) 독립전쟁 이후 더욱 극심하여 졌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주장한 율법준수와 성별 생활은 일종의 구약의 청교도 운동으로 변화했고, 이것이 바리새파 (Pharisees)운동의 효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교적인 불순으로 부터 구별을 내세운 바리새파 운동은 마카베오 독립운동과 함께 세력이 크게 확장되면서 유대인들의 종교적 주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본래 "분리된 자" 들이라는 뜻의 바리새파는 사두개파(Sadducees), 에세네파(Essenes)와 함께 유대 3대 당파 중의 하나로 주전 2~3세기경 헬레니즘의 영향에서 벗어나 율법과 정결에 대한 규례를 철저히 준수하며 부활을 믿었던 종파였습니다. 로마시대에는 6,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질만큼 왕성했으며 유대인의 신앙적 지도자로 자처했으나 지나친 율법주의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으로 부터 책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마태복음3:7)

- A. 구약 율법의 연구와 준수를 중요시 하며 동시에 "조상들의 전통"을 중시하였습니다
- B. 영혼의 불멸을 믿으며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를 신앙하였습니다
- C. 예정론을 신앙하였습니다
- D. 행위 구원론을 가르치며 율법의 내면적인 뜻보다 외면적인 준수를 더 중시하여 외식화 되었습니다
- E. 회당 중심으로 활동하였습니다

3) 사두개파(Sadducees)

사두개파(Sadducees)는 거의 모든 면에서 바리새파(Pharisees)와 대조적이었습니다. 사두개라는 이름은 안티고누스(Antigonus)의 제자 사도크(Zadok)라는 이름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견해로는 다윗 시대의 제사장 사독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독의 후손들이 솔로몬 시대 이후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맡아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두개파는 현세적으로 헬라문화에 개방적이었으나 종교적으로는 보수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이라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 색채가 강한 집단들로 당시의 정치 상황을 지지했습니다 때문에 마카베오 전쟁때에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소수의 무리이기는 했으나 제사장 직무를 독점했고, 바리새파와 함께 산헤드린 공회의 중요한 회원으로서 법관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리새파가 백성들과 함께하며 내세적종교성향을 지녔다고 한다면 사두개파는 백성들을 지배하는 정치적이며 친로마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사두개파는 성문화된 모세의 율법만을 고수하며, 바리새파의 주석과 구전율법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죽은자의 부활, 천사,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현세적 종교형식을 유지하였습니다(마태복음22:23, 누가복음20:27, 사도행전23:8) 유대교의 신학과 전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바리새파와는 달리 헬레니즘 문화의 사상을 수용함으로써 분명한 전통적 유대경전을 훼손시켰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인본주의에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예정론을 부인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요한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며(마태복음3:7, 16:12), 특히 세례요한은 사두개파를 일컬어 "독사의 자식"들이란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을 자극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로서 동일한 종교적 성향과 유대교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리새파와 함께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박해하고 공격하였습니다(사도행전5:17)

친로마제국의 영향력과 비호 아래 유대교의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인 기득권을 누린 사두개파였지만 결국 예루살렘이 유대 독립전쟁으로 붕괴되면서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 A. 구약성경 이외의 모든 조상들의 전통과 해석을 부인하였습니다
- B. 영혼의 불멸을 부인하고 내세의 존재도 ,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 C.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신뢰하였습니다
- D. 구원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합리주의와 현실주의에 만족하였습니다
- E. 성전 중심으로 활동하며 정치적이고 엘리트 의식이 강하였습니다

16. 사마리아(Samaria), 사마리아인

사마리아(히브리어: שַׁמְרִיא, 아랍어: سامريون, 또는 السامرة, 그리스어: Σαμάρεια)는 현재의 팔레스타인에서 북쪽으로는 갈릴리와 남으로는 유대와 경계를 이루는, 산악 지대이

었습니다 역사적, 정치적, 자연적으로 다른 지방과 구분되는 지역이며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구약성경 열왕기상서 16:24 에서 유래하며 "살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오므리왕이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산을 사고 그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불렀으며,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던 곳입니다(열왕기상20:1~22)

다윗왕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남쪽의 유다왕국과 북쪽의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주전 884년경, 북이스라엘 왕국의 6대왕인 오므리가 세멜로 부터 은화 두달란트에 사들여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세우고 그곳을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건립하였습니다(열왕기상16:24~29) 고대 포도주와 기름의 생산지로 바위산의 정상에 세워진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아람의 벤하닷에게 두 번씩이나 포위되는 위기를 맞았으며(열왕기상20:1~22),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왕 때, 앗수르(앗시리아)의 살람에셀 왕이 사마리아를 침공해 도시를 점령하여 복속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앗수르 살람에셀왕은 모든 사마리아 지역의 거주민 포로들을 앗시리아로 강제 이주시켰고, 또한 바빌론과 쿠다(Cuthah)등지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거주시킴으로서, 혼혈민족으로 전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열왕기하17:24~41)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적이고 모욕적으로 대하였으며 자신들과 구별해 쿠다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 کوتيل" 이라고 칭하였습니다

바빌론시대와 페르시아 시대를 거치면서 사마리아는 도시로 존재했고 주전 332년경 마케도니아 군대가 반란을 진압하러 와서는 그곳에 정착해 헬레니즘 문화가 정착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귀환후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에 사마리아인들도 함께 참여하기를 청원하였으나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마리아의 종교적 순결을 불신한 나머지 그들과의 협력을 거절하였습니다(에스라4:1~4) 스룹바벨의 거절로 인하여 서로 상종치 아니하는 관계로 악화되었고 분개한 그들은 그리심산에 그들의 성전을 따로 지어 제사를 지냄으로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적대감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짐승과 같이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도 사마리아 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도계(Zadokite) 제사를 청빙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제사를 드리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리심산의 성전은 주전 107년 힐카너스(John Hyrcanus)의 침공에 의해 파괴되었고 주후 135년에 다시 재건하였으나 484년에 다시 파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

전 63년 사마리아는 로마에 의해 시리아 속주로 병합되었습니다

주전 30년경 헤로데 대왕은 사마리아를 새로이 재건하여 크게 확장하고 도시 이름을 세바스테로 개명하고 아우구스투스에게 헌정하였습니다. 헤로데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한 웅장한 사원을 비롯해 약 4km 길이의 성벽과 요새를 새로 세웠으며 헬레니즘 도시의 특징을 유감없이 발휘한 대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자리에서 유월절 제사는 드러지고 있고, 세례요한의 무덤이 있으며 그를 위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모슬렘 교도의 수많은 박해로 인하여 그 수는 점차 줄어들었으나 그리심산 하의 마을에는 300여명이 집단생활을 하며, 그리심 성전만이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유일한 곳으로 신앙하고 모세5경만을 경전으로 신앙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종교생활은 철저히 제사장의 주관하에 절대적인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사독의 계열이기 때문에 사두개파 교인들과 유사점이 많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그들은 사두개파와는 달리 메시아를 간절히 대망하며 모든 세계의 사마리아화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으로 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때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을 보냈던 유대인들이 그 반대편에 서 있게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지금 이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7. 메시아(Messiah), 메시아를 기다린 이스라엘

1) 메시아의 어원과 의미

메시아(히브리어: מָשִׁיחַ, 아람어: משיח, 아랍어: المسيح, Messiah, 고대그리스어: Μεσσίας, Χριστός)는 문자적으로는 "기름을 바른(또는 기름을 부은) 자" (사무엘상16:13) 라는 의미로 장차 오실 왕(이사야9:11), 예수 그리스도(요한복음1:41)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고대 이스라엘의 예법에서 사용하던 존칭의 일부로 지위가 높은 사람, 특히 유대 사람의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향료를 몸에 바르는 예법에 따라 이 말이 생긴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제사장, 왕, 예언자였습니다.

오늘날 메시아는 종교적인 성향에 따라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이사야서의 예언과 같이 선민을 구원하고 세상을 심판하실 통치자를 말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 또는 해방시키는 자를 이르는 대명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메시아로 신앙하고 있습니다.

주후 1세기, 유대인들은 타나크의 예언서들을 기준으로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지도자로, 또한 로마에 대항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메시아를 해석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예언들을 영적인 구원자로 해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높여 부르는 말로 쓰이는 그리스도(Χριστός, christos) 역시 "기름 부음을 받다" 는 뜻의 그리스어 동사 χρίω를 가지고 번역한 것입니다.

이슬람교에서도 예수(이사)는 메시아의 아랍어인 마시(Masih)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인 타나크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칠십인역에는 모든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그리스도가 아닌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구절은 요한복음 1장 41절과 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 메시아의 예언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의해 모든 백성이 축복을 받으리라고 예언했으며, 신명기 18:15에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라는 말씀과 말라기가 엘리야의 재현을 말하는 것도 모두 메시아를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한 희망을 준 것은 다윗의 자손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사

무엘하7:12~13) 즉, 다윗의 자손이 나타나 다윗 왕조를 일으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이라는 예언은 이스라엘의 메시아 대방에 대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아주 독특한 예언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예언입니다(이사야53:1~6) 즉, 메시아는 주로 영광과 권능의 통치자로서 언급되었지만 이사야 53장에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운명하시는 대리적 고난자로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사상은 처음부터 세계적 권세를 얻으려는 이스라엘의 모든 희망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라는 메시아는 다윗 왕조를 굳건히 세우고 세계 열방위에 군림하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예수가 메시아로서 로마 대적을 무찌르고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 없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에서 보여 주셨던 대재앙의 하나님께서 로마제국을 물리치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땅에 이스라엘만의 선민적 세계를 세워 나가는 무소불위의 제왕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정치적, 세속적 권력의 메시아를 거부하고,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표상으로서의 메시아적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결국 메시아는 권위위에 군림하는 지도자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애에 대한 구원자로서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희망의 메세지였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며 구원의 손길을 기대해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과 동일한 사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그들이 결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원인이었습니다 억압과 탄압속에서도 굳건한 신앙을 지켜왔던 그들이었지만, 정작 그들 자신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오직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유대인의 왕만을 기다린 오류였던 것입니다

3)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

포로시대 이후 이스라엘의 꿈은 자유해방과 조국으로의 귀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내려진 민족적 시련은 심판으로도 받아들여졌으나 그 보다는 이스라엘 회복의 염원을 더욱 간절하게 하는 은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들은 박해와 수난을 겪으면서 이방인과 전혀 구별된 선민의식을 깨달으며 민족해방의 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외세의 박해로 부터 해방의 소망과 위로하심을 대를 이어가며 끊임없이 기다렸

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외경 들에서는 많은 묵시서들이 나타났고, 그 주제는 모두 메시아의 도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시는 로마 정복이후 다윗 왕국을 건설한 기도를 소개하면서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루벤(Reuben)의 증거 (Testament)에는 레위의 계열을 따라 메시아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으며, 에녹서는 메시아의 이름을 기름부음을 받은자와 인자로 칭하며 예언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대한 칭호는 다니엘서 7:13에서 인용한 것으로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묵시서들에서 밝히는 공통적인 사건은 메시아의 임박설과 성전의 재건,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귀환인 것입니다. 강력한 메시아, 힘과 능력을 소유한 메시아를 원했던 이스라엘에게 이사야서의 메시아는 그들에게 절망적인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핍박과 고통의 수많은 세월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내가 원하는 강력한 구원자를 그리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메시아 대망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교훈을 얻게된 것입니다.

4)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즉, 어린 아이와 같이 스스로 낮추는 자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서열과 순서가 없고 소유와 무소유가 없는 곳. 이 바로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다시 태어남이 없고 다시 사망하는 일이 없으며, 기대가 없고 소원이 없으며, 과거와 현재가 없는 만큼 미래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중앙이 없되 변두리도 없으며, 영원히 살아가되 노환도 질병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나라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지상에서 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이루어진 메시아 왕국에 살면서 동시에 아직 이루어 지지 않은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5) 구약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에 관한 예언과 신약성경의 성취

1. 창세기 - 인류 역사 창조와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

- ① 3:15, 여자의 씨(처녀의 출산)(눅1:35,마1:18-20)
- ② 3:15, 그 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심(히2:14,요일3:8)
- ③ 5:24, 그 분의 육체가 승천하심(막16:19)
- ④ 9:26~27, 썸의 하나님의 썸의 아들(눅3:36)
- ⑤ 12:3, 아브라함의 씨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음(행3:25~26)
- ⑥ 12:7, 아브라함의 씨를 세우실 약속(갈3:16)
- ⑦ 14:18, 한 분의 왕(히7:2)
- ⑧ 14:18, 최후의 만찬(마26:26-29)
- ⑨ 17:19, 이삭의 씨(약속의 씨)(롬9:7)
- ⑩ 22:8, 하나님의 어린 양 약속(요1:29)
- ⑪ 22:18, 이삭의 씨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임(갈3:16)
- ⑫ 26:2~5, 이삭의 씨의 약속(히11:18)
- ⑬ 49:10, 그분의 초림의 때(눅2:1~7,갈4:4)
- ⑭ 49:10, 그분의 호칭 '실로'(요17:3)
- ⑮ 49:10, 유다의 씨(눅3:32)
- ⑯ 49:10, 유대인들로부터 잃어버리심(요11:47~52)
- ⑰ 49:10, 사람들이 그분에게 순종할 것임(요10:16)

2. 출애굽기 - 하나님의 어린 양과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

- ① 3:13~14, 나는 스스로 있느니라(I AM)(요4:26)
- ② 12:5, 흠없는 어린 양(벧전1:19)
- ③ 12:13,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을 받음(롬5:8)
- ④ 12:21~27, 그리스도 우리의 유월절(고전5:7)
- ⑤ 12:46, 어린 양의 뼈가 꺾이지 않음(요19:31-36)
- ⑥ 15:2, 그 분의 찬송받으실 이름은 예수라(행7:55~56)
- ⑦ 15:11, 그 분의 성결하심과 거룩하심(눅1:35,행4:27)
- ⑧ 17:6, 이스라엘의 영적 반석(고전10:4)
- ⑨ 33:19, 그 분의 긍휼하신 성품(눅1:72)

3. 레위기 - 하나님의 속죄제 희생예물 예수 그리스도

- ① 14:11, 나병을 정결케 하는 대제사장(눅5:12~14)
- ② 16:15~17,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히9:7~14)
- ③ 16:27, 영문 밖에 뿌려진 피(마27:33,히13:11~12)
- ④ 17:11, 육체의 생명은 피(마26:28,막10:45)

- ⑤ 17:11, 보혈에 의한 속죄(요일3:14~18)
- ⑥ 23:36~37, 전제 예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요19:31~36)

4. 민수기 -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들(교회)의 행진

- ① 9:12, 그 분의 뼈는 부서지지 아니함(요19:31~36)
- ② 21:9, 장대에 달린 놋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봄(요3:14~18)
- ③ 24:17, 지금은 아니나 내가 그분을 보리라(갈4:4)

5. 신명기 - 새김질해야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 ① 18:15, 그 분은 참된 선지자(요6:14)
- ② 18:15~16,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으리라(요5:45~47)
- ③ 21:33,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음(갈3:10~13)

6. 룻기

- ① 4:4~9, 그리스도, 우리의 친족, 대속자(엡1:3~7)

7. 사무엘상서

- ① 2:10, 기름부음을 받으신 왕(마28:18, 요12:15, 마3:13~17)

8. 사무엘하서

- ① 7:12, 다윗의 씨(마1:1)
- ② 7:14, 하나님의 아들(눅1:32)
- ③ 7:16, 다윗의 집을 세우심(눅3:31, 계22:16)

9. 열왕기하서

- ① 2:11, 하늘로 승천하심(눅24:51)

10. 역대상

- ① 17:11, 다윗의 씨(마1:1, 9:27)
- ② 17:12~13, 다윗의 왕좌에 앉으심(눅1:32~33)

11. 욥기

- ① 19:23~27, 예수님의 부활(요5:24~29)

12. 시편 -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 ① 2:7,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마3:17)
- ② 2:7~8, 나무에 달리시고 부활하심(행13:29~33)
- ③ 2:12, 그 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음(요20:31)
- ④ 8:2, 어린아이들의 입술이 찬송드림(마21:16)
- ⑤ 8:5~6, 그 분의 멸시받으심과 높임을 받으심(눅20:50~53, 고전15:27)
- ⑥ 16:10, 썩지 아니하심을 보심(행2:31)
- ⑦ 16:9~11, 죽음에서 일어나심(요20:9)
- ⑧ 17:15, 부활의 예표(눅24:6)
- ⑨ 22:1, 다른 죄인들같이 버림받으심(고후5:21)
- ⑩ 22:1, 골고다에서 하실 말씀 '나의 하나님...' (막15:34)
- ⑪ 22:2, 골고다상의 흑암(마27:45)
- ⑫ 22:7, 그들이 입술을 뻘죽이며 머리를 흔들며 저주함(마27:39)
- ⑬ 22:8, 그 분은 진실로 하나님이시다(마27:43)
- ⑭ 22:9, 구세주로 출생하심(눅2:7)
- ⑮ 22:14, 그 분의 죽으심과 심장의 깨어지심(요19:34)
- ⑯ 22:14~15, 갈보리에서 슬픔과 고난(마15:34-37)
- ⑰ 22:15, 그 분의 목마르심(요19:28)
- ⑱ 22:16, 그 분의 손목과 발목이 찢리심(요19:34, 37, 20:27)
- ⑲ 22:17~18,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기움을 당하심(눅23:34~35)
- ⑳ 22:18, 그 분의 옷이 제비뽑히고 나누임(요19:23~24)
- ㉑ 22:20~21, 하나님께 향하신 그분의 호소(눅23:46)
- ㉒ 22:20~21, 사단의 능력과 지옥의 능력을 파괴하심(히2:14)
- ㉓ 22:22, 죽음에서 그분의 부활하심(요20:17)
- ㉔ 22:27, 모든 민족들을 향하신 그분의 새 언약(골1:16)
- ㉕ 22:31, 다 이루었다(요19:30)
- ㉖ 23:1, 나는 선한 목자라(요10:11)
- ㉗ 24:2, 그 분의 승천에 대한 예시(행1:11, 빌2:9)
- ㉘ 30:3, 그 분의 부활하심(행2:32)
- ㉙ 31:5,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기나이다(눅23:46)
- ㉚ 31:11, 그 분을 아는 자들로부터 멸시받음(막14:50)
- ㉛ 31:13, 그 분을 죽이자는 모략들(요11:53)
- ㉜ 31:14~15,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으심(마27:43)
- ㉝ 34:20, 그 분의 뼈가 꺾이지 아니하심(요19:31~36)
- ㉞ 35:11, 거짓 증인들이 그분을 대적함(마26:59)
- ㉟ 35:19, 애매히 미움받으심(요15:25)
- ㊱ 38:11, 그 분의 친구들도 돌아섬(눅23:49)
- ㊲ 40:2~5, 그 분의 부활하심의 즐거움(요20:20)

- ㉔ 40:6~8, 아버지의 뜻을 따르심(요4:34)
- ㉕ 40:9,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공의를 선포하심(마4:17)
- ㉖ 40:14, 그 분을 찾는 자들이 동산까지 움(요18:2~3)
- ㉗ 41:9, 그 분의 떡을 받은 친구가 배반함(요13:18)
- ㉘ 45:2, 그 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들(눅4:22)
- ㉙ 45:6, 그 분의 한 이름 하나님 혹은 엘로힘(히1:8)
- ㉚ 45:7, 한 특별하신 성령님의 기름부으심(마3:16,히1:9)
- ㉛ 45:7~8, 그리스도라 불리우심(메시아, 기름부음을 받으신 분)(눅2:11)
- ㉜ 55:12~14, 타인이 아닌 친구로부터 버림받으심(요13:18)
- ㉝ 55:15, 배반자의 죽음(마27:3~5,행1:16~19)
- ㉞ 68:18,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들(엡4:11~16)
- ㉟ 68:18, 주님의 승천하심(눅24:51)
- ㊱ 69:4, 무고히 미움 받으심(요15:25)
- (51) 69:8, 형제들에게 외면당하심(눅8:20~21)
- (52) 69:9, 주님의 집에 대한 열심(요2:17)
- (53) 69:14~20, 메시아의 영혼의 곤고하심(마26:36~45)
- (54) 69:20, 나의 혼의 곤고함이 넘침(마26:38)
- (55) 69:21, 식초를 마시우게 줌(마27:34)
- (56) 69:26,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고난에 내어주심(요17:4,18:11)
- (57) 72:10~11, 지혜자들이 그분을 방문함(마2:1~11)
- (58) 72:16, 그 분 안에 넘치는 열매들(요12:24)
- (59) 72:17, 그 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권세(요1:12~13)
- (60) 72:17, 그 분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음(행2:11,12,41)
- (61) 78:1~2, 그 분께서 비유로 가르치심(마13:34~35)
- (62) 78:2, 그 분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로 말씀하심(마7:29)
- (63) 88:8, 그 분의 아는 자를 멀리 있게 하심(눅23:49)
- (64) 89:27, 임마누엘 하나님. 왕들 중에 가장 크신 분(눅1:32~33)
- (65) 89:35~37, 다윗의 씨, 보라, 왕권이 영원하심(눅1:32~33)
- (66) 89:35~37, 그 분의 열매가 넘침(계1:5)
- (67) 90:2, 영원으로부터 오신 주님(요1:1)
- (68) 91:11~12, 위험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눅4:10~11)
- (69) 97:9, 가장 높으신 그분(행1:11,엡1:20)
- (70) 100:5, 그 분의 거룩하시고 선하심(마19:16~17)
- (71) 102:1~11, 그 분의 고난과 갈보리의 멸시받으심(요21:16~30)
- (72) 102:25~27, 창조주의 아들은 메시아이심(히1:10~12)
- (73) 109:25, 조롱을 받으심(마27:39)
- (74) 110:1, 다윗의 아들(마1:1,마22:43)

- (75) 110:1,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마16:19)
- (76) 110:1, 다윗의 아들이 주님이라 불리우심(마22:44~45)
- (77) 110:4, 멜기세덱의 반열의 대제사장(히6:20)
- (78) 112:4, 은혜와 긍휼이 많으심(마9:36)
- (79) 118:17~18,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하심(눅24:5~7, 고전15:20)
- (80) 118:22~23,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심(마21:42~43)
- (81) 118:26, 이스라엘을 복주심(마21:9)
- (82) 118:26, 하나님의 집에 서신 주님(마21:12~15)
- (83) 132:11, 다윗의 씨(그 몸의 열매)(눅1:32)
- (84) 138:1~6, 왕들이 다윗의 씨를 영접함(마2:2~6)
- (85) 147:3~6, 그리스도의 목회와 자유(눅4:18)

13. 아가서

- ① 5:16,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심(요1:17)

14. 이사야 - 그 분께서 찢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 ① 6:1, 이사야가 본 그분의 영광(요12:40~41)
- ② 6:9~10, 깨닫지 못하는 귀들(마13:13~15)
- ③ 6:9~12,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들을 알지못함(행28:23~29)
- ④ 7:14, 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눅1:35)
- ⑤ 7:14, 임마누엘 -하나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하심(마1:18~23)
- ⑥ 8:8, 임마누엘이라 불리우심(마28:20)
- ⑦ 8:14, 산돌을 세우시는 반석(벧전2:8)
- ⑧ 9:1~2, 갈릴리에서의 그분의 사역(마4:12~17)
- ⑨ 9:6, 한 아이로 태어나심(눅1:31)
- ⑩ 9:6,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심(눅1:32, 요1:14, 딤후3:16)
- ⑪ 9:6, 하나님 아들의 능력(롬1:3~4)
- ⑫ 9:6, 오묘하신 말씀(눅4:22)
- ⑬ 9:6, 기묘자라, 모사(謀士)라(마13:54)
- ⑭ 9:6, 전능하신 하나님(마11:20)
- ⑮ 9:6, 영존하신 아버지(요8:58)
- ⑯ 9:6, 평강의 왕이시라(요16:33)
- ⑰ 9:7, 영원하신 왕국(눅1:32~33)
- ⑱ 9:7, 그 분의 공의로우심(요5:30)
- ⑲ 9:7, 끝이 없으신 그분의 나라, 평화, 보좌(눅1:32~33)
- ⑳ 11:1,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우리라(마2:23)

- ㉑ 11:1, 이새의 가지, 이새의 아들(눅3:23~33)
- ㉒ 11:2, 성령님의 기름부으심(마3:16~17)
- ㉓ 11:2, 그 분의 지혜와 지각능력(요4:4~26)
- ㉔ 11:4, 그 분의 진리와 공의로우심(요14:6)
- ㉕ 11:10, 열방이 그분께로 오실것이요(요12:18~21)
- ㉖ 12:2,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불리우심(마1:21)
- ㉗ 25:8,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폐하심(고전15:54)
- ㉘ 26:19, 부활시키시는 그분의 능력(요11:43~44)
- ㉙ 28:16, 메시아는 귀하신 기초돌이 되심(행4:11~12)
- ㉚ 29:13, 그 분의 말씀을 백성이 순종치 않음(마15:7~9)
- ㉛ 29:14, 지혜로우시고 오묘하신 말씀(고전1:18~31)
- ㉜ 32:2, 광풍과 폭풍으로부터 피난처되시는 분(마23:37)
- ㉝ 35:4, 그 분께서 너를 구원하러 오시리라(마1:21)
- ㉞ 35:5,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마11:4~6)
- ㊱ 40:3~4, 외치는 자를 보내심(요1:23)
- ㊲ 40:9, 너희 하나님을 보라(요1:36,19:14)
- ㊳ 40:11, 생명의 꿀을 먹이시는 목자(요10:10~18)
- ㊴ 42:1~4,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마12:18~21)
- ㊵ 42:2, 그 분은 외치지 아니하며 높이지 아니하시며(마11:28~30)
- ㊶ 42:3,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고지 아니하심(요4)
- ㊷ 42:4, 모든 민족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배움(요12:20~26)
- ㊸ 42:6, 이방인의 빛(구세주)(눅2:32)
- ㊹ 42:1~6, 그 분은 모든 세상과 함께 하심(마28:19~20)
- ㊺ 42:7,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요9:25~38)
- ㊻ 43:11, 그 분은 오직 단 한분이신 구세주이심(행4:12)
- ㊼ 44:3, 그 분께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보내심(요16:7,13)
- ㊽ 45:23, 그 분의 공의로우신 심판(요5:22,롬14:11)
- ㊾ 48:12,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요1:30,계1:8,17)
- ㊿ 48:17, 그 분께서 가르치심(요3:2)
- ⑤0 49:1, 복중에서부터 불러내심(마1:18)
- (51) 49:5, 복중에서부터 종으로 부르심(눅1:31,빌2:7)
- (52) 49:6, 그 분은 이스라엘의 구원주이시다(눅2:29~32)
- (53) 49:6, 그 분은 열방의 빛이심(행13:47)
- (54) 49:6,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심(행15:3-18)
- (55) 49:7, 민족으로부터 경멸당하심(요8:48~49)
- (56) 50:3, 하늘을 흑암과 굵은 베로 덮히심(눅23:44~45)
- (57) 50:4, 곤고한 자를 쉬게하심(마11:28~29)

- (58) 50:5, 반역하지 아니하시는 종(마26:39)
- (59) 50:6, 나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돌려주며(마27:26)
- (60) 50:6, 그 분을 때리는 자에게 뺨을 맞기며(마26:67)
- (61) 50:6, 그 분께서 침뱉음을 당하시고(마27:30)
- (62) 52:7, 평화와 좋은 소식을 가져오시는 분(눅4:14~15)
- (63) 52:13, 받들어 높임을 받으신 종(행1:8~11,엡1:19~22)
- (64) 52:13, 보라 나의 종을...(마17:5,빌2:5~8)
- (65) 52:14, 상처받은 종(눅18:31~34,마26:67~68)
- (66) 52:15, 열방이 놀라는 종의 말씀 선포(롬15:18~21)
- (67) 52:15, 그 분의 보혈로 모든 속죄가 이루어짐(계1:5)
- (68) 53:1, 그 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믿지 아니함(요12:37~38)
- (69) 53:2, 우리의 보기에 아름다움이 없으신 분(눅2:7)
- (70) 53:2, 사람과 같이 낮추신 분(빌2:7~8)
- (71) 53:3, 경멸을 받으심(눅4:28~29)
- (72) 53:3, 거절당하신 분(마27:21~23)
- (73) 53:3, 큰 통곡으로 우시는 분(눅19:41~42)
- (74) 53:3, 함께 한 자들도 그분을 버림(막14:50~52)
- (75) 53:4, 그 분은 질고를 치료하심(눅6:17~19)
- (76) 53:4, 그 분은 세상의 죄들을 짊어지심(벧전2:24)
- (77) 53:4,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심(마27:41~43)
- (78) 53:5, 모든 형벌을 담당하심(눅23:33)
- (79) 53:5, 사람과 하나님의 평화의 중보자(골1:20)
- (80) 53:5, 그 분의 등이 채찍에 찢기심(마27:26)
- (81) 53:6, 그 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심(갈1:4)
- (82) 53:6, 하나님의 뜻은 그분께서 세상 죄를 담당하시는 것(요일4:10)
- (83) 53:7, 모욕과 괴로움을 받으심(마27:27~31)
- (84) 53:7, 그 분의 고소자들 앞에서 입을 다무심(마27:12~14)
- (85) 53:7, 하나님의 어린 양(희생예물)(요1:29)
- (86) 53:8, 체포되시고 심문 당하심(마26:47,27:31)
- (87) 53:8, 그 분께서 재판을 받으심(요18:13~22)
- (88) 53:8, 그 분께서 죽임을 당하심(마27:35)
- (89) 53:8, 세상의 죄들을 담당하신 죽으심(요일2:2)
- (90) 53:9, 부자의 무덤에 묻히심(마27:57)
- (91) 53:9, 죄 없으시며 폭력을 행하지 않으심(막15:3)
- (92) 53:9, 그 분의 입술에는 궤사가 없으심(요일8:38)
- (93) 53:10, 그 분께서 세상을 위해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요일18:11)
- (94) 53:10, 죄를 위한 단 한 분의 희생예물(마20:28)

- (95) 53:10,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심(막16:16)
- (96) 53:10, 그 분의 열매는 풍성하심(요17:1~5)
- (97) 53:11, 하나님은 그분의 예물과 고통받으심을 만족하셨음(요12:27)
- (98) 53:11, 하나님의 종(롬5:18~19)
- (99) 53:11, 그 분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의롭게 하심(롬5:8~9)
- (100) 53:11, 모든 인류를 위해 죄를 지고 가져가심(히9:28)
- (101) 53:12, 그 분의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높혀 주심(마28:18)
- (102) 53:12, 그 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심(눅23:46)
- (103) 53:12, 악인들과 함께 처형 받으심(눅23:32)
- (104) 53:12, 모든 인류를 위해 죄를 지고 가심(고후5:21)
- (105) 53:12,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 되심(눅23:34)
- (106) 55:3, 하나님에 의해 부활하심(행13:34)
- (107) 55:4, 한 증인이 되심(요18:37)
- (108) 59:15~16, 그 분은 구원하시러 오심(요6:40)
- (109) 59:15~16,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마10:32)
- (110) 59:20, 그들의 구속자로 시온에 오심(눅2:38)
- (111) 61:1~2, 그 분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님(마3:16~17)
- (112) 61:1~2, 그 분 메시야는 좋은 소식을 전하심(눅4:17~21)
- (113) 61:1~2, 죄와 사망의 구속으로부터 자유케 하심(요8:31~32)
- (114) 61:1~2,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심(요5:24)

15. 예레미야 - 백성을 향하신 애통

- ① 23:5~6, 다윗의 후손(눅3:23~31)
- ② 23:5~6, 메시야는 하나님이심(요13:13)
- ③ 23:5~6, 메시야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심(딤후3:16)
- ④ 31:22, 한 처녀로부터 나심(마1:18~20)
- ⑤ 31:31, 메시야는 새 약속이 되심(마26:28)
- ⑥ 33:14~15, 다윗의 후손(눅3:23~31)

16. 에스겔

- ① 17:22~24, 다윗의 후손(눅3:21~23)
- ② 34:23~24, 다윗의 후손(마1:1)

17. 다니엘 - 죄들을 종결하시다

- ① 7:13~14, 그 분은 하늘에 오르심(행전1:9~11)
- ② 7:13~14, 최고의 높이 올려지심(엡1:20~22)
- ③ 7:13~14, 그 분의 통치권은 영원하심(눅1:31~33)

- ④ 9:24, 죄를 끝내심(갈1:3~5)
- ⑤ 9:24, 그 분께서는 거룩하신 분(눅1:35)
- ⑥ 9:25, 그 분의 백성들에게 70주를 언약하심(요12:12~13)
- ⑦ 9:26, 그 분께서 죽임을 당하심(마27:35)
- ⑧ 9:26, 세상죄를 위해 죽으심(히2:9)
- ⑨ 9:26, 그 분의 희생으로 유대 성전이 무용하게됨(마27:50~51)
- ⑩ 9:27, 그 분께서 율법에따른 제사를 폐지하심(히10:18)
- ⑪ 10:5~6, 가장 높이시며 영광스러우신 메시아(계1:13~16)

- 호세아, 미가서, 학개 - 베들레헴에 오신 구주

18. 호세아

- ① 13:14, 그 분께서 사망을 물리치심(고전15:55~57)

19. 요엘

- ① 2:32,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선물하심(롬10:12~13)

20. 미가서

- ① 5:2,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마2:1~2)
- ② 5:2, 하나님의 종(요15:10)
- ③ 5:2, 영원부터 계신 분(요8:58)

21. 학개

- ① 2:6~9, 그 분께서 헤롯 성전을 방문하심(눅2:27~32)
- ② 2:23, 스룹바벨의 후손(눅3:23~27)

22. 스가랴 - 겸손하신 왕의 입성

- ① 3:8, 하나님의 종(요17:4)
- ② 6:12~13, 제사장이시며 왕이심(히8:1)
- ③ 9:9, 예루살렘에서 즐거움으로 영접받으심(마21:8~10)
- ④ 9:9, 보라 왕이 오신다(요12:12~13)
- ⑤ 9:9, 메시아께서 공의로 행하심(요5:30)
- ⑥ 9:9, 메시아께서 구원을 선물하심(눅19:10)
- ⑦ 9:9, 메시아께서 낮아지심(마11:29)
- ⑧ 9:9, 나귀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마21:6~9)
- ⑨ 10:4, 모퉁이 기초돌 되시는 분(엡2:20)

- ⑩ 11:4~6, 그 분께서 오실 때 이스라엘은 불의한 지도자들이 있을것임(마23:1~4)
- ⑪ 11:4~6, 그 분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심(눅19:41~44)
- ⑫ 11:4~6, 이스라엘이 다른 왕을 기다리며 그분을 거절함(요19:13~15)
- ⑬ 11:7, 가난한 자와 믿는 남은 자들을 섬기심(마9:35~36)
- ⑭ 11:8, 이스라엘의 불신이 메시야로 하여금 그들을 거절하게 하심(마23:33)
- ⑮ 11:8, 그 분께서 모욕을 당하심(마27:20)
- ⑯ 11:9, 그 분을 거절한 자들에게 사역을 멈추심(마13:10~11)
- ⑰ 11:10~11, 이스라엘이 그 분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보호를 거두심(눅19:41~44)
- ⑱ 11:10~11, 메시야는 곧 하나님이심(요14:7)
- ⑲ 11:12~13, 은 30량에 배반당하심(마26:14~15)
- ㉀ 11:12~13, 이스라엘로부터 거절당하심(마26:14~15)
- ㉁ 11:12~13, 은 30이 성전 앞에 던져짐(마27:3~5)
- ㉂ 11:12~13, 메시야는 곧 하나님이심(요12:45)
- ㉃ 12:10, 메시야의 육체가 못박히심(요19:34~37)
- ㉄ 12:10, 메시야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심(요10:30)
- ㉅ 12:10, 메시야는 이스라엘에게 거절당하심(요1:11)
- ㉆ 13:7, 하나님의 뜻은 그 분께서 인류를 위해 희생하시는 것임(요18:11)
- ㉇ 13:7, 극한 폭력을 당하시고 희생하심(마27:35)
- ㉈ 13:7, 그 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심(요14:9)
- ㉉ 13:7, 이스라엘이 그분을 거절함으로 흠어짐(마26:31~56)

23. 말라기 - 치료하시는 광선

- ① 3:1, 메시야를 위한 길을 예비하는 사자(마11:10)
- ② 3:1, 갑작스러운 성전 방문을 하심(막11:15~16)
- ③ 3:1, 새 언약의 전파자(눅4:43)
- ④ 4:5, 엘리야의 영이 있는 선구자(마3:1~2)
- ⑤ 4:6, 선구자는 많은 사람을 의롭게하심(눅1:16~17)

18. 기독교의 세계화를 향한 위대한 도구, 로마제국

1) 로마의 역사

"세력"이란 뜻을 가진 로마(Rome)는 작은 도시 국가에서 출발하여 주변민족을 하나씩 통합하면서 주전 510년경, 공화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주전 275년경, 이탈리아를 지배하고 케사르 황제때 부터 제정이 시작되었을 만큼 로마제국의 성장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주후 1세기경에 이르러서는 그 영토가 북쪽 브리튼으로부터 남쪽 북아프리카에 이르는 세계적인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국가 조직 및 통치구조에 대해 그 기초를 세워나감으로서 시대를 초월하여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쳤으며, 헬라문화와 윤리 및 철학을 서방에 전하는 중개역할을 하였습니다. 로마의 이러한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지배는 476년 게르만족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천년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주후 59~61년경, 바울에 의해 처음으로 기독교회가 설립되었고, 피 정복민의 종교에 비교적 관대한 정책을 펼쳐왔던 로마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조직적으로 박해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 지하무덤인 카타콤에 모이기 시작하여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예배를 드렸으나 아이러니하게도 2세기경에 로마는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313년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국교로 공인하는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많은 박해와 순교의 피가 뿌려졌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은 저주의 땅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고, 이러한 세계적인 로마제국을 통해서 복음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로마의 역사는 오래 전부터 준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러한 순교자의 피는 세계 곳곳에서 유사한 흔적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예외없이 많은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 세계적인 기독교 중심국가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2) 기독교의 세계적인 성장을 향한 출발선인 로마

기독교회는 팔레스타인이라는 가장 작은 약소국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영국에서 페르시아까지,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 북유럽까지를 국가의 영토로 하는 거대한 로마제국의 식민지배를 받는 속국이었습니다. 다민족 다국가의 해안을 흐르던 지중해는 로마제국이라는 거대한 하나의 나라에 내륙호수처럼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아우구스트 시이저(August Caesar)황제가 즉위한 후로 공화국이

었던 로마는 대제국으로 국가의 조직이 광대해 졌으며 모든 길은 로마를 중심으로 통하게 되어졌습니다. 시이저가 통치한 기간중인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에 이르는 동안 성경에 기록된 바 있는 호적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때 식민국가와의 일시적인 충돌을 제외하고는 평화는 시이저 통치로 부터 20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래없는 태평성대를 누림으로서 팩스 로마(Pax Romana)를 이룩하였던 것입니다. 강한 군대를 내세워 많은 국토를 통일한 로마는 동서남북을 연결하여 훌륭한 군사적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높은 수준의 탁월한 로마법은 질서와 평화유지의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규칙으로 민심을 통할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이러한 로마의 조직적이고 통괄적인 체제속에서 이루어진 사통팔달의 교통을 따라서 원활하고 신속하게 로마제국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의 법령은 더 할 수 없는 편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문화적 사상적 배경을 기독교에 맞추어준 로마는 초기에 기독교를 탄압하여 수많은 순교자의 피를 뿌리게 하였으나, 결국에는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굴복하여 기독교의 종교적 자유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로마국교로 제정함으로써 기독교가 세계사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로마의 오랜 평화의 지속성은 강한 군대를 이용한 국토의 통일과 헬레니즘 문화를 이용한 사상적 지배, 그리고 합리적이고 보편 타당한 법률적 신뢰도와 사통팔달의 원활한 교통문화에서 오는 탁월한 지도력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즉, 로마의 외적 평화는 그리스도의 내적 평화의 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제국과 기독교회는 동시대에 상보성을 띠고 탄생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회를 씨앗에 비유한다면 로마제국을 옥토로 비유함으로서 로마제국은 기독교의 미래를 향하여 준비된 아름다운 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의 세계통일, 그것은 동서남북을 연결하여 복음의 수많은 장벽들을 일시에 제거해 주었으며, 훌륭한 교통수단의 개발은 복음의 세계적 확산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높은 수준의 법과 질서는 전도자로서 기독교인에게 더 할 수 없는 보호장치가 되었습니다.

사도 행전의 기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하심과 준비하심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러한 세계적인 복음화의 출발점으로 로마를 사도 바울에게 준비한 것이

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모든 장면에서는 항상 핍박과 고난에 따른 순교자의 피가 있었으며, 그 순교자의 토대위에 교회는 생명을 가지고 확장되어 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의 삶이 그러했으며 복음이 전파되는 새로운 땅에선 언제나 고난과 핍박이 주어졌고 많은 순교자들이 생명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적 토대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 신앙을 가진자들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쓰임을 받았던 수많은 사역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앙하였으며 주 앞에서 복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소유자들을 통해서 그토록 강력한 로마를 굴복시키고 기독교라는 정신적 사상을 국가 이념으로 채택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복음의 씨앗은 끊임없이 뿌려지게 될 것이며 로마보다 더 강력한 군대가 출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아래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19. 사도(Apostolus)와 장로(Presbyter)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초대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소규모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 후 고넬료 가정을 비롯하여 이방인 교회가 설립되는 등 교회의 규모가 점차 증대되고 확장되면서 조직적인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등 교회의 성장은 일시에 5,000명을 초과하는 수직적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많은 인원이 교회라는 공동체속으로 합류되었고, 또한 그 조직 안팎으로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을 둘러싼 각종 사회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구조안에서 무엇인가 정형화된 조직이 필요해 졌습니다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필요성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 직분자에 대한 정의와 목적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1) 사도(Apostolus)

사도(使徒, Apostolus)라는 말은 '파견된 자', '사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샬리아(shaliach)에서 유래하였으며, 그리스어의 아포스톨로스(apostolos)의 동의어 입니다 또한 사도(Apostle)란 헬라어로 "보냄을 받는다" 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 전하는 권세를 위임받은 직계 제자를 통칭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19~20, 누가복음 6:13) 사도의 자격은 성육신하여 역사적인 인물로 살아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났고, 그 분의 가르침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4대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제자 12명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16~19)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룟 유다가 자살하여 사도직을 버리자, 사도들은 '예수께서 활동하실때 우리와 같이 있던 사람' 중 하나인 "맛디아" 에게 사도직을 맡겼습니다 (사도행전 1:21~26) 이후 성령강림주일에 탄생한 교회(사도행전 2:1~47)를 탄압하던 사울(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하여 자신을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10)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 전도의 핵심 인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의 중심에 서 있던 바울의 회심은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신비한 체험에서 비롯된 역사적 전환기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일생의 전후가 완전히 뒤바뀐 것으로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자격 문제는 오래동안 신학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은 충분히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였다고 보는 견해에 이의를 제기할 기독교인은 없을 것입니다 바

울은 맛디아와 같이 선출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사도적 정통성은 그의 삶을 통하여 충분히 인정되고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시작으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매, 도마,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다대오, 시몬, 그리고 가롯유다를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이며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스승이신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대적관계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팔아 넘기고 자살을 선택한 가롯 유다를 대신하여 맛디아를 사도로 인정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에 이르기 까지 사도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은 모두 14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하며 그의 가장 아름다운 동역자였던 "바나바" 와 유다의 기록자인 "유다" 등은 기독교사의 역사에 그 기록과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을 인물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하며 그분의 말씀과 생활을 가장 인접한 곳에서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맛디아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항상 함께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으며, 그러한 삶의 모양과 흔적들을 관찰한 열 한명의 제자들이 만장일치로 선택한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오용한다면 그것은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될 것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의 순수성을 투명한 통로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세상에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번씩이나 부인한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있으며, 나머지 제자들도 부활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도피하여 세상의 생활로 돌아갔던 배신의 흔적들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렇게 세상 가운데 흔적없이 사라져가는 무의미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내 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셨으며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 회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직분적 사역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과 삶을 여과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며 이것이 세대와 후대에 이르기 까지 본질이 훼손되지 않고 연결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사역은 복음전파(마태복음10:5~7)와 성경 말씀을 증거(누가복음24:45~48)하며, 그리스도의 부활과 사역을 증거하는 것입니다(사도행전1:8, 10:39~41요한일서1:1~3) 또한 교회를 설립하고(로마서15:17~20), 환자를 치유하며(마태복음10:1, 누

가복음9:1~2), 귀신을 내쫓음과 동시에(마가복음6:9)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입니다(사도행전2:43, 5:1)

사도의 첫번째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각지로 흩어져 버린 그리스도인들을 다시금 모여 들게 하는 구심점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였으며, 생활과 구제와 복음의 전파기능을 담당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월이 흘러 오늘날 우리 세대에 이르기까지 전파되어온 본질적인 것이었습니다. (로마서15:17~20)

초대교회의 풍습과 관습은 오늘날 끝없는 진화와 도전을 거쳐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정신과 생활과 예배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기초가 되었으며 그것이 오늘을 지탱하는 본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의 직분은 예배를 세우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복음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순교가 동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역경도 받아들이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억울한 누명, 이유없는 감옥생활도 그들을 지체하게 하거나 중단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도의 두번째 가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용기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스승은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생존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코 그들을 막을 수 없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그들과 그들의 삶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10:5~7)

사도의 세번째 역할은 그들이 가는 곳에 또 다른 예수님의 흔적,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회, 그들이 지켜온 토테미즘과 범신론적인 사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낙망하지 아니하였고, 지인 한명없이, 일꾼의 물질도 없이 그러한 교회들을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1:8, 10:39~41 요한일서1:1~3)

사도들이 일으킨 네번째 역할은 환자를 치유하고 귀신들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십년 동안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 귀신들려서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빈곤의 악순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가는 곳 마다 만날 수 있었고 사도들은 그들을 지나쳐 버릴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에겐 돈도 권력도, 물질도 부요함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걸쳐 어부로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어부라는 직업이 돈이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또한 가진 돈이 없지만 가지고 있는 돈을 나누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있어서 로마의 힘을 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하였으며,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서 치유와 회복과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수님의 통로 역할을 한 사도의 힘이었습니다 (마태복음10:1, 누가복음 9:1~2, 마가복음6:9, 사도행전2:43, 5:1)

2) 장로(Presbyter)

장로(長老)는 어원상 "턱수염이 있는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에서 지파와 가족의 어른들을 부르는 칭호였습니다 (출애굽기3:16). 구약성경에서는 부족의 지도자·촌로(村老), 회당의 장로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들이 주로 지파나 대가족을 대표하여 정치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원로라는 의미로 계속 사용되었으며, 초대교회에서는 직분상 두가지로 분류하여 장로를 호칭하였습니다. 그것은 신자의 영적 생활을 지도하며 설교와 예전을 집행하는 목사장로(디모데전서3:1~5)와 교회의 존경받는 연장자로 교회의 조직과 예산과 운영을 책임지는 평신도 장로(사도행전11:30)로 구별하는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에 의해 교회가 설립되면서 그 개체 교회를 위하여 장로가 세워졌습니다. 장로를 최초로 세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설립한 교회에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목회를 권면하며 각 성에 교회를 설립하고 장로를 세울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성령이 저들 교회 회중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장로의 직분의 범위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장로 피택은 구약시대의 제도를 계승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지방 회당은 장로들에 의해 치리되었고 유대의 국가적인 문제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다루어 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장로와 신약의 장로가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장로는 문자 그대로 연장자로서의 원로를 대우하며 그의 경험과 경륜을 존중한 반면에 초대교회의 장로는 연령보다 신령한 면을 강조하여 교우들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였으므로 영적인 자격이 선행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장로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치리하는 직무를 맡아 양떼를 잘 보살피는 일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직무(Overseeing office)로 인하여 장로들을 감독(Bishop=Overseer)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일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 고별사를 전할때에 그들을 감독으로 칭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에 장로를 세울 것을 권면하면서 감독이라는 칭호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신약성경에는 감독이라는 단어가 5회 기록되었는데 모두 장로와 동의어로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는 "속사도" (Post-Apostolic, 사도들의 제자), "교부" (敎父, Patristic, 속사도들의 제자)들의 글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장로의 구분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바울은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구분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교회내에서 여러 장로가 있었을 경우에는 분담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을 겸한 장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지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울때 모든 장로들이 가르치는 장로로 세움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로들을 세우는 방법에 있어서도 명확한 해석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울때 예루살렘 교회가 선택한 방법이나 일곱 집사의 선택으로 추정할 때 장로들도 임명보다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바울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였다"고 했는데 이 때의 택함의 동사의 원어적 의미가 "손을 들어 선택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러한 모든 직분들은 낮은자로 섬김을 위함입니다. 군림을 위한 권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목사장로와 치리장로들 간에 일어나는 권력적 선점을 위한 분쟁과 갈등은 바로 이러한 힘의 논리의 축에 대한 욕망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순수성을 잃어버린 태도라 할 것입니다.

3) 목사장로와 치리장로의 직분과 직무

목사장로는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감시 감독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감독"이라는 칭호를 쓰기도 합니다(사도행전20:28). 또한 신령한 양식으로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므로 "목자" 또는 "목사"라고 하기도 하며(에베소서4:11, 예레미야3:15, 베드로전서5:2~4), 또한 교인들의 모범이 되고 교회와 그 지역을 치리하는 자이므로 "장로"라고 합니다(베드로전서5:1~3).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함으로서 "그리스도의 종", 흔히 전임 "사역자"라고도 하며(고린도후서3:6), 하나님의 보내신 자

라는 의미에서 "교회의 사자" (요한계시록2:1)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권하는 자의 역할도 하므로 "그리스도의 사신" 이라고 합니다(고린도후서5:20, 에베소서6:20)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여 깨닫게 하는 직무도 있어서 "교사" 라고도 하며(디모데전서2:7, 디모데후서1:11, 디도서1:9)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 라하여(디모데후서4:5),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오이코노모스)라고도 합니다(누가복음12:42, 고린도전서4:1~2)

목사장로에 관한 직무는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일, 그리고 찬송을 지도하며 성례를 거행하는 것, 하나님의 사자로서 축복권을 행사하는 것, 교인을 교육하고 심방하며 평신도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평신도 장로는 설교와 교훈은 그의 전무책임이 아니지만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장로와 같은 권한으로 제반 사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디모데전서5:17, 로마서12:7~8) 평신도 장로는 목사장로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영적관계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교인을 심방, 위로, 권면, 교훈하며, 또한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다 근접한 상태에서 점검하고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교인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목회에 필요한 제반적인 사항들을 목사에게 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20. 교회의 공적예배

1) 예배(禮拜, Worship)

구약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두 단어는 문자적으로 "일과 의식" 과 "자신을 부복함"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에 관한 두가지 개념, 즉 의식과 경배를 제 공합니다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으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에 관한 예배의 기초와 형식과 전심(全心)은 모든 예배가 가져야 할 핵심요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농업으로 생산한 물질로 정성을 다하였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어린양을 제사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예배의 의식과 구성과 의전에 관한 전승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배의 첫번째 구성요소는 그 목적과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 예배의 내용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4:1~12) 또한 예배의 절차와 형식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면 그 어떠한 조직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교체하여서는 않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든 마음이 하나로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며 존귀히 여기는 분이라는 것을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일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초기에 아브라함의 예배는 개인적 혹은 가정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현현하는 곳에 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바쳤습니다 (창세기22:5, 24:26) 즉, 최초의 예배와 구성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형태로 이루어 졌다는 것이며 특별한 것은 바로 그러한 예배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이 광야에 머무를 때 하나님은 성막형태와 개인적, 집단적인 재사를 통한 예배의 총제적 제도를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정복 후, 성막이 실로에 설치되고 관현악대와 성가대가 참례하는 의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발전으로 예배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으며 개인적인 예배가 새로운 중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일어난 위대한 사건들, 즉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로 발전하였습니다 성 만찬식은 이 예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식이 되었습니다(고린도전서11:2~26)

예전적 예배는 일정한 예배양식 즉, 예전 또는 전례(Liturgy)에 따라 집전되는 기독교

교 예배를 말하는데, 고대교회로부터 이어온 교회의 전통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서독서(구약성경, 신약성경, 서신서, 복음서)와 설교, 성만찬 예식으로 이루어진 양식에 따라 예전적 예배를 집전하였습니다. 특히 성만찬은 마가복음 14:22-25와 고린도전서 11:23-25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 제정문이 언급되고 있고, 교부시대 문헌중에 예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면병과 포도주에 성령이 임재하기를 기도한 에피클레시스(성령임재기도문)가 있는 고대 제사형식의 본질을 따르려는 예전적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주후 70년 성전 붕괴 때까지 이어왔던 제의적 예배는 영적인 예배 개념으로 발전하였고(시편40:6, 50:12) 예수 그리스도는 내적인 요소에 우위를 두었습니다. 즉, 외적인 관습은 내적인 신앙의 정직한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로마서14:5). 예배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언제, 어디서 행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요한복음 4:23~24).

기독교의 예배(Service of worship)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을 예배의 본질로 삼고 있습니다. 개혁신학에서는 예배를 찬송, 기도, 말씀, 헌상, 성례전과 더불어 여섯 가지 은혜의 방도 중 하나로 규정하는데, 이것은 예배가 찬송, 기도, 말씀, 헌상 또는 성례전을 모은 형식에 치우친 종교의식이 아니라, 다른 은혜의 방도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의미와 본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정성을 다해 찬송과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성찬에 참여하고 헌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가 찬송, 기도, 말씀, 성찬 등의 형식을 모아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가르치는 교회와 듣는 교회를 구분하는 로마 가톨릭과는 달리 기독교회는 그러한 구분이 성경적 근거가 없다고 여기며, 개인도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참여하는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예배의 형식과 예절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의 형식과 예절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와 통일성, 일치성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회의 예배론의 독특한 점은 예배에 허용되는 형식이나 내용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다는 예배의 규정적 원리에 의한 것입니다.

2) 공적 예배

예수께서 유아기때부터 회당과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듯이 제자들도 모이기를 힘쓰며 공적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교회는 오순절이후 매일 모여 예배를 드렸으나 점차 날을 정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된 이후 유

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까지 칠일 안식일과 주일을 함께 지키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세운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주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공예배는 설교와 기도, 찬송과 신앙고백 그리고 성례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설교는 구약성경에 봉독되어진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으로 간단히 이루어졌으며 복음서 및 사도들의 서신서들이 읽혀지기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개인 집과 셋집, 그리고 회당에서 이루어졌으며 찬송과 성경봉독에 이어 설교, 기도와 성찬식의 순으로 진행되어 마지막으로 빈민구제를 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년 후에는 특별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신경(Symbolum Apostolicum)은 12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신앙의 표준으로 12가지를 작성하여 베드로가 로마에 가져갔다는 전설에 의해 사도신경이라 명하였습니다 당시 수세 후보자들의 신앙고백으로 오래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오늘날의 신앙고백과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사도신경 원문을 보면 거룩한 교회(sanctam Ecclesiam catholicam, Holy Catholic Church)라는 말이 제 14행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모든 교회가 성령께서 계신 거룩한 교회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의 모든 사람들에게 연결되어 있는 보편적인 교회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편성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선택의 권리라기 보다는 하나님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이것을 하나님앞에서 진실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평강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줄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Credo in Deum Patrem omnipotentem,
Creatorem caeli et terrae.
Et in Iesum Christum,
Filium eius unicum, Dominum nostrum,
qui conceptus est de Spiritu Sancto,
natus ex Maria Virgine,
passus sub Pontio Pilato,
crucifixus, mortuus, et sepultus,
descendit ad inferos, tertia die resurrexit a mortuis,
ascendit ad caelos,
sedet ad dexteram Dei Patris omnipotentis,
inde venturus est iudicare vivos et mortuos.
Credo in Spiritum Sanctum,

sanctam Ecclesiam catholicam,
sanctorum communionem,
remissionem peccatorum,
carnis resurrectionem et vitam aeternam.
Amen.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사후 예배중에 읽혀 졌으며 회중들에게 선교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설교후에는 합심기도가 이루어 졌고 주기도는 송영과 함께 드려졌습니다 기도는 성도 뿐만 아니라 네로와 도미시안 황제를 위해서도 간절히 드려졌던 것입니다 찬송은 주께서 새 언약의 지표로서 성만찬을 드시고 부르셨으며 바울도 교회를 향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찬양을 드릴 것을 명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시몬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사가랴의 노래, 베드로의 노래 등 신약성경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은 세례와 성찬전에 드려졌고, 성찬 후에는 친밀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예찬은 주후 153년경, 저스틴(Justin)에 와서 성찬과 분리되어 예배의 일부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스틴은 성만찬을 "문답을 거쳐 세례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푼 뒤에 우리는 그 형제를 회중앞으로 인도한 다음 그와 전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기도를 한 후에 우리는 서로 입맞춘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어 회중의 인도자는 떡과 물탄 포도주를 들고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의참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찬송과 기도를 드립니다 회중은 이 기도 에 "이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뜻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결한 의식을 성찬(Eucharist)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찬은 가르친 바를 믿지 않는 자가 참여 할 수 없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사는 자라야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예배는 오늘날과 같이 형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무질서한 예배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신령과 진정이 강조되는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장소도 부족하고 여러 시설면에서 원시적이기 까지한 초대교회의 예배에는 좋은 시설과 문화와 혜택은 없지만 사랑이 넘치는 예배였으며 오직 하나님을 신앙하는 확고한 믿음의 예배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최첨단의 시설이 동원되고 냉난방이 잘되어 있어 사시사철 언제 어디서나 교회를 만날 수 있지만 정작 사랑은 부족하고 결핍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짚어 보고 회개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예배의식의 순서와 배열은 개체 교회의 권위로 작성하는 것이지만 그 기본적인 양식과 규정이 있습니다. 찬양의 시간과 회수는 정해진 것은 아니며 대표기도는 하나님의 영광, 감사, 자복과 회개, 기도와 간구,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등으로 하여 3~4분 내외로 하여 합니다. 보통의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예배는 그것을 규정하기가 쉽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주일낮예배와 저녁예배(오후예배), 그리고 수요일저녁예배를 3대 공적예배라고 하여 모든 성도들이 참석해야 할 예배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5대 예배는 3대예배에 더하여 금요심야 기도회와 주일 새벽기도회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 사도신경(신앙고백)과 십계명
2. 기도(사도행전6:4, 디모데전서2:1),
3. 찬송(골로새서3:16, 시편9:11, 에베소서5:19),
4. 성경봉독(사도행전15:21, 누가복음4:16~17),
5. 성경해석과 설교(디도서1:9, 사도행전9:20, 10:42, 누가복음24:47, 디모데후서4:2),
6. 세례(마태복음28:19~20, 마가복음16:15~16),
7. 성찬(고린도전서11:23~28),
8. 금식과 감사(누가복음5:35, 빌립보서4:6, 디모데전서2:1, 시편50:14, 95:2),
9. 성경문답(히브리서5:12, 디모데후서3:14~17)
10. 헌금(사도행전11:27~30, 고린도전서16:1~4, 갈라디아서2:10, 6:6)
11. 권징(히브리서13:7, 데살로니가전서15:12~13, 고린도전서5:4~5, 디모데전서1:20, 5:12)
12. 축복(고린도후서13:13, 에베소서1:20)과 주기도문

21. 안식일(Sabbath)과 주일(Lord's Day)

1) 안식일(Sabbath)

안식일(安息日, שבת)은 "일을 쉬다", "중지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 사바트에서 유래된 말로 한 주의 7일 중 마지막날로서, 안식일의 제정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고 제 7일에 안식하신 일을 기록한 창조의 기사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창세기2:1)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 7일은 쉬되 모든 사생활을 일절 중지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창세기2:1~3, 출애굽기16:23~29, 20:8~11)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안식하고 성회로 지켜야 할 것을 명하셨는데 이에 따라 히브리인들은 1주의 마지막 제 7일인 토요일, 즉 금요일 해질때부터 토요일 해질때 까지를 안식일로 지켜왔습니다(레위기23:3, 마태복음12:9~10)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와 그것을 어기면 죽음의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다짐시켰습니다(민수기15:32~36, 이사야56:2~5)

안식일에 금해야 할 일에 대한 법제화가 신약계시의 종결시점과 중간기 시작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법제화는 그 속에 무엇을 담고 무엇을 빼는 과정에서 오류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즉, 안식일의 기원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안식의 모델을 기념하는 것을 깊이있게 담아 내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떠한 도형과 정형화 된 것으로 일치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도형과 정형화된 문구에 "쉬고, 아무것도 하지말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라는 네가지 유형의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쉬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기도하고 예배는 드린다" 는 규정은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게 되었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의 인내와 훈련으로 적용하며 지켜야 할 규정으로 엄격화 시킨 것이었으며, 이것이 심리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부여함으로서 육체적 습관화는 될 수 있어도 마음까지는 움직이지 못하게 한 오류가 된 것이었습니다

즉,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관습과 습관이 얼마나 악하게 변하는가 하는 문제를 간과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에 관습적으로 회당에 나갔지만 이 엄격한 규정에 반대하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께서 뜻하신것보다 더욱 엄격하다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안식

일을 제정하신 것이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2:27) 안식일에 선을 행하거나 치료하거나, 필요하다면 배고픈 사람이 곡식 이삭을 따서 손으로 껍질을 벗겨 먹는 일은 안식일을 어긴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5:1~18)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안식일을 문자적, 습관적으로 지키는데 착념했을 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본래의 의미를 망각하게 되었습니다(창세기2:2~3, 신명기 5:12~15) 그들은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선을 도모하기 보다는 단지 "무엇을 하지 않는 날"이라는 소극적 측면의 안식일을 강조하고 준수하며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안식일에는 불 피우는 것을 위시한 모든 것들이 금지되었습니다(출애굽기35:3) 이렇듯 대부분의 유대인이었던 초대 교인들은 안식일을 계속해서 쉬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에 대하여 제사 형식으로 양을 잡는 등의 방식으로 지켜 졌으며(민수가28:9),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곱째 날인 안식일(토요일)에 성경을 보는 예배 형식을 취함으로(누가복음4:16), 그의 제자들이 이 방식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사도행전16:13, 17:2, 18:4)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구원을 주는 거룩하고 선한 일을 장려하였습니다 이 안식일은 사도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 주의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발전하였습니다(사도행전2:1, 고린도전서16:1~2) 이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안식의 모형으로서 비록 그 지키는 날이 주일로 변환 되었지만 그 정신은 오는 세대에 계속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히브리서4:9)

2) 주일(Lord's Day)

안식과 예배를 위해서 드러진 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 주 중 첫날을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요한계시록1:10) 이 날은 날을 지키는 점에서 여섯 번째 날 혹은 안식일과 뚜렷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월,화,수,목,금,토,일 등 모든 날이 동일한 까닭에 모든 날이 다 거룩하다고 볼수도 있습니다(로마서14:5~6)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의 중요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과 거룩한 기념에 있는 것입니다

주일의 성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 날은 일체의 육체적 사업, 즉, 세상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정지하고 성경 말씀의 교훈에 따라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공동회집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기

본적인 의무이되 유대인의 안식일 처럼 습관화 정형화 도형화 되어서는 않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관한 신약시대의 근원도 십계명의 제 4계명에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되 본인은 물론 가족과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의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휴식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도 그 날에 쉼으로서 그것의 당연성을 교훈하고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 자신으로 부터 모든 사람들에 이르기 까지 적용되는 절대적 가치가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그 날에 모여 함께 떡을 떼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사도행전20:7) 예수 그리스도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기계적 의식주의로 이해하는 오랜 습성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의 안식일 주의(Sabbatharianism)를 비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오래동안 안식일과 주일을 각각 예배드리는 날로 함께 지켰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고수하려는 유대인들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선택적 결과였습니다

예배일을 안식일에서 주일로 옮긴 것은 복음의 성격 자체에서 가르침을 받은 초대 교회의 결행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며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인 주일을 구속사업의 완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날을 예배일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두니아(Bithynia)지방 총독 플리니(Pliny)가 주후 110년경에 황제에게 보낸 서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저스틴도 주일에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초대교회의 보편화된 사실인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회는 주일을 예배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의 거룩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도, 묵상, 찬송, 성경연구, 공식예배 참석, 전도활동, 구제사업, 환우심방, 교인 심방 등 교회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새벽기도회로 부터 시작하여 주일 오전예배, 그리고 각종 기관 활동과 세대별 학습과 지원활동, 성경공부, 교인심방, 경조지원, 주일밤예배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과 범위가 교회를 중심으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22. 이단(異端), 그노시스학파(Gnosticism)

그노시스학파(Gnosticism)는 바울 교리를 배척하고 오랜 전통의 할례를 금하며, 안식일과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철저히 지키고,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며, 인성을 주장하는 에비온파(Ebionites)와 예수는 아담이 다시 사람이 되어 나왔고, 앞으로도 다시 육신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엘카이파(Elkesai)와 함께 대표적인 유대교적 이단이었습니다

그노시스학파(Gnosticism)는 주후 1~2세기경 헬레니즘 시대에 로마, 그리스, 소아시아, 이집트 등 지중해 동해안 지역을 따라 널리 형성되어 있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노시스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인식, 앎, 지식, 깨달음"으로 번역되며 헬라어로 "영지" 또는 "지식"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적 주지주의를 주창하고 이성 편중에 기독교적 신앙지식 이상의 신비적이고 고차원적인 신앙지식에 도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태도는 신앙의 실체를 벗어나 괴변에 빠지고 그 결과 그리스 철학 및 동양의 세계관과 기독교의 혼합이 생겨나 순수하고 소박한 신앙심을 현혹시켰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술사 "시몬"이 처음이었으며 2세기의 "사토르닐로스"(Saturnilos), "바실리데스"(Basilides), 3세기의 "발렌티누스"(Valentinus)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창조주와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구별하여 전자를 "데미우르고스"(제작자)라는 하급신으로 분류하였으며 또 우주가 이 하급신에 의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영과 물질을 이원적으로 대립시켜 그리스도가 취한 육신은 가상의 육신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가현설"(Docetism)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영의 힘으로 육체를 벗어나 영적 변화하는데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정통기독교로 부터 배척되어 3세기 이후로는 쇠퇴하였던 것입니다.

그노시스파들은 우주의 기원과 죄악의 기원의 문제를 중요시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철학적이고 사색적으로 해석하려는 헬라철학과 신플라톤주의를 접목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권을 인정하면서 현존세계의 모순을 설명하려는 노력에 주관적인 견해가 항상 들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이단적인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운동은 여러 사상의 혼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주장이 지역과 사람에 따라 차이가 생겨났습니다.

저스틴(Justin)의 변증서에 의하면 신약의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마술사 시몬은 세례를 받고도 끝내 그노시스 이단으로 전락하였다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

을 스스로 신으로 격상시키고 여제자 헬레나(Helena)를 여신으로 봉하였으며, 제자 메안더를 통하여 사마리아지역에서 전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헬레나를 통하여 천사들이 생기고 천사들을 통하여 세계가 지음을 받았다고 역지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몬의 주장은 시리아와 베니게의 신화에서 근거하고 있으며 후에 복잡한 천사론과 점성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몬의 철학을 두고 이레니우스는 그노시스파의 시조라고 하였습니다.

시몬과 메안더의 제자이며 시리아 그노시스파의 창시자인 "사토르닐로스"(Saturnilos)는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아버지로서 천사장들과 권세자들과 주관자를 만들었으며, 이 세상은 일급 천사에 의해 만들어 졌고 사람도 천사의 피조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은 자비와 생명의 빛을 받아 서서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천사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러 왔으며 예수의 몸은 육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양만 갖춘 것으로 결혼과 육식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구원은 예수의 빛을 받아 금욕하는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노시스파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타티안"(Tatian)은 저스틴의 제자로서 기독교를 위한 변증서를 저술하기도 하였는데 주후 165년 시리아의 그노시스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디아테사론"이란 책을 저술하여 그의 새로운 사상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사복음서를 단일복음서로 개편하였으며 탈 유대주의를 시도하였고 예수의 족보나 유대적 배경을 삭제하고 극단적 금욕주의를 옹호하였습니다. 또한 결혼과 육식을 배격하고 성찬의 포도주를 물로 대신하였으며 구약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를 부인하였습니다. 디아테사론은 5세기경까지 시리아를 배경으로 널리 애독되었으며 시리아 교회의 변질을 가져오게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주후 133년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며 범신론을 주장하는 "바실리데스"(Basilides)가 그노시스파의 종교적 지도자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제 1신은 무(無)의 존재로서 무(無)에서 유(有)가 생기는데 이것이 우주의 창조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것을 하나의 발전적 철학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주의 씨를 낳고 이 씨는 세아들을 낳게 되는데 영적인 것, 궁창같은 비 물질적인 것, 물질과 결부된 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여 로마와 애굽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대표적인 그노시스파인 "발렌티누스"(Valentinus)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하다 135~160년까지 로마에서 활동하며 기독교 지성인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가지 즉, 물질과 정신, 그리고 영적인 것에 관한

논리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천지의 근원을 "깊음"이라고 하였으며 이 "깊음" 과 함께 "고요함" 이 있어 이 두가지가 영원한 음양관계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음과 진리가 나오며 말씀과 생명이 나와서 사람과 교회가 시작되는데 이러한 생성과정에서 완전한 숫자인 열개의 "이언"(Aeon) 을 낳으며, 이 가운데 마지막 이언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이언이 알 수 없는 아버지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플레로마"(Pleroma) 세계에서 분리되어 방황하다가 낙태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생긴 것이 물질 세계이며 이 물질세계를 지은자가 "데미우르고스"(Demiurgos) 로 구약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과 진리는 이러한 타락에서 건지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냈다고 주장하며 구원이란 인간을 물질세계에서 구출하여 "플레로마"(Pleroma) 세계로 옮겨 영적인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등의 복잡한 이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미 기독교 이전의 유대교에서 그 형태를 볼 수 있는 그노시스 사상은 이원론적 우주관 아래 동방의 종교사상과 이교철학, 그리스신화, 점성학 등의 내용이 기독교 교리와 무분별하게 혼합된 것으로 참된 인식과 깨달음을 강조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매력을 주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그노시스주의는 오래동안 교회 내부 깊숙히 뿌리를 내릴 수 있었고 때로는 진위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혼선을 가져 오기도 하였습니다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요한복음의 인용이라든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나 테오필루스 등의 "그리스도인은 참된 지식, 즉, 그노시스를 지닌 사람들이다" 라는 설명이 단적인 예로 정통주의 입장에서 거짓 그노시스를 구분하기란 결코 쉬운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그노시스파가 이단으로 탈선하게 된 것은 "이레나이우스" 등의 교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세상과 역사, 그리고 물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인 예수의 강생 그 자체와 의미를 부인하고 그 역사적 사실과 함께 인성을 취한 구원의 방법을 송두리째 부정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단사상의 난립과 생성으로 말미암아 정통신학의 체계화와 논리적 정리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고 신학적 성장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듯이 그노시스파에는 중요한 다섯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원론, 도케니즘, 유출설, 반유대주의, 영지주의로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성도들에게 매력적인 유혹이 될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1) 이원론

나스티시즘 체계들은 대체로 그 성격이 전형적인 이원론으로서, 나스틱파들은 세상이 두 개의 근본 원리 또는 실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견해를 가졌거나, 또는, 두 개의 근본 원리 또는 실체를 통해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스 조나스(Hans Jonas: 1903-1993, 독일 철학자 및 나스티시즘 연구가)는 "나스틱 사상의 주요한 특징은 (두 개의 근본 원리 또는 실체가) 신과 세상의 관계를 지배하고, 따라서 (두 개의 근본 원리 또는 실체가) 인간과 세상의 관계를 지배한다는 급진적 이원론(radical dualism)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원론이 '세상은 두 개의 근본 원리 또는 실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견해' 또는 '두 개의 근본 원리 또는 실체를 통해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견해'라는 정의 하에서 살펴볼 때, 나스틱파들이 가졌던 교의 체계들은 마니교의 '급진적 이원론(radical dualism)'으로부터 고전 나스틱 운동의 '완화된 이원론(mitigated dualism)'에 이르기까지 이원론의 전 영역을 혼합하고 있었습니다. 발렌티누스주의는 일원론에 근접하였으며 그 용어들은 이원론에서 사용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물질계와 영계를 분리하고 물질을 죄악시 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데미우르고스를 나누어 하나님은 영계를 다스리고 데미우르고스는 물질계를 다스린다는 식의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류의 근원적 문제는 성경을 중심으로 학습하려 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철학에 의지한 연유인 것입니다.

2) 도케니즘(Docetism)

예수의 인성과 육체탄생을 부인하고 가상의 육체를 주장하는 등의 가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유출설

최고 존재인 하나님으로 부터 유출해서 이언(Aeon)들이 생기고 그것은 플레로마(Pleroma)에서 살게 되는 데 이 가운데 가장 타락한 존재가 데미우르고스로 이어서 물질세계가 만들어 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적 요소들이 전혀 다른 이단을 생성케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4) 반 유대교주의

유대교를 사탄의 종교로 규정하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5) 영지주의

나스티시즘(Gnosticism, 영지주의, 그노시즘; γνῶσις, gnōsis, 그노시스, 지식, knowledge)은 고대에 존재하였던 혼합주의적 종교 운동들 중의 하나입니다. '나스틱(Gnostic, 영지주의자)' 또는 '나스틱파(Gnostics, 그노시스파)'는 이 종교 운동의 반대자들이 만든 이름이었으며, 이 종교 운동의 분파들 중 기독교 계통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을 기독교인들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나스티시즘(Gnosticism)'이라는 사상은 이 종교 운동을 가리키기 위해 현대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특정한 한 형태로 전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스티시즘은 다양한 신앙체계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나스티시즘의 제 분파들은 다음과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체로 일치하였습니다.

물질우주는 데미어지(demiurge)라고 부르는 불완전한 신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물질우주를 창조할 때 데미어지는 최고의 신 스피릿(spirit = 뉴마 = pneuma = 숨)의 일부를 사용하여 물질우주를 창조하였습니다. 데미어지는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의 신, 즉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한 신으로 분류되지만 히브리서의 견해와는 전혀 상반되는 것입니다. 데미어지는 플레로마(Pleroma = 빛의 세계)나 신성과 같은 상위의 세계 또는 존재와 대비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식을 통하여 물질의 구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6) 이언(Aeon)

많은 나스티시즘 체계들에서 이언들(aeons)은 지고한 신의 다양한 발출물입니다. 지고한 신은 다른 이름으로 하나인 존재(One), 모나드(Monad), 아이온 텔레오스(Aion teleos, 완전한 이언), 바이토스(Bythos, 심연, 심원한 존재), 프로아르케(Proarkhe, 태초 이전의 존재), 에 아르케(E Arkhe, 태초의 존재), 빛의 에노이아(Ennoia of the Light, 빛의 생각), 시게(Sige, 침묵) 등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 최초의 존재는 또한 하나의 이언이며, 이 최초의 존재로부터 일련의 다른 발출물들이 생성하는데 몇몇 나스틱 문헌들에 따르면, 제일 첫째 발출물은 양성일체(兩性一體)인 바르벨로(Barbelo)입니다. 그리고 바르벨로로부터 하위 이언들의 쌍들이 발출되며, 이 이언들의 쌍들은 시즈지들(syzygies)이라 불리는 남성-여성의 쌍으로

발출됩니다 이들 시즈지들의 숫자는 문헌들에 따라 서로 다르나 몇몇 문헌들은 이 시즈지들의 총 개수가 15쌍, 즉 30인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언들의 전체는 플레로마, 즉 "빛의 세계(region of light)"를 구성하며, 플레로마의 가장 하급의 지역들이 어둠(darkness), 즉 물질세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세계입니다

가장 흔히 쌍을 이루는 이언들 중에는 예수(Jesus)와 소피아(Sophia, 지혜, Wisdom)의 쌍이 있습니다 《발렌티누스파의 주해서(A Valentinian Exposition)》에서 소피아는 예수를 자신의 '배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의 배우자 없이 어떤 존재를 발출한 결과 데미어지(Demiurge, 문자 그대로는 "공공 작업자"를 의미한다)를 낳게 되었습니다 데미어지는 알다바오트(Yaldabaoth) 또는 이와 비슷한 다른 이름들로 몇몇 나스틱 문헌들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데미어지가 발출된 후 소피아는 데미어지를 플레로마밖으로 숨기게 되고, 그 후 데미어지는 플레로마 밖에서 혼자 있으면서 혼자 생각하면서 있다가, 물질 세상과 자신의 동료 지배자들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료 일꾼들을 아르콘들(archons)이라 하며 데미어지는 인간을 창조하였는데, 인간을 창조할 때 소피아로부터 훔쳐 온 플레로마의 요소를 인체속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이에, 지고한 신은 두 명의 구세주 이언들인 크라이스트(Christ)와 성령(Holy Spirit)을 발출하였으며, 이 때 크라이스트는 예수의 형상으로 화신하였는데 그 목적은 사람들에게 그노시스를 성취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그 결과 플레로마로 되돌아올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23. 로마제국과 유대교의 관계

기독교 최초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고난과 투쟁의 연속적 수난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주전 4세기경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패망시킴으로서 로마제국이 팔레스타인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은 헬레니즘 이념위에 기초하고 있었으며 헬라문명으로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가 정복한 지역들은 대부분 헬라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헬라적 이념은 서로 다른 국가들의 신들을 동일시 하여 혼합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모든 신들은 다 같은 것이라는 범신론적 논리를 적용하였습니다. 헤롯왕은 특히 헬라화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노력에 대항하였으며 그 결과 주후 70년경 헤롯의 아들 아켈레우스에 의해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대인(히브리어: יהודי Yehudi) 또는 유태인(猶太人, 영어: The Jews, Jewish people)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유대교인을 말하는 것이며, 민족적으로는 고대 히브리민족의 후예가 되는 구약성경에 기반을 둔 민족입니다.

구약성경에 의하면 고대 이스라엘인은 아브라함의 후예로 가나안 땅에서 사울왕을 초대왕으로 추대하여 히브리왕국을 창건하였습니다. 2대 다윗왕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왕국의 오랜 수도로 삼았으며, 3대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에 그들이 소망하던 유대교의 대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사후에 가혹한 부역활동에 대한 반향으로 반란이 일어나,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왕국으로 분열되었으며, 북이스라엘은 주전 8세기경 앗시리아의 살마네세르 5세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주전 6세기경, 신(新)바벨로니아에 멸망당하였습니다.

유다의 엘리트들은 바빌론의 포로가 되지만 이후 바빌로니아가 벨사살을 암살한 다리우스가 세운 페르시아에 망한 뒤 그중 일부가 유다 땅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유대인의 명목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 유대인들의 땅은 페르시아제국이 알렉산드로스에게 정복당한후 시리아 지역에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승계 셀레우코스(Seleucid) 왕조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탈바꿈하려 하자 유대교 정통파들은 마카베 가문(Maccabees)의 지도로 반란을 일으켜 독립된 유대인 왕국을 세웠는데 당시 에피파네스 왕조의 반유대주의 및 마카베오 가문의 반란은 구약성경의 외경인 마카베오 전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카베오 가문의 반란으로 세워진 왕조를 하스몬왕조(Hasmonaean Dynasty)라 하는데 주전 165년에서 63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63년 거대한 로마제국의

유다이아(Judaea) 주로 편입됨으로서 유대인들은 로마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주후66년경, 유대인들은 총독과 세리를 통해 자신들을 탄압하고 수탈하는 로마 제국에 대해 제1차유대-로마전쟁을 일으켜 저항하였으나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는 이를 철저히 진압하고 성전을 파괴하여 유린하였으나,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도시대의 전도자들은 대부분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 힘썼던 사도 바울 역시 항상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으로는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밖으로는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투쟁하였습니다

주후 70년 성전이 파괴된 후로 유대인들은 성전의 대안으로 회당을 구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바벨론 포로시대부터 민족적 비상시에 해오던 모임으로 수세대를 걸쳐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주관하던 성전이 무너지고 바리새인들이 관여하는 회당이 민족적 구심점으로 등장하자 그곳으로 복음전파의 접촉점을 삼으려던 사도들의 선교정책도 새로운 국면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로마 정부에 대한 유대인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반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으며, 이에 따라 로마 정부와의 충돌현상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알렉산드리아, 가이사라, 안디옥 등지에서 유대인들의 배척운동이 일어났으며 로마에서도 감정은 격화되어 갔습니다 단적인 예로 헤롯 아그립바(Herod Argippa2)의 여동생 베레니스(Berenice가 유대인과의 혈연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결혼을 파기한 디도(Titus) 왕자의 결정에서 악화일로에 있는 양측관계를 짐작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이 반 유대감정은 그 출발이 로마 정부의 유대정책의결과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즉, 로마가 유대를 점령한 후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로마 치하의 유대인 가운데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예외없이 반 세겔에 해당하는 세금을 매년 납부해야 했습니다 세금징수의 목적은 예루살렘 성전의 유지와 제사장들의 사례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종교적 사유로만 집행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세금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도 계속 부과되었으며, 더 나아가 로마의 캐피토린 언덕에 세워진 주피터 신전을 위해 부과된 헬레니즘화를 위한 세금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을 자극하는 발단이 되었습니다

주후 81~96년까지 계속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는 황제에 대한 예배에 대한

불복이 도화선이 되어, 기독교도 때문에 로마의 모든 신이 진노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무차별적인 박해를 가하였던 것입니다. 그 때에 박해를 피하여 지하무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카타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당국자들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교 신자와 기독교 신자를 구별하지 않는 새로운 박해, 즉, 무차별적 박해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박해속에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요한계시록이 작성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정부의 이러한 불법적인 처사는 한걸음 더 나아가 유대인들을 비롯한 유대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경건한 자들(God-fearers) 즉, 할례를 받은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세금을 부과하기에 이르는 등 박해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어 트라야누스 황제(주후97~117년)는 황제의 권위를 최극단까지 높여 황제앞에서 무릎꿇고 경배하기를 강요하고 유대인들을 무조건 죄인 취급했으며, 뒤를 이은 하드리아누스 황제(주후117~138년)는 117년에 칙령을 내려 할례와 안식일을 금지하고 회당에서 율법낭독을 금지시킴으로서 박해의 강도를 한 층더 높여갔습니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 성전 터위에 주피터 신전을 세워 유대교 말살정책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오랜 박해에 대항하여 주후 132년에 메시아로 자처한 발코크바(Bar Kokhba)가 주도하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구약이 예언한 별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주장하며 구레네와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사람들을 규합하여 반군을 조직하였습니다. 발코크바의 추종자들은 기독교인들이 반란에 참여하기는 커녕 발코크바를 이단으로 규정하자 로마에 대항하는 가운데 기독교인들까지도 함께 박해를 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란은 3년을 넘기지 못했고 주후 135년 로마군의 대반격에 의해 50여만명이 희생되는 대학살 끝에 항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일로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예루살렘을 로마의 도시로 재건하고 유대인들의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교회의 설립마저 금지시킨 것은 아니었으며 이방인 교회의 설립을 허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루살렘의 교회들은 이방인들이 감독이 되어 다스렸고 로마의 간섭없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소수의 유대인들은 이방중심의 교회에 서서히 동화되어갔고 로마의 평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유다이아 땅의 유대인들은 대다수 노예로 팔리거나 로마의 시민으로 동화되었으며,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것을 두고 "디아스포라" 라고 칭하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유대인들 상당수는 헬레니즘 및 로마 시대에 알렉산드리아와 소아시아 등지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 살았으며 이슬람교가 성장하면서 일부는 인도와 중국에 까지 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유대인 중 일부는 지중해 연안 외의 지역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의 후손인데 하자르인(Khazars), 에돔인(Edomites), 에티오피아인, 아랍인 등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일이 흔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로 부터 수난을 당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고, 직업과 거주지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하였습니다. 일반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유대인들은,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인정하지 않던 금융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여 오늘날 정치,경제적으로 거부가 되는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방중심의 교회와는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려 하였고 그들의 순수한 복음도 변질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탈복음화 경향은 여러개의 소집단으로 분열되었으며 그 특색에 따라 엘 케사이 파(Ei Kesaites)와 에비온 파(Ebionites) 등 특이한 종파 운동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24. 이단(異端), 모나키안주의(主義)(Monarchianism)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하여 조직적인 신학체계를 갖추지 못한 초대교회에 그리스도론에 대한 이론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 그저 머물러 있다고 믿는 경향과 그는 영원전으로 부터 하나님으로 부터 존재 하였다고 믿는 경향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저스틴은 "트리포와의 대화"(Dialogue with Trypho) 에서 예수께서 세례받으신 일과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 으로서의 예수에 대한 조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주후 2세기에 접어들면서 이 문제는 한층 더 심도있게 연구되어 "삼위일체" 교리가 발달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삼위일체에 반대하는 이론으로 모나키안주의(Monarchianism)가 나타났으며 이 이론은 한분 하나님이라는 원칙에 있어서는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세부 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이내믹하게 그속에 머물 러 계신다는 다이내믹 모나키안주의(Dynamic Monarchianism)와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이신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이시나 모양만 다르게 나타나신 분으로 해석하는 양 태적(樣態的) 모나키안주의(Modalistic Monarchianism)로 양분되었습니다.

1) 다이내믹 모나키안주의(Dynamic Monarchianism)

1-1. 데오투도스(Theodotus)

비잔티움 출신인 데오투도스는 다이내믹 모나키안 주의를 주창한 대표적 인물로서 주후 190년 경 로마에서 자신의 주장을 널리 전파하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의 독특하고 특별한 동정녀 탄생을 신앙하였으나, 예수께서 세례를 받기까지는 우 리와 유사한 인간에 불과하였으며,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신 의 속성이 그에게 함께 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양자설 (Adoptionism)로 로마의 감독 빅토(Victor)에 의해 정죄되었습니다.

1-2. 사모사타의 바울(Paul of Samosata)

바울은 주후 260년에 안디옥의 감독이 된 후 교회를 치리하며, 여왕 제노비아 (Zenobia)의 신임을 얻어 그녀의 정치고문도 함께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사모사타 는 안디옥의 동북 유프라테스 강변에 위치한 팔미라(Palmyra) 왕국의 한 도시였습 니다. 주후 269년에 바울은 지방 총회에서 파면되었고, 272년 여왕의 퇴위로 정치 고문직에서도 해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메소포타미아, 아르메니아 등 지에서 영향을 끼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단일인격(Unipersonality) 을 주장하고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등 데오투도스와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습

니다 또한 로고스(Logos)는 모세와 선지자에게 계시된 분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기능일 뿐이며, 제 2의 인격을 가진 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단지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특별하고 비상한 정도로 머물러 역사하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양태적(樣態的) 모나키안주의(Modalistic Monarchianism)

양태적(樣態的) 모나키안주의(Modalistic Monarchianism)는 동방 에서 부신수고설(父神受苦說, Patripassionism)로, 서방에서는 사벨리우스(Sabellius)로 나타났습니다

2-1. 푸락세스(Praxeas)

푸락세스는 소아시아 교회 지도자로 주후 195년경,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로마를 방문하고 몬타너스파(Montanists)를 로마의 감독들이 거부하기를 역설했습니다 푸락세스(Praxeas)는 로마에서는 히포리투스(Hippolytus)와 논쟁하고, 카르타고에서는 터툴리안(Tertullian)과 대결하였습니다 터툴리안은 푸락세스를 "성령을 추방하고 성자를 십자가에 못박는 사람" 으로 비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락세스는 카르타고에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삼위일체를 일체의 삼현(三現)으로만 바라볼때 이러한 비판을 받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의 신격(神格)이 각각 다른 상태로 모양을 나타낸다" 는 주장은 삼위일체설과 유사한듯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혀 다른 주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2-2. 사벨리우스(Sabellius)

사벨리우스(Sabellius)는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주후 3세기 초에 로마에 가서 신학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는 푸락세스(Praxeas)설을 한 층더 발전시켜 성령에 관하여 더 자세한 설명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신수고설(父神受苦說, Patripassionism)에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사벨리우스는 성령에 대하여 아버지(성부하나님)와 비교하여 설명할 때에 섭리 영역을 담당하시는 신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초월하여 배후에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신격의 하나님을 모노스(Monos)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노스인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입법자이신 아버지로 나타나시고, 죄인을 구원하실때에는 구세주의 아들로 나타나시며, 또한 이것을 섭리하시며, 이행하시는 성령으로도 나타나신다고 주장하면서 이 모든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끝나면 본래의 모노스(Monos)로 다시 환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며 성령의 신성을 인정하였으나 예수의 인격을 부인하였으므로 교회의 회의에서 정죄되었습니다

25. 신앙고백서(사도신경)

사도신경(라틴어: Symbolum Apostolicum) 또는 사도신조는 기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12가지 신앙고백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하는 표준 기도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앙고백 즉, 사도신경은 12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신앙의 표준으로 작성하여 베드로가 로마에 가져갔다는 전설에 의하여 사도신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이라 하여 반드시 사도들이 적은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사도들의 신앙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신앙고백서에 대한 사도적 신뢰성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였던 사도들이 예수님 승천후, 유대교와의 구별성을 가질 필요를 절실히 느꼈고, 이것을 위하여 신앙의 표준을 작성할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보다 강조함으로써 유대교와의 직접적인 차별성과 구별성을 나타내었습니다.

초기 신앙고백은 당시 수세 후보자의 신앙고백으로 오래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오늘날의 신앙고백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리우스 등 이단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정통교리를 표시할 만한 문자를 넣어 주후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그 전문이 완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기본적인 골격은 주후 150년경, 로마에서 이루어졌으며 당시에는 신앙의 상징이라고 불렸습니다. 상징이란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당신 유행하고 있던 여러 이단들, 특히 영지주의자와 마르시온주의에 대항하여 진정한 신자들을 식별할 수 있는 증거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2세기경,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기로 결심한 세례 입문자들은 세례식 가운데 교회측의 일정한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자기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주로 신앙한다는 고백을 한 후에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며, 그 후에야 공식적인 기독교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약성경을 통해 볼때에 최초의 신앙고백은 몇마디 안되는 구절로 구성된 것으로 "예수님은 주시다"(Jesus is the Lord)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박성과 간결성이 곧 단순한 기독교론을 예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를 하나님에 대한 칭호로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최초의 기독교인들은 그 출생과 성장과정에 있어서 유대인들이었으며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유대교의 신앙을 이미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계시에 기초를 둔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요 주로서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은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그들의 세례식때 예수님을 "주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간단한

고백만으로도 기독교회의 공동체에 받아들이기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이교도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는 일변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서 다시 배워야 했을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가 곧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자연과 인간들을 심판하실 재판관이심을 또한 배우고 신앙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는 유대인이나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보다 세부적인 신앙고백을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조건들은 마태복음 28:19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종자들을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명령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유래는 2세기경 부터 세례식을 거행하면서 사용되었으며 그것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과 답변 형식의 내용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신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에 대한 신앙고백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그들이 전통적 신앙을 존중해 주는 양자적 측면이 고려된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고, 장차 죽은자와 산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분을 믿습니까?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다시 살아 날 것을 믿습니까?"

수세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관한 신앙고백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 세례를 위한 신앙고백이 점차 발전하여 360년 아리안 고백(Arian)에서 처음으로 "음부에 내려가사"가 첨부되었고 750년경에 정식으로 삽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루피누스(Rufinus)에 의하면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표현은 "장사 지낸바 되었다"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고 하였습니다.

샤프(Schaff)는 누가복음 23:43 에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한 말씀으로 보아 몸은 장사지낸 바 되었으나 영은 즉시 주의 나라에 갔으므로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 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 앞에는 "가톨릭(Catholic)"이라는 말이 650년 삽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키프리안이나 어거스틴이 사용한 신경에는 가톨릭이란 단어가 거룩한 교회앞에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도 650년 이후에 삽입되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은 어거스틴이 사용한 신경에 쓰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니케아 시대 이전의 교회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보충하여 세례문답과 이단교리를 구별하여 정통적 신앙고백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 사도신경의 12대 신앙고백서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I believe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He was conceived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born of the Virgin Mary.
He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He ascended into heaven
and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He will come again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기독교회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장통합 새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teth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2) 니케아 신경

니케아 신경 또는 니케아 신조(Symbolum Nicaenum)는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던 아리우스주의에 대항하여 고백한 초대교회의 신앙고백입니다 팔레스타인 기독교 공동체의 세례신경을 기초로 하여 '동질'이라는 용어를 보완한 가이사랴의 교회사학자 유세비오스의 신앙고백을 기준으로 공포되었습니다 이 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며, 특히 성자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며, 창조되지 않고 나시었다는 신앙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 부활 등 3대 지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는 피조물이라고 주장한 아리우스의 잘못된 교리에 대항한 초대교회의 신앙고백인 것입니다

이 신경은 서방교회(로마 가톨릭)와 동방정교회가 갈라지기 전에 함께 고백하던 신경이지만 로마 가톨릭에서는 나중에 성령이 성부로 부터 뿐만 아니라 성자에게서

부터도 나오신다고 고백하게 되는데,(일명 '필리오케'라고도 한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동서교회가 분열하게된 시발로 보고 있습니다 동방교회의 입장은 '헛갈리지 않게 애초부터 정한대로 하자'는 것이고, 로마 가톨릭 입장은 교리에 걸맞은 고백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미사때 니케아 신경을 그리스도교신앙을 고백하되 사도신경으로 대체할 수 도 있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3) 사도신경의 구성

3-1.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창세기로 부터 시작되는 성경말씀과 바로 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신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종교가운데 한분이신 다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세기, 즉 영원한 모든 것의 유일무이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특권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고백의 시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 1위이신 성부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심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경배의 고백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신경, 즉 신앙고백은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믿는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 사도신경은 "하나님 아버지" 라고 경배의 목적과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라는 존재가 왜 "하나님 아버지" 를 믿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그 사유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지창조의 섭리가운데 존재하는 "나" 라는 사람의 창조를 담아내고 있으며 이러한 분명한 역사적, 진리적사실을 신앙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신경의 머리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포함하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공간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 는 그 분의 행위와 목적과 삶에 관련된 아무런 지식을 공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황당한 과학적 사실을 한 점 의심하지 않고 역사적이고 섭리적인 진리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을 믿고 과학이 아닌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이미 세상의 어떠한 학문과 체계와 구성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살겠다는 다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3-2.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I believe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되, 성자 하나님이심과 구세주이며 메시아 이심을 신앙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에 이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을 나타내는 삼위일체의 두번째 중요한 교리를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동시대를 함께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결단이요 고백이 될 수 있으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

들이라"(마태복음16:16)는 고백을 선포함으로서 동시대에 피해 갈수 없는 명제요 중요한 진리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기도 어려운 과정이었습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우리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독생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라고 하는데 그 분도 하나님과 함께 동일하게 신앙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신앙하기 어려운 결단을 촉하는 기독교인의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는 신앙으로 고백하였으나,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적어도 기독교인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기독교인 인가? 아니면 기독교인이 아닌가? 하는 질문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결단하기 어려운 과제였습에도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질문을 결코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로 인정하는가? 아닌가? 하는 결단을 촉구하는 신앙고백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미래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3.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He was conceived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born of the Virgin Mary.
He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이것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역사적 진실과 진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형체로 오셨지만 죄인인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제 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질문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 주는 본질적인 가치로 되돌아 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없이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 와서 우리는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을 고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분이 성령으로 인하여 마리아의 몸을 빌려 잉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며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역사적 진실을 사실로 진리로 신앙하고 고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그 분이 오신 목적과 삶이 우리와 가장 밀접하

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의 출발점이에요 종착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인가? 그것은 죄성 때문이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완전하신 예수님이 태어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성령님을 통해 완전하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수반되는 피하고 싶은 잔이었지만 죄인인 인간에게는 그 같은 일이 필연을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과연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완성적인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로마정부와 유대인으로부터 가해진 법률상의 처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죄에 관한 오랜 과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통로로 우리곁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3-4.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시며, He descended into hell.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한 생을 마감하는 듯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과 그 분의 예언대로 3일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분의 오심과 그 분의 죽으심은 단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독교 중심의 신앙고백이 바로 사도 신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부활은 단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망과 부활은 죄에 대한 사망이요 의에 대한 부활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머물러 있는 죄성은 없어지고 소망의 의로움만 남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때문이었습니다. 그 분은 흠없는 완전한 분이였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분의 부활은 단지 그 분만의 부활로 종결되는 경이로운 역사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소망의 부활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분을 영접한다면, 그래서 그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입는다면 우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일시적 단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원성은 지옥의 형벌을 동반하는 영원성이 아니라 축복과 영광으로 주어지는 천국의 영원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부활이 아니라, 기독교인과 그 분을 신앙하는 모든 사람을 향한 위로와 평강인 것입니다.

3-5.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He ascended into heaven and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He will come again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어 승천하심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분의 무한한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신앙하는 것이며, 하나님 우편보좌는 이러한 영원한 가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하는 기본 바탕위에 이러한 수직적인 관계의 보좌가 아닌 동일성, 일체성의 보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부터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에 대한 심판자의 권위로 오신다는 역사적이고 종말적인 진리를 신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창조와 인류의 탄생, 그리고 인류의 타락과 종말과 세상의 종말, 그리고 심판에 이르기 까지 모든 세기와 역사와 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음을 신앙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은 그를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되지만 그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는 위험성과 공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하나의 종류가 아닙니다. 그 심판은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분류하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고, 지옥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모든 남은 곳입니다.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유대인

과 이방인에 대한 최후 통첩인 동시에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3-6. 성령을 믿사오며,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한 성취와 동시에, 삼위일체의 제 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3위는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분 이시되 그 위가 삼위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현재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곳에 머물러 계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분을 신앙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3-7.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거룩한 공회란 (The Holy Church 혹은 The Holy Catholic Church) 거룩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회"는 원래 holy church라고 표기했습니다 그후에 가톨릭을 첨부하여 holy catholic Church 를 라틴어 신경에 채용한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공회란 교회의 거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신조아래 기독교인은 세상과 구별된 삶과 실천이 필요하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것을 그 기초로 하고 있으며 또한 성령을 신앙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간위에 교회는 거룩하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속에 성도는 상호간에 교통하고 성령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통은 상호간에 질서와 평화와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소통이 아니라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거나 자기 주장과 소신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 한다면 거룩

한 교회와 성도의 교통은 일시에 무너지게 될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3-8.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죄를 사하여 주신다면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드시 신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굳게 신앙하고 결단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 앞서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또한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그것으로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단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되 지옥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천국에서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선택과 결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 가운데 특별히 택한 백성은 구원이라는 특권과 특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진리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고백은 단지 주문이 아닙니다 암송이 아니고 무감각적인 의사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자신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도신경의 의미를 달성하는 것이며 이것이 갖고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리와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앙의 표준으로서의 사도신경은 모든 기독교인의 신앙고백의 첫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수많은 표현과 엄숙함위에 있고 그것은 거룩을 향하고 있습니다 단지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 고백하는 주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되는 신앙인들이 매일 매일 그들의 삶속에서 고백하는 신앙의 징표인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사도신경의 내용과 구성은 또 다시 손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이고 본질적인 가치와 진리를 훼손하는 그 어떤 오류도 범하여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26. 신약성경의 형성사

1) 개요

신약성경(新約聖經)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을 그를 지지하고 신앙하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기독교의 모태를 이루는 경전입니다. 신약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예수님의 족보와 삶과 행적을 기록한 4대 복음서와, 사도들의 활동과 세계선교 사역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비롯하여,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여러 지역과 교회들에 보낸 서신서와 그리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묵시록인 요한계시록을 정통신학으로 인정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글들은 당시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사도들과 기독교인들이 서로 지역에 따른 언어 소통의 불편을 덜기 위한 수단으로 고대 그리스어의 방언의 일종인 코이네(koine, 공동)로 기록하였습니다.

신약 성서의 형태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로 사도행전을 제외한 다른 4대 복음서는 예수그리스도의 행적에 포커스를 맞추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기록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사도행전1:8)으로 부터 오순절성령사건과 베드로와 제자들과 사도바울의 세계선교를 향한 열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21권의 서신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는 성경중의 다이아몬드라고 일컬어질 만큼 가장 중요한 성경적, 교리적 핵심을 다루고 있으며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삶과 실천에 관한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는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으로 이것은 성경의 모든 미래와 지향점, 성경의 모든 질서와 가치를 마지막에 담은 결단을 촉구하는 메세지인 것입니다.

서신서들은 예수님의 사후에 기록한 것이며 교회와 교회내의 분쟁, 이단종파에 관한 문제해결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후 130년~180년경 전후로 전 세계의 신학자와 성직자들이 모여 오늘날의 성경이 이루어졌으며 이 때 발견된 수많은 문서와 서신서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성경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하였으며 그것은 4가지로 정의 되었습니다.

1. 사도가 직접 기록하거나 혹은 사도와 직접 만난 사람이 기록한 문서
2. 성령의 영감을 받아 쓰여진 문서
3. 다른 성경의 내용과 모순되는 사항이 없을 것
4. 믿음과 직제가 통합된 보편적인 정통교회(Catholic Church)에서 사용할 것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내부에서 조차 성령의 뜻에 의한 구별이 쉽지 않았고 수많은 문서들 가운데 옥석을 가리는 일에 논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경과 위경등을 두고 오늘날 기독교와 로마가톨릭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그것을 끝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분열되었습니다

초대 교회 때에도 구약성경의 하나님과 신약성경의 하나님은 서로 다르다면, 사복음서와 공관복음서만 성경으로 인정하거나, 사도 바울서신 외에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르키온주의(혹은 마르시온주의)도 있었습니다 신약성경에 비해 구약성경은 70인역이 주전 200년경에 확립되었고, 전체적으로도 주후 60년경에 구약성경의 정경 목록이 제정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외경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경과 외경을 제외한 다른 경전은 그 진실성이 의심스러운 경전들로 위경이라고 하였습니다 도마서(토마스의 편지)나 베드로복음이 여기에 속하는 것들로 내용의 구성과 적합성이 신뢰성이 없는 것들이 주류였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하는 교단과 교파는 다른 성경과 서적들을 탐닉하기도 하였는데 몰몬교와 조로아스터교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2) 신약성경의 형성사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약성경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를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신약성경 이전에 이미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구약성경을 토대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예수 께서도 구약성경을 여러곳에서 인용하셨으며 구약성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도 하였습니다

초기 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율법과 예언자들의 권위와 함께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제 1세기 기독교 시대를 통해 사도들의 증거는 단지 말로서 뿐만아니라 여러가지의 경우 서면으로 전달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가르쳐야 할 신도들과 함께 있을때에는 구두로 교훈을 베풀었으나 자기들이 직접 현장에 있지 못할때, 필요에 따라서는 서신에 의해 그들의 교훈을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그 일례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로마에 보낸 고린도전서와 로마서 등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제 1세기 60년대에는 바울이 작성한 몇개의 서신과 다른 사도들의 서신들이 여러 개인과 교회에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직후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서면으로 기록해야 할 필요가 그다지 시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애와 승리를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생존해 있어서 이를 직접 전해 주는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오순절로부터 약 30년이 가까워 지자 이러한 직접 목격자들이 점차로 희귀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로마 기독교인들은 베드로의 동역자이자 통역자였던 마가를 초대하여 베드로가 그의 설교이 주제로 삼았던 그리스도의 사역과 고난을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겨주도록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복음에 관한 마가의기록이 나타난 후, 의사이며 바울의 선교여행 동역자였던 누가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하여 기독교회의 역사를 그 시초로 부터 정확하고 질서있게 기록하기 시작하였으니 이것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2부의 역사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또한 시리아 지방에서도 이곳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들에 의해 보존된 몇가지 특징있는 소재들을 포함하면서도 이방인들이 설교에 특히 중점을 둔 복음서가 나타났는데 곧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들은 누구든지 이를 소유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개인들과 공동체들에 의해 소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약 성경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신약성경의 정경들은 몇세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그 형성을 보게 되었고 정경의 공식인준은 교회의 실제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들의 사후 복음에 대한 이해와 가치관에 따라 그노시스파와 마르시온파들의 이단적 주장이 나오는 등 진리를 헤치는 일련의 이단들이 등장함에 따라 정경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주후 140년경, 마르시온은 바울만을 유일한 사도적 권위를 소유한 자로 인정하고 바울주의 입장에서 신약성경을 편집하였습니다 이것이 신약정경 형성의 첫 시도로 보는 것입니다 정경(正經)이란 헬라어로 표준이란 뜻으로 마르시온의 정경편집은 교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구약성경과 복음서 및 사도들의 서신들이 예배중에 읽혀지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때로 가경(假經)들도 소개됨에 따라 성경의 정경이 확정되기를 소망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핍박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성문서들이 유실되었고 일부분만 보관하게된 교회의 지도자들은 신약성경의 편집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편집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주후 170~180년경,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측되며, 1740년 이탈리아 무라토리(Murator)가 밀란의 도서관에서 발견한 것으로 그의 이름을 따라 무라토리 경전(Muratorian Canon)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무라토리 경전에는 4복음서, 야고보서, 사도행전, 바울의 13서신, 히브리서, 베드로 전서, 요한1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2세기말, 이레니우스의 신약성경에는 4복음서, 바울의 13서신, 사도행전, 요한 1서, 요한 2서,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헤르마스의 목자서신(후에 경전에서 제외됨) 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2세기경의 경전의 기준은 사도성, 참교리, 광범위한 유포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3세기에 와서 오리게네스(주후 254년경 사망)는 신약성경의 날권을 논란의 유무에 따라 분류하여 가짜(notha)와 성서(Scripture)와 경전(Bible)으로 분류하였습니다.

4세기경, 유세비우스는 당시에 경전에 된 책의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그것은 4복음서, 히브리서, 바울의 14서신, 요한 1서, 베드로전서와 논란이 있었지만 교회내에서 읽혀졌던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후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등 27권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의 결정은 주후 382년, 동방교회가 로마 전체회의에서 정경 목록을 작성하고 395년 칼타고 회의에서 27권 전권과 목차가 확정되었습니다.

캐논(Canon)은 희랍어로 "곧은 장대", "지팡이" 라는 뜻으로 표준, 근본원리를 기록한 책의 목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약성경의 정경에 관한 결정 기준은 역사적으로 사도적인 권위가 있는가 하는 문제와 영적으로 그 감화력이 사도들의 것과 동일한 가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1. 정경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그 문서들이 사도적인가 하는 관점이었습니다. 즉, 사도 자신이 기록한 것이거나 사도의 동역자가 쓴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동역자로서 마가의 서신이 포함된 사례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등의 결정이 늦어진 것은 그 문서들이 사도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판단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례로 바나바서, 헬마스의 목양자, 클레멘트 서신, 솔로몬의 지혜 등이 사도적 권위의 결여로 제외된 것입니다.

2. 사도 이후 300여년간 많은 성경책들은 정경의 인준도 없이 초대교회에 널리 유포되었고 회람식으로 읽혀졌습니다. 이렇게 읽혀졌던 성경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고 받아들여 졌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교회 회의 인준으로 정경화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경으로 읽혀 내려온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경으로 인정한 절차를 거친 것 뿐이었습니다.

3. 동방교회에서는 주후 367년, 아다나시우스(Athanasius)의 공적 서신에서 처음으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을 정경으로 밝힌 바 있으며 "사도들의 교훈"(Didache) 과 "목양자" (Shepherd) 는 정경과 구별하여 성문서로 취급하였습니다. 이로서 382년 로마 전체회의에서 정경 목록을 작성하고 395년 칼타고 회의에서 신

약성경 27권과 목차가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서방교회도 397년, 어거스틴의 주도로 오늘날의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4. 이러한 신구약성경의 확정에 있어서 당시 많은 이단자들에 의해 유사한 경전들이 만들어지고 사용되었으나 그들의 결국은 거짓으로 판명되고 얼마가지 않아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유다복음서와 같은 이단서들이 일시적으로 논쟁되고 있으나 그러한 저급한 책들은 당시에 이미 존재하였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무가치한 논쟁인 것입니다

3) 신약성경 목록과 주제

(1)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주후 50~70년경, 세관원 출신 마태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행적을 기록한 신약성경 첫번째 경전입니다 마태복음의 헬라어 본문에는 "카타 마타이온" (마태에 의한)이란 표제어가 있었습니다 그후 기쁜소식, 즉 복음이라는 뜻의 "유앙겔리온"을 첨부하여 마태복음이라 칭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통일성과 보편성을 강조하여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을 하나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에 관한 많은 자료를 수록하였고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기독교의 정통성과 혈통성을 이어나갔습니다

복음서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연대적 일정과 시간순으로 정리한 전기 (Bigoraphy)나 어록(Analects)이 아닌 것입니다 후대인들에게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과 신앙고백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기자들이 특별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입니다

(2)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주후 67~70년경, 베드로의 제자이면서 통역자인 마가에 의해 기록한 신약성경 두번째 경전입니다 마가복음의 기자인 마가는 예수의 생애와 교훈을 잘 알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핵심인물로서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의 지리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주후 64~69년경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생애를 밝힘으로서 시험을 극복할 힘을 주며,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로마인들의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록했을 것입니다

힘있고 선명한 문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보다는 사역중심으로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는 그 순간 까지 죄인들을 위해 사역 하심을 부각시켜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천국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에 반하는 유대지도자들의 격한 상황을 고난과 시련으로 진전되는 상황을 상당부분 기록하고 있으며, 그러한 가운데 본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종으로서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3)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주후 58~63년경, 바울의 사랑받는 의원(골로새서4:14) 누가에 의해 기록된 신약성경 세번째 경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한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로 대표되는 지성적 이방인들에게 완전하고 유일한 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이방인들에게 구원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교훈을 쉽게 이해하도록 역사적 주체성과 문학적인 우수성을 지니며 역사적인 순서와 배열로 정리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수태고지(受胎告知), 탄생과 유아기, 세례요한의 출현등을 소개하며 완전한 인성을 지닌 예수를 역사적인 순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독자로 하는 누가복음의 목적과 사상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인간적 고뇌와 절대적 구원관속에 그들이 결단해야 할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4)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주후 85~90년경, 갈릴리 어부출신(누가복음5:10)으로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이며, 야고보 사도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인물인 요한(사도행전3:1)이 기록한 신약성경 네번째 복음서입니다 헬레니즘적 사고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요한복음은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를 부인하는 이단사상을 경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로고스이심과 성령의 사역을 강조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사건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비교적 긴 강론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주제로 강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주후 61~63년경, 사도 바울의 2~3차 전도여행, 예루살렘 방문과 로마 압송을 동행하였던 누가에 의해 기록된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본래 누가복음과 함께 구성된 한권의 성경이었으나 주후 2세기경 내용을 중심으로 분리하여 사도행전이라는 별개의 경전으로 독립되었습니다. 교회의 시작과 그리스, 로마, 세계 전역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사도행전은 신약성경 가운데 유일한 역사서로서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는 교량역할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명령과 오순절 성령사건으로 시작된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의 출발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로마 정부, 유대 율법주의, 헬레니즘에 대한 변론을 중심으로 전도, 설교, 토론, 권징에 관한 폭넓은 신학 자료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민족종교였던 소수민족의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자료인 동시에 복음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며 박해를 받으면서도 로마가 가진 세계화를 이용하여 복음이 빠른 속도로 세계로 전파되고 있는 과정과 그 속에서 로마제국은 멸망하였지만 기독교는 더욱더 확장되어 이미 전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기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6) 로마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 3차 전도여행이 끝날무렵(로마서15:19)인 주후 57년경, 고린도에서 머무는 3개월 동안 기록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서는 스페인 선교를 위한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 방문을 준비하게 하며, 또한 사도들로 부터 성경적 가르침을 받지 못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유대인 성도들의 율법주의적 신앙체계를 교정하고 바르게 훈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서신서이지만 복음서에 가까운 것으로 기독교 신앙의 가본적인 원리 즉 죄, 구원, 은혜, 믿음, 칭의, 성화, 부활 등 핵심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이것을 생활에 적용하는 과정까지 방대한 분량을 한권으로 집약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성경 66권을 대표하는 성경으로 알려져 있고 신학자들 사이에서 모든 성경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7) 고린도전서

주후 55년, 사도 바울의 제 3차 전도여행중에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다양한 견해의 신학적 논쟁을 해결하고, 또한 고린도 교회내의 신학적 질문서에 대한 회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신학적 사상을 정립한 신학교리 또는 조직신학적 정서에 근접하다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교회 내외의 분쟁과 현실적 고민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생활을 실재적인 접근을 통하여 해석한 지침서가 되고 있습니다.

(8) 고린도후서

주후 55년, 사도 바울의 제 3차 전도여행중에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것으로,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변론하고 자신의 사도적 정당성을 변호하였으며, 교회내 분쟁의 중심에 서있던 유대주의자들을 척결하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헌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가 논리적인 방향으로 성도의 생활을 지도해 나갔다면, 고린도 후서는 감성적인 호소로 지도한 양면성을 가진 것이라 할 것입니다.

(9)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의 기록연대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으나 대략 세가지의 이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 1차전도여행이 끝난후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기전이라는 설이 있고, 둘째는 제 2차 전도여행중에 기록했을 것이라는 설이 있으며, 셋째는 제 3차 전도여행 중인 주후 56년경 마게도냐에서 기록하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신뢰받는 설이 제 3차 전도여행 중인 주후 56년경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율법을 통한 구원을 주장하는 유대인 교사들의 잘못된 주장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갈라디아서는 기록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이것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신득의 사상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으로서 유대인들의 사상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보다 강한 논조로 지도하고 있는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10)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주후 62년경, 사도 바울이 제 1차로 투옥되었던 로마에서 기록한 것으로, 각 각 지역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교회들에 대하여 만유의 주재로서 통일하시는 그리스도안에서 교회공동체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성도들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되어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보낸 서신이지만 교회의 문제에 관한 지적보다는 교회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에 대한 일치와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러한 통일성과 일치성의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사상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은 교회론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의 3대 원칙을 명확하게 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예배와 전도, 그리고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선포(케리그마), 구제와 지역사회의 확장을 선도하는 봉사(디아코니아), 성도간의 화목과 친교,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교제(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11) 빌립보서

빌립보서는 주후 62~63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생활 가운데 기록한 것으로 빌립보교인들의 헌금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투옥되어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의 근황을 알리며, 또한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일심동체로 연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다른 서신과 달리 구약성경에서 인용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아는 지식의 깊이를 더해가며,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라는 권면을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 골로새서

골로새서는 주후 62~63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생활 가운데 기록한 것으로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인 에바브라로 부터 교회내에 이단이 침투하였다는 심각한 보고를 받고 이단을 배격하며, 정통적 기독교론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내에 성행하던 잘못된 철학, 유대의식주의, 천사숭배, 신비주의, 금욕주의 등 이단사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후 51년경, 사도 바울의 제 2차 전도여행 중 갈리오가 고린도 지역 총독으로 부임하기 직전에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경건한 삶에 대한 교훈을 주며, 생활의 중심이 되는 종말론적 신앙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4장과 5장을 통하여 치밀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14)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후 51년경,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수개월 후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서를 기록할 때의 상황과 크게 변화한 것이 없다고 판단한 사도 바울은 박해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재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지도하였으며, 생활의 경제 활동에 관심을 가질것을 경고하되 유대적 기법으로 엄격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종말론적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더 많은 할애를 하여 바른 교훈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15)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후서, 디도서와 함께 사도 바울의 목회서신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주후 63~65년경, 로마 감옥에서 1차로석방되어 동방여행을 하는 도중에 기록되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 이단에 대하여 경고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윤리도덕적으로 연단하며, 교회 조직의 효과적인 운영지침과 올바른 목회지침을 제시해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영지주의와 거짓교사등 이단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고 있는 디모데 전서는 신학적 사상보다 윤리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며 공중예배와 교회행정과 권징에 대한 교훈, 그리고 목회자의 의무 등 교회생활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현대 교회행정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서신이라 할 것입니다.

(16)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서신의 최후서신으로, 주후 66년경, 로마 제국에 의해 2차로 투옥되어 순교하기 직전에 감옥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교사들로 부터 복음과 진리를 수호하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만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디모데의 소심한 성격과 연약한 육체를 염려하면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낼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시련에 대한 인내와 말세에 나타날 여러가지 시험에 대한 대비를 기록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사역자들의 삶을 기록하며 또한 그러한 지체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17) 디도서

주후 66년경,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디도서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에게 보낸 목회서신입니다 신앙의 선한 행위가 종식되면서 혼란스러움으로 가득차 있는 그레데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고, 바른 신앙관을 정립하며 또한 디도를 격려하여 율법 학자 세나(Zena)와 아볼로를 통하여 영적 양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디도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의 실천을 강조하며 기독교의 교리와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구원의 보편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데 사람들의 부패성과 비도덕적인 생활을 지적하며 목회자 디도에게 신앙적, 윤리적 모범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8) 빌레몬서

주후 62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1차로 투옥되었을 때 옥중에서 기록한 것으로 주인의 재산을 도적질하여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복음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회심케 하였으며, 그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 보내면서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과 또한 복음전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것을 당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빌레몬서는 노예신분에 대한 혁파를 논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우리 모두는 신분과 관계없이 한 형제이며 사랑안에서 모든 허물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활적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 히브리서(저자는 미상)

주후 60~69년경, 기록된 것으로 사도바울을 비롯하여 바나바, 누가, 아볼로, 클레멘트 등이 기록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나 명확하게 정리되는 논리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서로서 서신과 설교의 중간지대에 있는 논문 형식의 서신 또는 변증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중 동족의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유대교로 회심하려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품성과 사역과 신앙의 3가지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지도자를 나열하는 가운데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보면서 그들보다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월성은 구약을 넘어 오늘에 이르기 까지 불변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우월성을 신앙하며 믿음을 굳게 지킬것을 간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0)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주후 62년경,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야고보에 의해 네로 황제(주후 54~58)가 기독교 박해를 시작하기 전 단계에 기록되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유대교 인들과 로마 제국의 가혹한 핍박으로 인하여 이미 참된 사랑과 교제를 상실한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러한 계속되는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믿음을 실천함으로서 윤리적 의와 사랑의교재를 회복할 것을 권유하는 서신서입니다.

야고보서는 베드로전후서, 요한 1,2,3서, 유다서 등과 함께 공동서신서로 알려져 있으며,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이지만 그 내용은 편지형보다는 대화형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교리보다는 신앙의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윤리적 교훈서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신약성경의 잠언서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21) 베드로 전서

베드로전서는 주후 64년경,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것으로 외적 박해에 대비해 신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소망을 갖고 인내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하여 "소망의 서신"(the Epistle of Hope), "격려의 서신"(the Epistle of Courage)이라고도 합니다. 즉, 환난중에 있는 신자들에게 곧 닥쳐올 고난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어떠한 고난과 시험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도록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그와 함께 창조론(4:19), 그리스도론(1:20), 종말론(5:1,10) 등 다양한 교리를 다루면서 모든 인내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분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2) 베드로 후서

베드로후서는 주후 66년경, 사도 베드로가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거짓 교사들의 방종한 사생활과 거짓된 교리 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경고하고 있으며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경건하고 후회없는 삶을 실천할 것을 교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3) 요한 1서

요한 1서는 주후 90년경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사랑의 편지", 또는 "진리의 변증서" 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재설(先在說)과 신인양성론(神人兩性論) 등 정통적 그리스도론을 확립함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견고히 세우며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도록 교훈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한 1서는 기록되었습니다

(24) 요한 2서

요한 2서는 주후 90년경,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이 짧은 서신속에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의 메세지와 함께 사랑안에 거하라는 권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사랑은 무분별한 것이 아니라 영적 통찰력이 수반된 것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25) 요한 3서

요한 3서는 주후 90년경,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가이오(Gaius)라는 한 개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요한 3서는 각지를 순회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교사들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면서, 가이오의 선행과 진리안에 거함을 칭찬하고, 반면에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지적함으로써 진리를 위해 힘쓰고 있는 순회교사들을 잘 대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6) 유다서

유다서는 주후 70~8년경, 야고보의 동생 유다가 예루살렘에서 기록한 것으로,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경계와 정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일대에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구원을 빙자하여 육체적 방종을 일삼는 도덕폐기론자들의 활동이 극심하였습니다 특히 교회는 이들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형제 유다는 이단을 극렬하게 논박하고 정죄하는 동시에 성도들에게 진리를 위해 굳건히 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7)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주후 95~96년경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한 묵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로 하여금 박해를 이겨내며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게 하기 위하여 신약성경 유일의 종말론적 계시를 보여준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요한이 본 것과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등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묵시록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구원의 빛이요 선물이 될 것이며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운 공포와 영원한 지옥이 될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7. 인간론(人間論), 인간학(人間學)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즉위한 후 교회는 로마의 국교가 되어 외부적으로 정부의 특혜와 후원으로 성장하는 듯 했으나 내부적으로는 교리적 논쟁으로 혼란의 와중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베푸는 기독교의 많은 특혜들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부정적 의미에서 대중들의 인기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불의를 일으키는 사례 조차도 자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기독교에 호의적인 정부의 비위를 거스리지 않기 위해 세속 권력이 지나치게 교회에 간섭하는 것을 제재하지 못하였습니다. 종교지도자들 또한 영적 권력 뿐만 아니라 정치적 권력까지도 행사하게 되었는데 이들 종교지도자들 역시 권력이 가진 본래적 성향인 부패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지도자들의 부패는 극단적 금욕주의자 등 새로운 사상이 대두되는 신학사상의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국교인 로마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신학사상의 혼란과 논쟁은 국론 통일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리적 통일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이것이 주후 313년에서 590년까지 계속된 니케아 회의 시대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교리 논쟁은 주로 아타나시우스와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오늘날의 정통적 이론의 기본적 틀은 어거스틴의 신학에 의한 것이 대부분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기독교 지원은 중요하고도 불행한 선례를 발생시켰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교회의 문제를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일임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리적 논쟁의 초점은 기독교론에서 출발하여 성령론, 인간론으로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기독교론의 논쟁은 주로 동방교회에서 일어났으며 인간론에 대한 논쟁은 서방교회에서 격화되었습니다. 논쟁의 발단은 펠라기우스(Pelagius)의 원죄(原罪)에 대한 부인(不認)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아담의 죄는 아담에게만 적용되고 아담의 후손에게 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죄는 의지의 작용이므로 그 책임 또한 의지의 소유자에게만 국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죄를 원죄와 관계없이 환경의 영향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간의 구원은 율법과 복음없이도 가능한 것이라고 까지 확대 해석하였습니다. 당시로서는 펠라기우스의 이러한 논리가 상당부분 설득력있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거스틴(Augustine)은 이와 정 반대의 견해를 내세웠습니다. 인간의

자유이지 가운데 저지른 아담의 원죄를 인정하고, 아담의 후손이 아담의 죄의 영향 아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로서 인간은 이미 죄인으로 출생하여 범죄하고 스스로 구원을 이룰 만큼의 능력과 선행을 할 수 없다고 단언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완전한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예정된 자는 구원을 받고 그 외에는 버림받은 자가 되므로 오직 구원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은혜인 것이라는 신 주권교리(主權敎理)를 내세웠습니다.

이것에 관한 논쟁은 오래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주후 412년 칼타코 총회에서와 418년 아프리카 총회, 그리고 431년 마지막으로 에베소 세계교회 회의를 통하여 펠라기우스의 인간론이 정죄되고, 어거스틴의 원죄론을 받아들이는 결론에 도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관련된 가장 비극적인 사실이 죄와 그 죄로 인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기원과 본질, 그리고 그 결과와 치료에 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론에서 다루어지는 두개의 초점,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죄를 통하여 인간에게는 질병과 고통과 번뇌, 그리고 근심과 걱정, 배고픔과 굶주림, 슬픔과 눈물, 판단과 정죄, 교만과 거짓과 미워함, 욕심과 욕망,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 도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동반한 채로 인간은 영원토록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고통을 수반할 수 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떠나 스스로 생존할 수 있으나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 결코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최후의 결정을 선택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가 있고 그 죄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 인간의 기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의미의 특별창조설을 구약성경에서는 보편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종의 피조물을 창조하시되 그 피조물들이 각자의 존재의 법칙에 따라서 발전하고 진보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심으로서 다른 피조물들과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이러한 특별창조설을 반박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으로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생명체들은 하나의 단순형태로 부터 발전되었고, 고등의 생명체는 하등의 생명체로 부터 발전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화론의 기원은 물질과 힘의 역사로 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그 물질과 힘이 어디로 부터 온 것인가 하는 질문에는 정확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물질과 힘으로 인하여 생성된 생명체 세포가 활동의 범위와 규칙에 따라 모든 생명체가 유전의 법칙에 의존하며 진화과정을 거쳐왔다는 것입니다.

종(種)이란 무엇인가? 특징되어지는 성질 등을 공유하며 이러한 특성들의 변화없이 무한히 증식되어 질수 있는 동식물의 분류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성질의 생명체가 한 종안에서 잉태되고 이것이 여러 세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영속적인 흐름이 관측될때 한 종안에서 여러 형태의 품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설은 창조된 피조물의 형태와 유형에 따라 형성된 모양과 성격이 다른 형태로 발전하고 진화하지 않는 것을 절대 불변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원숭이로 태어났으면 원숭이로 생을 마감하되 세월의 변화와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다른 종류와 유사한 모양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진화하여 그런 형태로 발전하거나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科學; Science)은 입증되거나 입증가능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과학이란 인류가 경험주의와 방법론적 자연주의에 근거하여 실험을 통해 얻어낸 자연계에 대한 연구결과 또는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진화론의 공헌자 "다윈" 은 과학에 근거한 입증보다는 외형에서 드러나는 모양에서 진화론을 주장하였을 가능성이 지배적인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인간과 동물을 연결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기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의 본체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인간의 본체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요한복음 1:12),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하고 귀한 족속이 된 것입니다(요한1서3:2)

2) 인간의 본성

2-1. 인간의 본성

창세기 2장 7절에는 인간은 두가지 본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라는 물질적인 본질과 인간의 영혼(靈魂), 즉, 불멸의 본질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혼은 육체에 생명을 주며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육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의하면 인간은 세가지 본질, 즉, 영(靈), 혼(魂), 육(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견해 사이에는 성경학자들의 논란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과 혼은 인간의 비육체적인 본질의 두가지 면을 묘사하는 것이지만, 영과 혼은 인간의 영적 본성이 작용하는 두가지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과 혼에 대한 분명한 분류는 그것을 표현하고 지지하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2-2. 인간의 영(靈)

"영" 적 인간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교통의 통로, 또는 천국의 육체같은 것으로 비유가 된다면, "혼" 적 인간은 감각을 통해 세상을 의식하고 자신을 의식하며 통제하는 마음의 육체, 또는 세상의 육체를 통제하는 마음으로 묘사될 수 있을 것입니다(누가복음23:46, 사도행전23:9, 7:59, 히브리서2:23, 베드로전서3:19, 요한계시록 4:2, 17:3).

인간의 모든 육체에 살고 있는 것 가운데 각 개인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 이 있습니다(민수기16:22, 27:16).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체의 심성속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며 새롭게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간생명의 중심이 되며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시편51:10). 반면에 혼은 인간생명을 소유하고 육체를 통하여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은 영에 의해서 힘을 얻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과 혼이 치밀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영과 혼을 따로 분리해서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영은 인간을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만들어 주는 핵심적인 차별입니다. 영은 동물의 생명과 전혀 다른 인간의 생명과 지성을 담고 있습니다(잠언20:27, 욥기 32:8), 동물들은 근본적으로 혼을 갖고 있으나(창세기1:20), 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은 인간과 동물의 생명에 대한 원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을때에 그의 마음속에 생각되었던 질문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은 인간과 달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수가 없는 것입니다(고린도전서2:11, 14:2, 에베소서1:17, 4:23). 동물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책임감있는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오한복음4:24).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 속에 거하게 될 때에(로마서8:16), 인간의 영은 예배와(요한복음4:23~24), 기도와 찬양과 축복과(고린도전서14:15), 봉사(로마서1:9, 빌립보서1:27)의 중심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차원적 본성을 상징하는 영은 인간의 특성의 자질과 관련되어 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을 지배하는 것이 인간의 성품의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인간의 영은 어떤 상태인가요? 교만의 영(잠언16:18), 사악한 영(이사야19:14), 거역하는 영(시편106:33), 조급한 영(잠언14:29), 변민하는 영(창세기41:8), 통회하는 겸손한 영(이사야57:15, 마태복음5:3), 종의 영(로마서8:15), 질투의 영(민수기5:14)에 인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영을 지켜야 하고(말라기2:15), 자신의 영을 다스려야 하며(잠언16:32), 회개함으로 자신을 새로운 심령으로 만들고(에스겔18:31), 자신의 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에스겔11:9).

2-3. 인간의 혼(魂)

혼은 인간의 육체에 활기를 넣어주는 생명과 지성의 본질입니다. 또한 물질적인 사물들을 탐구하기 위하여 육체의 감각을 그 조력자로 사용하고 외부 세상과의 교통과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육체의 기관들을 사용합니다. 혼은 본래 하나님의 영을 초자연적인 힘으로 불어넣어 준 결과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혼이 하나님께로 부터 왔기 때문에 혼을 생명적이며 영적인 것이라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은 죄를 짓습니다. 혼은 죄의 본성을 따라 움직이는 세밀한 것입니다.

혼은 인간과 동물을 무생물과 구별시키고 식물과 같은 생물과 차별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혼은 동물의 혼과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식물에도 혼이 있을 수 있으나 동물과 같이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혼과 동물의 혼의 차별성은 동물의 혼은 육체가 존재하는 동안 생존해 있는 이 땅의 혼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의 혼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전도서3:21). 또한 인간의 혼은 지성적인 반면에 동물의 혼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 모두가 자기의 집을 소유하려 합니다. 동물은 천지창조 당시의 개념과 이해로 집을 짓고 구성하지만 인간의 집은 다원화, 다양화, 고층화, 부의 상징화하였습니다. 인간과 동물 모두 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은 초보적이고 원시적인 형태의 전달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문화적이고 예술적이며 창조적인 가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 차별화된 것은 동물의 본능은 동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지혜를 증명할 수는 있으나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앞에서 범죄를 하였지만 회개를 하고 죄 용서를 구할 수 있으며 구원받

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혼은 사람과 사람을 상호간에 구별되게 하는 개개인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출애굽기1:5, 로마서13:1) 또한 혼은 인간을 동식물과 구별할 뿐만 아니라 천사와 같은 존재와도 구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육체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혼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물질적인 조건이나 유한성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히브리서1:11)

혼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줌으로서 그 결과 처음으로 혼이 존재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 사이에는 이같은 혼을 두고 각자 다른 견해들을 갖고 주장을 합니다 인간 각자의 혼은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즉각적인 창조에 의해서 얻어지게 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이사야57:16, 전도서12:7, 히브리서12:9, 스가랴12:1)

혼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마음의 유산이라는 견해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담의 죄악의 본성이 후손에게 전해진 사실이 이것을 증명하고 또한 부모의 성격과 특징들이 자녀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으로 이러한 견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요한복음1:13, 3:6, 로마서5:12, 고린도전서15:22, 에베소서2:3, 히브리서7:10)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이 증명되거나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혼과 육체와의 관계에서 혼은 생명의 보유자입니다 혼은 생명의 유지와 위기와 손실과 관련된 모든 것들과 관계를 갖게 됩니다(창세기9:5, 열왕기상19:3, 2:23, 잠언7:23, 출애굽기21:23, 30:12, 사도행전15:26) 혼이 몸에서 떠나면 육체는 일시에 부패하여지고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은 육을 떠나서 생존하지만 육은 혼을 떠나서 생존할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혼은 몸의 각부분에 침투하여 서식하며 어느 정도는 직접적으로, 몸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습니다(잠언13:4, 이사야32:6, 민수기21:4, 예레미야16:16, 창세기44:30, 에스겔23:17) 몸이 아프면 사람의 마음도 약해지고 용기를 잃으며 의식적으로 침체기를 맞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혼은 뇌의 작용에 의해서 지성과 이성과 기억과 상상력을 동원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의 정보가 되기도 하고 사상이 되기도 하며 가치관이 되어 고정화되는 한 사람의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은 혼으로 세상과 연관을 맺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통하여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특히 이성적인 관계에 있어서 육체는 서로를 이어주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육체와 혼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다섯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자신을 보호하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자기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둘째로,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얻도록 도와주는 취득의 본능이 있습니다 셋째로, 자연적인 굶주림을 만족시켜 주게 하는 충동적 음식의 본능이 있습니다 넷째로, 종족의 영존을 가능하게 하는 자식생산의 본능이 있습니다 다섯째, 직업이나 책임감에 필요한 것으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우월적 지배의 본능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본능과 전혀 다른 자기의지와 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고귀하게 되었고 인간은 이것으로 자신을 훈련하며 하나님의 법을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앞에서 불순종함으로서 죄인이 되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뜻이 하나님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 하였을때 오는 것으로 본능적인 것은 아닙니다 죄는 나쁜 습관으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원죄라는 나쁜 습관을 통하여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안에 거하는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사실에 입각하여 영,육,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마음은 모든 것의 가장 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체적 생활의 중심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신명기4:11, 마태복음12:40, 출애굽기15:8, 시편46:2, 에스겔27:4) 마음은 생명과 소원과 의지와 심판의 중심입니다 사랑과 미움, 의지와 반가움(시편105:3)등이 모두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감정적인 생활의 중심입니다 또한 마음은 도덕적 생활의 중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슬픔과 기쁨과 행복과 불행을 한꺼번에 안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비도덕적 생활로 인하여 스스로를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음속에 양심이 있고 양심이 증거하는 것들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마음이 바로 예수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3) 인간속의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5:1, 9:6, 전도서7:29, 사도행전17:26, 고린도전서11:7, 고린도후서3:18, 에베소서4:24, 골로새서1:15, 야고보서3:9) 인간은 하나님을 모델로 만들어진 현존하는 최고의 창조물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간앞에 놓여진 기준과 목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

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의지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부여한 본능에 복종하는 관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불어넣은 생명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부터 나온 진정한 자산입니다. 인간은 이 땅의 재료인 흙으로 만들어 졌음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심으로서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길수 있는 본성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과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창조될때 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하여 손상되고 훼손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재창조되고 거듭나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인식력은 오직 인간만이 가질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동물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반복학습함으로써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몇가지 정도는 인식할 수 있으나 그것은 그것을 학습하고 지도하는 주인의 습성에 따라 움직이는 본능적인 것이지 사고의 인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도덕적 성품을 갖고 있으므로 옳고 그름으로 인하여 판단하고 선택하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고에 의해 작용하는 인간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나타났으므로 기본적인 도덕적 성품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욕망과 죄로 말미암아 본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훼손되어 버린 것입니다.

동물은 자연적인 피조물이며 인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인으로서 과학의 발달과 사상의 합리적 원리를 적용하며 국가와 사회의 구조를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본래의 인간은 영원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에덴동산에서 일어난 첫번째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원성은 파괴되고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인간은 가족을 이루되 가족을 위하여 수고하고 해산하고 부양해야 할 책임을 갖게 되었으며, 지배해야 할 자연과도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질병을 갖게 되었고 유아기가 있다면 청년시절이 있고 늙음이 있으며 불행과 행복도 끊임없이 교차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하나님의 형상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다준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가졌던 순수성과 완전성이 불순종이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이며 그와 동시에 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고통과 죽음과 같은 어둠속에서 희망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이름인 것입니다.

28. 기독교론(Christology, 基督論), 예수 그리스도

1) 기독교론의 개요

주후 325년 5~6월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개최된 니케아 회의는 부활절에 관하여 동방은 유월절을 지키고 서방은 주일을 지키는 문제로 소집되었으며, 또한 아리우스(Arius)설로 인한 교회 분열을 염려한 내용이 주요 안건이었습니다. 이처럼 길고 긴 교리적 논쟁은 알렉산드리아의 장로 아리우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안디옥교회 감독 사모사타(Samosata)의 바울(주260~272)의 영향을 받아 이단적 요소가 강한 논리를 주장하였습니다.

그에게 영향을 끼친 바울은 "예수께서 모세와 다른 선지자보다 로고스가 강력하게 역사하여 메시아가 되었다"고 보았으며 또한 "예수에게 있는 로고스가 강력하게 작용하여 다른 인간들보다 하나님과 특이한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후 하나님은 예수를 양자로 삼고 그에게 신성까지 부여하였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쳐 안디옥교회는 세번에 걸친 대회를 열어 논의 끝에 269년 바울을 이단으로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바울의 양자사상(養子思想)은 소멸하지 않고 아리우스의 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아리우스는 전지전능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끝도 시작도 없는 영원한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의 시작이 있는 영원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조차도 하나의 피조물로 보되, 단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피조물로 보았고, 그 증거로 예수는 인간의 육체를 가졌으나 인간의 영혼은 갖고 있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로고스가 인간의 영혼을 대신 하였기 때문에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으며 또 로고스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알렉산더(Alexander)가 삼일신의 현현을 강론할 때 장로인 아리우스가 이를 공격하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후 320년 알렉산드리아 지방 대회에서 아리우스와 그를 지지하는 유세비우스를 비롯하여 니케아, 칼케톤, 에베소 감독과 애굽 감독을 파면하였습니다.

이 일로 아리우스 장로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 파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이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점차로 확대되면서, 각 지역을 순회하며 반대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당시 유명한 니코메디아 감독의 유세비우스도 이에 동조하여 합력하게 되었을 정도로 세력은 급속히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결국 동방교회로 까지 확대되었으며,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스페인 감독 호지우스로

하여금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이론을 좁히지 못한채 실패로 돌아가고, 교회의 분열과 국민정신의 분열이 가속화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로마제국 전체 감독회의를 개최하여 세계 교회의 일치된 뜻을 모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세계 교회에서 교리적 결정을 한 후 국가의 힘으로 모든 교회가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치밀한 계획이 사전에 있었습니다 첫 회의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칙령으로 주후 325년 5월 20일 소아시아의 니케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약 300명의 감독들이 참석하였으나 대부분 동방교회에서 온 감독들로 구성되었고 로마교회는 대표만을 파견하였을 뿐이었습니다 회의는 처음부터 아리우스파와 중립파와 정통파로 분열되었습니다

니코메디아 감독 유세비우스를 비롯한 니케아, 칼케돈, 에베소 감독 등 아리우스파와 가이사라의감독 유세비우스의 중립파, 그리고 극소수의 알렉산더, 골도바의 호시우스, 아타나시우스 등 정통파로 양보없는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회의의 진행중 알렉산더 감독이 소천하고, 그의 후계자로 아다나시우스(Athanasius) 감독이 계승하면서 중론으로 기울던 회의의 분위기는 급반전되었습니다 아다나시우스는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가 동질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한 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반박자료로서, 만일 아리우스파의 주장대로 아들이 피조물이라면 아들을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감화력있는 논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결국 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결의와 황제의 동의를 얻어 니케아 신조를 결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리우스파는 신조 서명에 거부하고 이단으로 정죄되고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다나시우스의 논리는 그 후 황제의 번의로 인하여 의외로 박해와 추방이 뒤따르는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후로 5회에 걸친 어이없는 추방후에야 아다나시우스의 정통적 입장이 전체 교회의 압도적 지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다나시우스의 주장을 따라 그리스도의 신성을 주장하던 신학자들 가운데 또 다른 논쟁을 일으켜 교회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인성을 약화시키거나 무시하는경향으로 흐르게 되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예수가 완전한 인간이라도 인간인 이상 죄를 범할 수 밖에 없다는 전제 아래, 인간이면서 범죄할 수 없는 인간 예수를 찾아내려 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라오디게아 감독 아폴리나리우스(Apollinarius)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전서5장 23절을 인용하여 먼저 삼분설을 주장하고 로고스가 예수

의 영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것은 죄의 좌소(座所)가 영이기 때문에 영의 자리에 로고스가 있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부인한 것으로 381년 콘스탄틴 대회에서 정죄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양성이 인정된 이후에는 이번에는 이 양성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또다시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감독 네스토리우스(Nestorius)는 양성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이해하여 양성의 교통을 부인하고, 신성은 인성과 전혀 다른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 키릴(Cyuil)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성은 서로 연합되어 교통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에 네스토리우스의 주장대로 라면, 그리스도는 인성만으로 수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구원을 성취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아주 위험한 논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논쟁으로 인하여 주후431년, 에베소에 모였던 제 3회 세계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 키릴과 그의 동조자들은 네스토리우스 일행이 도착하기 전에 기습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네스토리우스를 정죄하는 편법을 동원하였습니다. 그러자 네스토리우스도 이에 맞서 회의를 소집하고 키릴을 정죄하는 법적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파행적 회의속에서 황제가 키릴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네스토리우스는 수도원으로 은퇴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네스토리우스의 추종세력들은 로마제국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 페르시아로 피신하였고, 후에 중국에 까지 선교활동을 하여 7세기 경엔 경교(景敎)란 이름으로 크게 활약하였습니다.

에베소 회의 이후에도 기독교론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다른 견해들은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콘스탄티노플 근교의 수도원 원장인 유티게스(Eutyches)는 양성연합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양성의 구별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성육신때 그리스도의 양성은 하나의 신(神)인 단성(單性)으로 연합되었다는 단성연합론(單性聯合論)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키릴의 주장을 진보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쉽게 함정에 빠지도록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무소부재(無所不在)는 신의 속성인데 예수의 육신은 장소의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에서 육신을 가진 예수의 인성이 신성에 완전히 흡수 될수 없기 때문에 예수는 육체적으로 무소부재할 수 없다는 설득력있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유티게스의 주장처럼 예수께서 신성을 따라 무소부재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재림은 불가능하다는 논리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 심각한

신앙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양성의 문제도 451년 칼케톤에서 열린 제 4차 세계대회에서 결론을 내야만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시며 신(神), 인(人), 양성(兩性)은 혼동, 변화, 분리, 분열함이 없이 연합되어 있음을 가결하였습니다

칼케톤의 결정은 연합의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반론만 제기함으로서 그 이전의 결정과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양산하였습니다 그런즉, 팔레스타인과 애굽과 시리아 교회들은 키릴과 유티케스의 양측 입장을 계속 추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553년 콘스탄티노플에서 개최된 제 5차 세계회의에서 칼케톤의 신조를 재확인 함과 동시에 안디옥파의 단성론인 제 3장은 정죄되었습니다

단성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가지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두가지 의지가 있는가? 라는 문제로 만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적 의지가 있었다면, 인간의 유한성으로 인하여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짓게 될것이므로 오직 하나님의 의지, 곧 신적 의지만 존재하였을 것이란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었습니다 638년에 헤라클리어스(Heraclius)황제나 648년 콘스탄스(Constans)황제도 단성론 논쟁을 지양하려 했으나 지속적으로 양론이 대립되어 왔습니다 680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 세계대회에서 이 문제는 심도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칼케톤 결정이 재확인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론(兩意論)이 전격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지는 신적 의지에 종속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에 관한 오랜 교리적 논쟁은 종결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류광수 다락방, 문선명의 원리강론,신천지 등 다양한 이단들이 나타나 그들만의 설득력있는 논리로 일반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을 중심으로 정통교회를 세워 나가는 올바른 교육이 지속적으로 유지됨으로서 이러한 이단들이 발디딜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기독교인이 신앙하는 예수(Jesus)는 고대 그리스어: Ἰησοῦς 이에수스의 라틴어 표기이며, 이에수스는 다시 여호수아(히브리어: Jehoshua) 혹은 예슈아(히브리어: Jeshua)를 코이네 그리스어로 옮긴 사두람입니다 Jehoshua의 어원은 접두어 Je- (히브리어: JHVH/YHWH:Jahveh야훼, 하나님)와 히브리어: Hoshea(구원, 구세라는 뜻을 가진 호산나)를 덧붙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역사적 실존 인물로서의 예수를 호칭할때 흔히 "나사렛(Nazareth) 예수"라 부르는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부모의 이름을 함께

넣어 칭하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요셉의 아들 예수"(누가복음2:21), "나사렛 요셉의 예수"(요한복음1:45) 또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마가복음6:3, 마태복음13:55) 등으로 칭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따라 붙는 그리스도(Christus)는 고대 그리스어의 "기름을 부은" 이라는 크리스토스(고대그리스어: Χριστός)라는 말을 라틴어로 표기한 "기름을 부은". 크리스토스는 "히브리어: maschiach 메시아"에서 해석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은 유대인의 종교적 예법에 따르면 드높은 사람, 다시 말해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메시아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또한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2-1. 탄생과 유년시절

'기원후'의 의미로 사용하는 'A.D.(Anno Domini)'는 예수의 출생 이후의 시대를 의미하는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B.C.와 A.D.의 구분은 6세기경의 신학자 디오倪시우스 엑시구우스(Dionysius Exiguus)가 부활절의 날짜를 계산하면서 사용한 것이 후에 그 레고리력과 율리우스력에 반영된 것이며, 이 때에 계산된 예수 탄생 연대의 기준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적용하여 쓰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기원전 7~2년 - 기원후 26~36년)의 출생에 관한 정확한 역사적 기록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4대복음서의 기록을 바탕으로 예수의 출생일과 태어난 장소를 미루어 짐작하고 있으며, 대체로 역사상의 예수는 기원전 약 4년 경에 나사렛에서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2장 1 ~ 16절)에는 예수가 태어난 해에 하늘에 '동방의 별'이 나타나고 헤롯왕이 2세 미만의 갓난 아이들을 살해하도록 명을 내려 그 가족이 이집트로 피신하는 내용이, 누가복음(2장 1 ~ 2절)에는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명하여 요셉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을 찾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언급된 인구조사는 기원후 6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가 태어났을 때 로마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에 따라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인구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당시 시리아 지방의 총독이 퀴리누스(Quirinus)였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누가복음 2:1~7). 퀴리누스는 서기 6년에서 서기 9년까지 총독으로 있었으며, 인구조사는 그의 부임 초기(서기 6년)에 이루어졌으므로 예수는 서기 6년에 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메시아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는 예언서 미가서(5,1)와 이사야서(7,14)의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며, 예수

님과 그 가족은 헤롯1세의 위협을 피해 이집트로 가서 살다가 헤롯 1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돌아와 그 곳에서 정착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아버지는 아리마대 사람으로 요셉이었으며 그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한 어머니, 마리아에 관한 내역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으나 누가복음(1:36)의 기록으로 보아 그의 가계가 세례요한을 낳은 엘리사벳과 친족 관계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요셉과 마리아의 육체적 관계에서 출생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동정녀 신분으로 가브리엘 천사로 부터 수태고지를 받았으며(누가복음1:26~38), 약혼자인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고백하게 됩니다 신앙심이 두터운 요셉이었지만 이러한 마리아의 황당한 이야기에 심적인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에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으며, 가브리엘의 계시에 따라 마리아와 결혼을 하고 그와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년기에 관한 기록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12세때 겪게된 한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부모와 함께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예배를 마치고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채 하룻길을 내려 갔다가, 방황하면서 예수를 찾게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를 찾은 지 사흘 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만났을 때, 예수는 유대교의 랍비들과 함께 율법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곳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지혜와 논리에 감탄하며 기인으로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요셉과 마리아가 그들과의 대화에는 무관심한채 "왜 여기에 있느냐" 고 책망하였을때, 예수는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1~51)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고 기록함으로써 그의 유년기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적용적 삶을 살았던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는 그의 동생들과 함께 요셉의 직업을 이어 목수 일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이것은 예수그리스도가 인생에서 취해지는 여러가지 상황과 삶을 무시한 채 산 것이 아니라, 그의 직업과 생활을 온전히 실천하며 그 가운데 지혜롭

고 완전한 진리의 삶을 행위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자신의 고향 갈릴리 나사렛에서의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자신이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살아갈 것임을 예언하는 설교를 하였을 때, 고향사람들이 지혜에는 감탄했지만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며 예수가 보통사람의 직업을 가진 사람임을 지적하였다는 누가복음의 기록은 그의 서정과 삶에 대한 고정관념을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2-2. 세례와 40일 금식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전환점은 나사렛을 떠나 출가한 이 후, 세례요한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세례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느정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세례요한은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세례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의를 위하여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은 중요한 과정과 절차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왔고, 하늘에서 한 소리가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3:22).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이후 40일 금식기도를 위하여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 곳에서 사탄마귀를 만나게 되었고 세가지 중요한 시험과 유혹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시험은 금식하는 예수님께 돌을 빵으로 만들어 굶주림을 해결하라는 의식주에 관한 유혹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신명기8:3)는 구약성경을 인용한 말씀으로 대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의식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인가? 하는 신앙생활의 기본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과 유혹을 단번에 해결하심으로 완전한 분으로서의 삶과 목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두번째 시험은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사탄이 이 시험을 테스트하면서 예수님께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시편91:11,12)는 말씀으로 유혹함으로써 넘어지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신명기6:16)는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일시에 제압하였습니다.

성전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날 성전 꼭대기에서 아무 생각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말솜으로 우리를 꾀하시키고 종속시키며 세상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세상을 교회로 끌고 들어왔고 진노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후 첫 방문지인 교회로 들어가 성전을 정화하였습니다

세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네게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신명기 6:13)라는 성경말씀을 인용하여 이것까지 거절하고 승리함으로서 완전하신 하나님과 인간으로서의 삶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은 왜 자신에게 절하면 세상만국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이 이미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미 사탄마귀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마귀의 손에 들어간 세상에서 우리는 직업과 가족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영원한 원수같은 살벌한 적대국가에서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너무나 방관적이고 방탕한 것이 아닌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3.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예수님의 설교와 교훈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 사역 가운데 첫번째로 행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요한복음2:11) 당시 유대인들은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예수와 제자들이 참석한 그 현장에서 포도주가 다 소진되어버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마리아는 당황한 나머지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 알렸고, 예수는 하인들에게 여섯 개의 항아리에 물을 붓게 하였습니다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모든 물을 가져오자, 예수는 잔치를 맡은 이에게 그대로 갖다 주게 했는데,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는 기적의 첫번째 순서였습니다 (요한복음 2:1~11)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가지는 회개와 복음전파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고 경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땅끝까지 내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심으로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셨던 모든 것을 쏟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신 교훈가운데에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제외할 수는 없었습니다 산상수훈은 갈릴리호수 북쪽 지역 가버나훔인근 야산에서 말씀하신 황금과 같은 메세지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이방인들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며, 로마의 박해와 유대인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품어 온유를 잃지 아니하며, 의에 굶주리고 갈급한 심령이 되며,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며,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청결히 하고, 어디에서나 어떤 위치에 있든지 화평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억울한 누명과 박해를 감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축복의 열매는 천국이 그들의 나라가 될 것이며, 항상 위로와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되 영원한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며, 풍요로움은 세상이 가져올 수 없는 것들로 채워 질 것이며, 남을 긍휼히 여기고 보살피온 것보다 더 많은 긍휼을 받되 하나님으로 부터 받을 것이며, 아무도 볼 수 없고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대면할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양자됨의 축복을 받을 것이니 결국 천국은 이러한 사람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
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
같이 박해하였느니라(마태복음5:3~12)

예수님의 말씀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있어서 항상 파격적이고 놀라운 것이었습

니다 그것이 가지는 메시지의 능력은 때때로 그들이 처한 상황과 맞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로마의 속박과 구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려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쳐있고,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강력하고 능력있는 하나님으로서 일거에 로마제국을 쓸어버리는 심판자와 축복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은 은혜롭고 위로가 되지만 이러한 상황에 일치하는 메시아라고 보기에는 어딘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에 대한 희망마저 꺾어 버리는 좌절과 절망을 안겨다 주는 이단적인 존재로 여겨 졌던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태복음5:17~20)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인 듯 하다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모욕하는 듯한 메시지는 항상 그들을 자극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관습과 습관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본질과 심성을 잃어버린 외식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기독교인에게 이 말씀은 무엇을 던져주고 있을까요 오늘날의 교회는 내용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고 형식마저 버리고 세상의 모양만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위기의 현재에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태복음5:13~16)

어려움과 고난속에서 아무런 힘과 능력을 가지지 못한 그들에게 "빛과 소금"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에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가능한 것일까요? 그들 또한 빛이 필요한 사람이고 소금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 같은 행위를 명령어로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메세지는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와 그것을 갈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을 품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진정성인 것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 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
니라
(마태복음 5:27~32)

간음을 실제로 행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행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쁜 행위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좋은 습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나아가 음욕을 품은채로 여자를 바라보면 그것이 실제로 간음한 것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생리현상이 중단되어 버린지 오랜 시간이 지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라가 마음속으로는 웃었지만 겉으로는 웃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사라가 웃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성은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감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

리의 마음중심에 세상과 죄와 욕망이 자리잡아서는 결코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라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죄를 가진 온전한 육신보다 죄가 없는 장애인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가진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강한 메세지는 우리의 심령에 지금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태복음 5:43~48)
(마태복음 5장 1절~48절)

함께 지내는 이웃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결혼할 이성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철천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로마로 부터 온갖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상대를 사랑할 수 없다면 그 복음은 이미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그 어떤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는다" 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을 향한 소망의 메세지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천국의 복음은 세상의 생각과 언어와 행위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차원높은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것을 위한 적절한 비유들은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품삿에 관한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은 세상의 포도원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포도원은 근무시간과 그 효율성에 따라 그 댓가가 달라지는 반면에 하나님의 포도원은 근무시간과 수확량에 관계없이 포도원을 운영하는 주인의 마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포도

원을 운영하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 진실성에서 기인하는 것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은 일하는 사람의 능력과 지식보다는 그 마음을 더 소중한 가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능력과 학력, 그리고 그 사람의 배경이 모든 것을 좌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의 진실된 마음이 좌우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하실때에 많은 사람들이 미쳐 식사를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을 때였습니다. 수많은 장정들과 아이들이 말씀의 은혜속에서 배고픔을 알았을때에는 그들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였습니다. (요한복음6:1~14)

그 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져온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작은 아이가 한끼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그것을 축사하신 예수님의 광주리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름을 알수 없는 미소년의 작은 도시락 하나가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남자만 오천명이었던 그 현장에는 적어도 만오천명의 사람이 있었으니 그러한 기적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기적은 누군가의 작은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기적은 어른이 아닌 나이 어린 소년으로 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모두 드렸을때 그것이 가지는 능력은 무한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소유로만 있을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져갔을때에 그리고 아낌없이 드러진 손길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의지해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 나온 자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한끼 식사를 해결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제 1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일상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여겼고 그 말씀을 1순위로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음식과 같은 기적이 있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말씀속에 모든 것들이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기적이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졌던 것입니다.

4복음서에는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회복될 수 없는 질병을 치유한 기적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현증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병을 치유한 사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있는 단순한 기적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취하신 치유와 회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치유한 회복의 섭리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더 나아가 나사로와 같이 이미 장사를 지낸자들까지 살려내는 기적의 무한성을 나타내었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모든 장례절차가 끝나고 무덤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은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나사로는 봉대를 감은 상태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요한복음11:1~43). 예수님의 기적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과연 기적이란 존재하는 것일까요? 기적은 우리 인간에게 존재하는 유한성의 한계를 극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누가복음7:12~16)

이 사건이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죽음을 깨뜨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넘을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너머로 이미 가버린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시간을 되돌려 놓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기적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선을 넘어 이미 다른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을 다시 이땅으로 회복시킨 상상과 예측을 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 특별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마태복음6:9~13). 주기도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이었습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진실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고 하나님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가운데 있을 동안에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군가가 지금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외식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그 누군가가 바리새인 처럼 자랑하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앞에서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은 거짓과 꾸밈이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죄를 그대로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변명하고 변호하고 무엇인가 끊임없이 합리화하려는 시도를 싫어하고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실된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는 적어도 하나님 앞이라면 솔직해 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의식주와 관계된 세상의 문제에 대하여 기독교인은 근심과 염려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마태복음6:19~34) 세상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거나 욕심을 드러낸다면 그것을 써보기도 전에 그 사람의 목숨이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목숨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건강하다고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프다고 모든 사람이 단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나고 죽음이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욕망과 탐욕을 드러낸다면 그것이 가져오는 종국은 지옥외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의식주에 관한 염려를 하는 사람을 향하여 책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쩌면 생활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왜 걱정근심하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부질없는 일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직면한 염려와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모든 원칙과 해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아니라 모든 우리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2-4.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은 다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완전한 인성을 가진 분으로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중요한 사명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그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 자체가 너무나 짧은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생애 마지막 일주일은 아주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첫번째 하신 일은 교회의 정화였습니다 교회안에서 성도들의 편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들어와 있는 상인들을 몰아내셨습니다 교회들이 용납한 것을 예수

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성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과 낮아짐으로 섬김을 다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예수님에게 무엇이랴 말할 인간이 이땅 어디에 있을 것이며, 존귀와 영광만 받아도 부족한 분이신데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제자가 자신을 팔아 넘기는 사건 앞에서도 오히려 제자를 위로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팔아넘길 가롯유다를 제자로 삼아 함께 하였습니다 그에게 함께한 제자들의 면면도 하나같이 지식과 학식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문벌과 학력과 지식으로 사람을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어부라는 가장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베드로를 비롯하여 어쩌면 말이 잘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 동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와 다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요 흔적입니다 세상이라는 만만치 않은 이땅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가는 용기가 있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부터 항상 위험인물로 낙인되었으며, 로마정부에 있어서도 문제로 낙인 찍혀 버린 사람, 그 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 왔던 메시아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잣대와 지혜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메시아는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전혀 다른 행색과 모양으로 일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두려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잔을 옮겨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원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였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화답하였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가상칠언은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예수님의 핵심진리였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누가복음23:34)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누가복음23:43)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요한복음19:26~27)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태복음27:46)

내가 목마르다(요한복음19:28)

다 이루었다(요한복음19:30)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누가복음23:46)

예수님의 첫번째 사람은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지하여 저지른 것이라고 오히려 용서하고 화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같이 원수와 화해하며 용서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가상칠언의 첫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두번째 사람은 우편에 함께 메달린 강도였습니다. 성 금요일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에 메달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좌우편에 강도가 함께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강도였습니다. 그는 함께 처형당할 처지에 있는 예수를 정신병자로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누가복음23:39)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편에 있는 또 다른 강도는 생각을 달리하였습니다. 그가 좌편의 강도와 같이 중죄인것은 분명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린도전서1:18)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할 위기의 직전에서 구원을 얻은 백성은 다름아닌 우리가 혐오하는 강도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앞에서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신다는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상에서 하신 두번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번째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진 분으로서 어머니를 염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몸에 품고 있었고 또한 처음 본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는 이처럼 가장 근접한거리에 있었던 이 땅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네번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가장 극적으로 힘드신 순간이며 마지막 고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힘들어 하셨던 십자가의 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생각하고 지나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섯번째 사람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느끼신 갈증은 무엇이였을까요? 우리는 세상으로 향하는 갈증을 느끼겠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마지막 한방울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인한 갈증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절정의 단계, 그것이 예수님의 갈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여섯번째 사람은 예수님 자신과 또한 그것을 함께 이루어 나갈 공동체였습니다 모든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승리는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순종과 사랑과 구속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완성은 일회적인면서 동시에 영속적인 것이었습니다 되풀이되는 인간의 역사와는 다른 완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동체의 완성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공동체, 즉 교회는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의 고백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완성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곱번째는 천국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결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세상 그 어떤 영광과 존귀보다도 귀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박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악한 인간의 모습이며 최악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상은 십자가로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완성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종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일상으로 복귀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무덤은 있지만 빈무덤이 되었고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죽음을 이기신 분이었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완성이 미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삶은 어느것 하나 불완전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며 영원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멸되어가는 기독교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희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소망의 부활이 되어 오늘 우리들에게도 완전한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로마정부나 유대인들은 악성루머라고 치부하며 끝까지 신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치명적인 것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직접 만져보기전에는 신앙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인정과 확인절차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기독교는 다시 회복되었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소멸되어 흔적조차 없어질 것 같은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로 끊임없이 번져가는 활화산과 같은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아무런 권력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그 분의 지혜와 말씀과 능력은 21세기 전세계 가장 많은 성도를 가지게 되었으며 단 한권의 책을 저술한 적이 없는 그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서적들은 1억권을 넘어서며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29. 사도적 교부(Fathers, 敎父)

1) 사도들의 제자, 교부

교부(Fathers, 敎父)란 사도들의 직계 제자로서 교리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교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은 물론 교리발전에 크게 공헌하여 후세의 권위가 된 인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부들은 시대에 따라서 사도적 교부와 니케아 회의 전후의 교부로 나누고 있습니다. 니케아 회의 이전 시대의 교부로는 변증교부(Apologists), 헬라교부(Greek fathers), 라틴교부(Latin fathers) 등이 있었습니다.

교부(敎父)는 주후 2세기 이후 기독교신학의 정통성을 이어간 교회지도자들을 칭하는 것으로, 전래의 교회에(antiquitas ecclesiae) 관하여 저술을 써서 인용되는 자, 정통교리(doctrina orthodoxa) 세운 자, 성스런 삶을(sanctitas vitae) 꾸린 자,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은(approbatio ecclesiae) 자로서 조선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 시대와 국가별로 분류한 교부

교부는 시대별로 크게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세가지는 각각의 인물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계시고 그에 따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으며, 그 뒤를 이어 사도들의 제자 혹은 그들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교부, 또는 "속사도"로서 주로 주후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활동하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직계 또는 연관성이 깊은 제자로서 2~3세기에 활동하던 니케아 공의회 이전의 교부들이 있었으며, 그 후 4~8세기에 걸쳐 니케아 공의회 이후의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교부들은 예수님의 진리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앙하는 사람들로서 진리에 근접한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시대적으로 가장 가깝게 머물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세기의 교부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람들은, 로마교구의 대주교인 "클레멘스",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폴리갑", 교회역사 최초로 "보편교회"(Catholic Church)라는 용어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 동방교회 교부 "이그나티우스", 프랑스 리옹의 주교 "이레니우스" 등이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 이전의 교부들로는, 오리겐(Origen), 알렉산드리아 교구의 클레멘스, 예루살렘의 키릴, 디ద్무스 알렉산드리아누스 등으로 대표되는 "알렉산드리아의 교

부", "부(富)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방해한다" 는 설교로 유명한 북아프리카 히포교회의 주교 키프리안(Cyprian), 터툴리안 등으로 대표되는 "북아프리카의 교부", 유스티누스 플라비우스, 타티아누스, 제롬으로 대표되는 "로마교구의 교부" 등 3대 교부가 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 이후의 교부들로는, 마르키온, 아타나시우스, 크리스소스톰, 디오뉴시오스 아레오파기타, 시네시우스, 네메시우스, 그레고리우스 나지안스, 그레고리우스 니사, 에우제비우스, 에브라임 시리아 등으로 대표되는 "그리스 교부", 어거스틴, 암브로스, 아나스타시우스, 바실리우스, 제롬 등으로 대표되는 "라틴교부"가 있습니다

변증교부는 교회의 부흥을 원하지 않는 로마 황제들의 무력적인 박해와 이교도 철학자들의 비방으로 부터 기독교를 지키며 변증하는 교부들을 말하고 있으며, 저스틴(Justinus), 아리스티데스(Aristides), 타티아누스(Tatianues) 등이 대표적 변증가들입니다

또한 헬라교부는 사도 요한의 뒤를 이은 사람들로써 성서주의를 표방하며 사색이나 철학보다는 신앙을 더욱 강조한 교부로 이레니우스(Irenaeus), 히폴리투스(Hippolytus) 등이 대표적인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틴교부는 이탈리아 이주민들이 칼타고에 거주하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라틴신학의 바탕이 되었으며 터툴리안(Tertullian), 키프리안(Cyprian), 등이 대표적인 신학자들이었습니다 한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와 오리겐(Origen)은 서방교회에서 사상의 비정통성 문제로 인하여 교부로 인정되지 못했지만, 동방교회에서는 교부로 인정된 것같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도적 교부 혹은 후사도 교부(後使徒敎父)는 사도들과 직접적인 교분이 있었던 교부를 원칙으로 하나 사도시대를 이은 교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교부를 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름과 저서가 함께 전해오는 교부와, 저서만 전해지고 저자가 전해지지 않는 교부도 있었습니다 바나바(Banaba), 로마의 클레멘트(Clement), 이그나티우스(Ignatius), 폴리갑(Polycarp), 헬마스(Hermas), 파피아스(Papias), 등의 교부들과 이름은 없으나 저서만 남겨진 것으로 디오그네투스(Diognetus) 서신과 디다케(Didache), 등이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드의 저서는 개종이전의 교육과 직업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주님을 영접한 후의 변화된 삶과 순교의 영광을 노래한 것으로 간결한 문체와 단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적 교부들의 저서는 교회의 박해속에서 위로하고 기독교적 생활과 삶을 적용하기 위한 목회적 동기에서 기록되어진 글이었습니다

즉, 사상적 체계, 조직신학, 구원에 관한 교리, 대속의 교리 등 학문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의 과장된 효과, 독신생활, 순교의 예찬, 재림의 임박 개념 등 교회생활에 필요한 생활 교훈이 강조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당시 사회의 윤리적 운동의 강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칙을 표방하는 스토익 사상이 당시 사상계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러한 윤리주의가 복음적 구원 진리의 영역에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반영되어 강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1. 로마의 클레멘트(Clement)

주후 1세기말 로마의 유명한 장로로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 유배되어 있을때, 로마 교회의 감독직을 수행하였습니다 로마교회 감독의 자격으로 고린도교회의 질의에 회신한 글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의 서신은 고린도교회의 분쟁에 관한 해결방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친구약 성경과 바울서신을 다수 인용하였으며, 사랑과 겸손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화목하고 장로와 집사들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학적 경향은 사도바울적이며 특히 이신득의(以信得義)사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2-2.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Ignatius)

주후 30~35년에 출생하여 "하나님의 사자" 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이그나티우스는 107~115년 트라얀 황제때 안디옥 감독으로 봉직하던 중 사자의 밥이 되어 순교하였습니다 그는 순교의 땅 로마로 향하면서 일곱개의 서신을 남겼는데 이것은 초대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머나에서 에베소, 막네시아, 트라리아, 로마 등지로 보내는 서신과 드로아에서 빌라델비아, 서머나 교회로 보낸 서신, 그리고 폴리갑에게 보낸 7편의 서신인 것입니다

그의 서신에는 당시 안디옥교회 내에 몇개의 분파가 있었으며 감독한 그가 이단적이라고 생각한 교리들을 맹렬히 반대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이교도들에 의해 고발되었는지, 혹은 그의 반대파들에 의해 고발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그는 열명의 군인에 의해 포박된 채 로마로 압송되어 유죄 판결을 받아 로마에서 처형되었던 것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압송되어 가는 도중 여러 신도들과 만나 대화할 시간을 가지게 되었으며 또한 그가 구술하는 서신을 받아 쓸 비서까지도 대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당시 로마 전체에 걸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없었음을 알 수 있

으며 단지 법원에 소환된 자들에 국한하여 재판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은 이러한 압송과정에서 이루어진 면회의 결과인 것입니다.

또한 그의 서신에서 바울의 몸으로서의 교회관과 요한의 화육관의 조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톨릭 교회" 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여 교회의 조직을 강조하였으며, 박해를 받았을 때 교회의 보루로서 감독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에 의하여 처음으로 감독은 장로의 직에서 분리되어 장로를 대표하는 직분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 나타난 공통적인 주요사상은 이단을 경계하고 교회의 조직적 통일과 감독의 권위에 대한 승복, 그리고 순교자의 영광이었습니다.

2-3. 폴리갑(Polycarp)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이그나티우스의 친구이고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이레니우스(Irenaeus)의 스승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사랑의 감독으로 존경을 받았으나 이단학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일례로 폴리갑은 당시 로마에서 활약한 마르시온(Marcion)을 가리켜 사단의 장자라고 말할 정도로 단호하였으며, 빌립보 서신에서도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서신은 구약보다 신약을 많이 인용하였는데 이러한 점이 정경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155년경 까지도 폴리니에게 준 트라잔의 지시는 유효하였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을 억지로 색출하지는 않았으나 일단 고발되어 체포된 후에는, 로마의 신들에게 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만약에 로마의 신전에 예배하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반드시 처벌하였습니다. 폴리갑 또한 로마의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감독은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로마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관은 폴리갑이 황제를 두고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석방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폴리갑은 이에 대하여 "내가 86년 동안 그를 섬겼으나 나를 한번도 저버리신 적이 없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느냐" 라고 신앙고백을 하였습니다. 재판관이 그를 산채로 태워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폴리갑은 "재판관이 붙인 불은 순간이지만 지옥의 영원한 불길은 꺼지지 않는다" 라고 대답하였으며 그는 히에라폴리스의 감독 파피어스와 함께 버가모에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2-4. 파피아스(Papias)

브루기아 지방 히에라폴리스(Hierapolis)의 감독 파피아스는 2세기 중엽까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폴리갑과 함께 버가모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들과 그 제자들의 구전을 모아 5권으로 된 "주의 가르침의 설명" 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책은 지금 현재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 않으나 이레니우스의 글과 유세비우스의 역사에서 인용되고 있으며 마가가 베드로로부터 그의 복음서 기록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하였다는 사실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책에는 천년왕국론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이것은 2세기의 교회가 천년왕국을 신앙하고 있었음을 암시해 주는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2-5. 바나바스(Barnabas)

바나바스는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으로 주후 70~120년 사이의 인물로 추정되나 그에 대한 기록과 사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의 오류에 빠져가는 기독교인에게 보낸 서신으로 신약의 히브리서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바나바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2-6. 헬마스(Hermas)

유세비우스와 오리겐에 의하면 헬마스는 바울의 친구이며 로마서 16장 14절에 있는 헬마스와 동일인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무라토리 단편에 나타난 무명의저자(170년)에 의하면 로마 파피아스 감독의 형제라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두가지 다 확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헬마스의 저서로는 "목자" (Shepherd)가 있습니다 말세문학으로 비전과 생활훈과 비유로 엮어진 책으로 율법주의적이고 야고보서적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공로의 신학을 가르치고 순교의 속죄적 미덕(贖罪的 美德)을 가르치며, 예언적 은사와 금욕주의를 강조한 점에서 몬타너스 사상과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再婚)과 재회개(再悔改)를 허락한 것으로, 후에 몬타너스 사상에 심취된 터툴리안으로 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2-7. 디오그네투스(Diognetus)

이 서신은 1592년 헨리 스테판(Henry Stephan) 이 순교자 저스틴(Justin)의 이름으로 헬라어와 라틴어로 출판하여 일반인에게 보급한 것으로 저자가 분명하지 않으며 일각에서는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Marcus Aulerius) 황제의 스승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12장으로 구성된 이 서신은 이교도의 철인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소개한것으로 기독교의 교리와 예배가 헬라종교와 유대교의 것과 비교하여 얼마나 다른 것임을 지적함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상의 헛됨(2장)과 유대교의 미신(3~4장)에 대하여 기독교의 산 진리(5~6장)와 그리스도의 재림(7장)을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목적과 성도의 축복(8~10장), 그리고 낙원에 이르는 믿음(11~12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용이 거의 없는 점과 바울신학의 영향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인 것입니다. 사도적 교부의 글 가운데 가장 사상이 풍부하며 문장이 세련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당시의 엘리트 계층에게 보낸 전도서신이기 때문에 당시 기독교인 가운데 최고 지성의 대변자가 집필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2-8. 디다케(Didache)

"12사도의 교훈집" 으로 알려진 이 서신은 오래동안 매몰되어 있다가 1873년 예루살렘에서 발견되어 1883년에 출판된 것으로 2세기 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독교 입문서로 쓰여진 글로 기독교인의 윤리와 예배의식, 권징과 주의 재림을 대비하는 권면 등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책은 사상면보다 초대교회의 예배모범과 생활상을 알게하는 사료로서 가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30. 헬라교부

헬라교부는 소아시아파와 알렉산드리아파로 구분하며 그리스교부라고도 칭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파는 사도 요한의 뒤를 이은 사람들로 성서주의를 표방하며 사색이나 철학보다는 신앙을 강조하였으며 대표적인 신학자로는 이레니우스(Irenaeus)와 히폴리투스(Hippolytus)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파는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아 고전과 철학을 이용하여 신학을 연구하려 하였으며 대표적인 신학자로는 클레멘트(Clement)와 오리겐(Origen)이 있습니다.

1) 소아시아파 이레니우스(Irenaeus)

주후 115~119년경 소아시아 지방에서 출생한 이레니우스는 폴리갑의 제자로서 헬라고전과 신구약성경에 정통한 학자이며 목회자였습니다. 또한 당시 이단들의 여러 문헌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이단들의 주장을 논박함으로써 정통교리를 수호한 고대 가톨릭 교회의 신학상 비조였습니다.

177년 프랑스 리옹에서 박해가 일어나 로마로 파견되어 피난을 간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리옹 지방의 선교사로 활동하였으며 리옹 감독 폰티너스(Pontinus) 순교이후, 세베레스 황제 때, 순교하기 까지 리옹의 감독으로 봉사하였습니다. 그는 헬라사상에 익숙하면서도 서방에서 활동하였으며 라틴신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이 책은 그노시스 연구 및 고대교회 사상 연구에 가치있는 자료이기도 한 것입니다.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제 1권에서 그노시스 이단들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다루었고, 2권에서는 이단설에 대한 철학적 논박을 기록하였으며, 3권에서는 성서적 비판을, 4권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마르시온 사상을 비판하였으며, 마지막 5권에서는 그노시스 이론에 대항하여 부활을 논증하는 등 반 이단론(185년)은 그노시스 이단을 공격하는 가운데 그의 신학을 개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알렉산드리아파 클레멘트(Clement)

주후 10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출생한 클레멘트는 오랜 여행끝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그이스승 판타너스(Pantaenus)를 만나게 되었으며 190년경에 판타너스의 뒤를 이어 12년간 신학교 교리문답학교에서 교수로 담당하였습니다. 그후 박해를 피하여 안디옥으로 가서 목회와 저술에 힘쓰며 교회와 신학을 연구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필로(Philo)가 유대교를 헬라철학으로 해석했듯이 클레멘트는 기독교를 헬라철학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지적 활동이 활발했던 곳으로 클레멘트는 이러한 환경속에서 연구하고 가르쳤으므로 그의 사상은 알렉산드리아 특유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레니우스와는 달리 목회자가 아니라 사상가요 연구자였습니다. 그가 학문을 탐구했던 목적은 교회의 전통적 신앙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진리를 탐구하는 이들을 돕고 이교도 지성인들에게 기독교가 절대로 불합리한 미신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클레멘트는 이교도들에게 기독교 교리의 대부분이 플라톤의 철학에 의해 증명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클레멘트는 이 세상에 오직 한가지의 진리만이 존재한다고 확신하였으므로 플라토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진리는 다름아닌 성경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바로 그 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듯이 헬라인에게는 철학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스틴과 클레멘트의 차이점은 저스틴이 이교도들에게 기독교 진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로고스의 교리를 사용한 반면에 클레멘트는 같은 교리를 이용하여 기독교인들에게 철학적 진리에 관하여 보다 개방적 태도를 취하도록 촉구하였다는 점입니다. 202년 셉티무스 세베루스 황제의 박해로 인하여 안디옥으로 피난하였으며 213년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주요 저술로는 "이방에 대한 권고", "지도서", "이단에 대한 반박문" 등이 있습니다.

3) 알렉산드리아파 오리겐(Origen)

오리겐은 185년경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독교인 가정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의 부친은 셀베루스 황제의 박해(202~203년)를 받아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리겐은 모친의 순간적인 지혜로 목숨을 건질수 있었습니다. 그는 교리문답학교에 입학하여 클레멘트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당시 그의 돈독한 신앙과 명석한 두뇌는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셀베루스 황제의 극심한 박해로 인하여 신학교 교수들이 각지로 흩어지자, 신학교를 인수받아 18세 때부터 클레멘트의 후계자로 신학교수가 되었습니다. 오리겐이 이미 10대였을 때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디미트리우스(Demetrius)의 명을 받아 당시 "카테쿠멘", 즉 세례 지원자들의 훈련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중차대한 사역들을 아주 훌륭하게 처리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철학적 권위자인 "아모니우스 삭가스"에게 철학을 수학하였으며, 일생을 독신으로 지내며 극한 가난과 싸우면서도 저서와 교수에 주력하였습니다. 210년에 로마를 방문하였으나 215년에 카라칼라 황제의 강제 축출명령으로 로마에서

쫓겨 났으며, 그후 아라비아로 가 전도사역을 하였습니다. 아라비아의 사역이 끝난 후, 신학교로 복귀하여 학생들을 지도하였습니다. 230년경 팔레스타인과 헬라를 방문하던 중 가이사랴에서 장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오리겐에게 세례지원훈련을 맡겼던 알렉산드리아 감독 디미트리우스(Demetrius)는 자신의 교권적 권리가 팔레스타인 감독에게 침해 당하였다고 판단하여, 오리겐을 알렉산드리아에서 축출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 일로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가 신학교를 개설하고 후배양성에 힘을 기울였으나 244년 데시우스(Decius) 황제의 박해로 인하여 악형과 고문을 받고 두로 감옥에 갇혀 254년 끝내 순교하였습니다.

오리겐은 다작가로서 세종류의 방대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첫째, 성격주석류로 신구약 전부에 걸쳐 작성하였으며 은유적 해석방법을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받았습니다. 그는 본문 비평을 위해 "헥사플라"(Hexapla, 헬라어, 여섯겹이란 뜻임)를 27년간에 걸쳐 완성하였습니다. 히브리어, 마소렐 본문, 헬라문자로 기록한 히브리어 음력, 아크라 역, 시마카스 역, 헬라어 역으로 번역된 이 서적은 가이사랴의 도서관에 보관되었으나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는 조직신학 저서로 원리는 그의 해박한 신학지식과 헬라적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변증적 작품으로 "셀서스(Celsus) 반박문"은 신 플라톤 철학과 스토아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를 과학적 입장에서 변증한 책으로 모두 8권이 지금까지 전해내려 오고 있습니다.

31. 라틴교부

주후 2세기 후반, 전(全) 로마제국 가운데 소아시아를 제외하고 북아프리카 만큼 기독교 인구가 많은 곳은 없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칼타코에서 정착하면서 칼타코는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라틴신학이 시작되었고, 로마 백부장의 아들로써 법률가 출신인 터툴리안(Tertulian), 변호사 출신인 키프리안(Cyprian) 등이 대표적 신학자입니다

1) 터툴리안(Tertulian)

주후 150년경, 칼타코에서 로마군대 백부장의 아들로 태어난 터툴리안은 법학을 전공하여 로마에서 유명한 법률가로 활동하였습니다 193년 기독교로 개종한 터툴리안은 복음의 변증과 선포에 헌신하였으며, 197~29년까지 라틴어 신학저서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한 때 터툴리안은 금욕생활에 매력을 느껴 몬타니즘을 따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생존시뿐만 아니라 후세에도 많은 신학적 영향을 끼쳤으며 때문에 라틴신학의 아버지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거스틴과 함께 라틴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중요한 신학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철학, 법률, 헬라문학, 라틴학문에 심오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강한 의지력, 날카로운 지성, 감동적인 웅변, 심도있는 해학 등이 모두 그를 대표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저술활동을 통하여 진리수호에 총력을 기울여 왔던 것입니다

가. 기독교의 변증/유대인, 이교도, 그노시스교, 마르시온, 로마정부에 보낸 변증서
나. 기독교의 교리/세례, 그리스도의 인격, 부활등에 관한 신학
다. 기독교의 윤리/독신생활, 의상, 일부일처주의, 성적 순결, 금식, 극장관람

헬라교부들이 헬라철학을 이용한데 반하여 터툴리안은 철학과 신학의 불용성(不溶性)을 주장하였습니다 기독교는 지혜보다 죄의 문제를 중요시하고 은혜와 사죄와 영력을 받아 능히 거룩한 삶을 살아갈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거룩한 삶에 대한 강력한 동경은 금욕생활을 이상시하게 되었고 따라서 구원은 믿음에서 오지만 세례후의 범죄는 금욕생활로서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터툴리안은 아담의 죄와 우리의 죄를 설명함에 있어서 원죄의 유전설을 믿었습니다

"삼위일체론과 그에 따르는 기독교론해설" 에서 터툴리안은 큰 공헌을 남겼습니다 그의 신학적 정의는 지금까지 채용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삼위일체란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본질에 있어서는 같으며 삼인격의 본원이 같다고

믿었으며, 또한 아들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아들로 통하여 아버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둘 다 아버지께 종속된 것이라는 종속론의 경향은 어거스틴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2) 키프리안(Cyprian)

주후 200년에 칼타코의 부유한 가정에서 출생한 키프리안은 문학과 법학을 수학하고 수사학의 교사와 변호사로 유명세를 떨쳤으며, 45세에 개종하여 248년에 칼타코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키프리안의 급속한 감독직 승계로 경쟁자인 노바투스(Novatus) 장로로부터 모함을 받아 교회 분열의 상처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250년, 데시우스 황제의 박해가 일어나자 사막으로 피난하여 서신으로 교회를 격려하며 지도하다가 박해가 끝난 후 교회를 재조직하며 저술활동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제롬(Jerome)에 의하면 그는 조용한 성격이어서 열정적인 터툴리안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키프리안의 가장 중요한 저서는 "교회일치론"(敎會一致論)으로 노타비안파의 분열에 대한 신학적 반론이었습니다.

키프리안은 감독과 장로의 구별을 분명히 하고 교회일치의 기준을 감독에게 두었습니다. 그는 교회안에만 구원이 있으며, 교회를 버린자는 외인(外人)이고, 속인(俗人)이며 적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라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노아 방주 밖의 사람이 멸망할 것 같이, 교회 밖의 사람은 모두 멸망한다는 인식 아래 교회는 가톨릭교회(정통 보편교회)외에는 있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터툴리안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형성하는데 공헌한 만큼 키프리안은 교회론을 체계화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남긴 것입니다. 오늘날 가톨릭 교회의 교회론은 키프리안의 근본사상을 그대로 답습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32. 성 어거스틴(Augustine)

1) 어거스틴의 생애와 그 시작

성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라틴어: Sanctus Aurelius Augustinus, 주후 354년 11월 13일~430년 8월 28일), 즉, 어거스틴(Augustin)은 4세기 알제리와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신학자로, 법률가이자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라틴어: Sanctus Ambrosius, 340년? - 397년 4월 4일), 제1차 니케아 공의회 이후의 로마 가톨릭의 신학자인 히에로니무스(Hieronymus, 347년 - 420년 9월 30일)와 함께 서방 교회의 4대교부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Hipponensis)라고도 불리워 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틴어 아우구스툼(Augustum)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좋은 징조의' 또는 '덕망있는'이란 뜻을 담고 있으며 영어식으로 어거스틴(Augustine) 이라고 부를 때가 많고, 간혹 아우구스틴(Augustin)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주후 354년 hippo(Hippo) 근처에 있는 북아프리카의 작은 마을 타가스트(Tagaste)에서 태어난 어거스틴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이후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이며 정치학자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신약시대 이후 가장 훌륭한 기독교인이며 라틴어를 사용한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의 부친은 이교도였으나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며, 모친 모니카(Monica)는 경건한 기도의 사람으로 교회사에서 신앙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니카는 유년시절에 어거스틴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hippo 근처의 마다우라(Madaura)에서 초등교육을 받은 후, 카르타고에서 공부를 하려 하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학업을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후 370년 가정의 형편이 나아진 후 아버지는 16살의 어거스틴에게 수사학을 배우게 하기 위해 카르타고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어거스틴이 처음 법관이 되기 위해 카르타고에서 수사학을 공부하는 동안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 14년동안 동거하며 아데오다투스(Adeotayus, 신으로 부터 주어진 이름의 아들)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주후 389년 아들이 어린 나이에 사망할 때까지 어거스틴은 그의 곁에서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어머니 모니카와 절교를 하게되고 모자(母子)의 연을 끊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는 이때 심한 영적 갈등을 겪었으며, 키케로(Cicero)의 "호르텐시우스"(Hortensius) 를 읽고 진리탐구의 열정을 갖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접한 탐구의 영역은 페르시아에서 들어온 이원론 종교인 마니교

(Manichaeism)였으며, 당시 파우스투스(Faustus)를 만나 마니교의 깊은 진리를 청취하기도 하였습니다. 9년 동안 마니교를따르며 저작활동을 하였으나 그 결과는 결혼생활도 불행하였으며 정신적 혼란과 회의가 계속될 뿐이었습니다

2)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즈를 만나다

그는 진리에 대한 새로운 꿈을 안고 383년에 로마로 떠났으며, 이듬해인 384년에 밀란에서 웅변학(Rhetorcy, 수사학)의 교수직에 임명되면서, 당시 유명한 설교가이면서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즈(Ambrose) 감독의 영향을 받게되었고, 2년후에는 로마서를 읽던 중 기독교 신앙이 진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386년 부활주일, 암브로즈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32세에 마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기 까지 영적인 순례자의 갈등과 고뇌는 그가 남긴 불멸의, "참회록"(Confessions)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387년 어거스틴은 암브로즈감독에게 세례를 받고 388년, 고향인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그 여정의 길에서 어거스틴의 모친인 모니카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후엔 그의 아들 데오다티스도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391년, 북아프리카의 도시 히포(히포 레기우스)에서 발레리우스 주교에 의해 사제로 서품받은 후, 어거스틴은 과거 자기가 몸 담았던 마니교를 비판하는 등 많은 설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의 도덕적 완성을 주장하는 펠라기우스주의에 대하여 단호한 입장을 취하며 반대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공로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은혜론, 신학적 인식론, 교회론, 영성신학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중세초기부터 은혜론을 둘러싼 신학 논쟁에서 어거스틴주의자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395년, 아프리카의 히포(현재의 보나)의 감독으로 임명되었으며, 그후 35년 동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 어떤 교부들의 작품들 가운데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신학작품을 저술하였습니다. 430년, 히포를 포위한 반달 야만족의 침략으로 세상을 떠나기 까지 그의 삶은 서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목회자였습니다

3) 어거스틴의 신학

어거스틴의 중요성은 로마교회, 루터교, 개혁신교회, 성공회 등 모든 기독교회의 주류들이 그의 뒤를 이어간다고 자처하는 것에서 부터 잘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많은 이들은 16세기의 종교개혁이 그 신학적인 면에서 볼 때, 어거스틴의 은혜의 교리가 어거스틴의 교회론에 대한 반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교훈과 바울서신 가운데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죄 많은 인류들에게 보여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린 성경적 은혜의 교리가, 교부시대 이후 상실되었다가 어거스틴에게서야 나타났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도들과 어거스틴 사이에 나타났던 기독교의 저술가 중 대부분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온전히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바울의 교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삶이란 바로 하나님으로 부터 받은 선물에 대해 평생 감사하는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르시온의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서신(Epistle to Diognetus)과 터툴리안의 저술 가운데 바울이 전한 은혜의 교리의 일부가 표출되기는 하지만 어거스틴에 와서야 그 정수가 드러난 것입니다 프란시스 뉴만(Francis Newman)과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에 의하면 바울과 어거스틴은 두번 태어난 타입에서 유사점이 있습니다 두사람 모두 자기들 생애의 전체를 변화시킨 혁명적 회심을 30대 초에 경험하였습니다 두사람 모두가 그들의 죄와 자기들에게 너무도 풍성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이러한 "은혜론"은 펠라기우스의 교훈에 관한 반동과도 관련되어 발전되었습니다 영국출신(아일랜드 출신)의 펠라기우스(Pelagius, 어거스틴은 브리튼이라고 부름)는 높은 도덕적 성품을 가진 인물로서 384년 로마에서 그의 눈에 비친 도덕적 타락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는 원죄의 교리를 부인했으며 그들이 죄인들인 이유는 아담으로부터 범죄적 경향을 유전으로 물려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아담의 전철을 밟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유아세례의 필요성도 형식적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펠라기우스자들의 위험한 주장에 대해 어거스틴은 "영과 율법에 관하여"(On the Spirit and Letter)와 "자연과 은혜에 관하여"(On Nature and Grace) 등의 논문을 통하여 허구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어거스틴의 주장에 의해 펠라기우스자들은 412년 칼타코 종교회의에서 정죄되었습니다 이처럼 펠라기우스자들로 인해 어거스틴이 은혜론을 정립할 수 있었다면 그의 교회론은 도나투스주의 분파 때문에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나투스주의자들은 콘스탄틴 황제의 제위 초기에 보편적인 교회로 부터 분리해 나와 북아프리카에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어거스틴 자신의 교구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도나투스주의자들은 이들의 순수한 교제(a pure communion), 즉 모든 배교자들 및

그 부류들은 배제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이에 대하여 어거스틴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노아의 방주를 예로 들며 포괄적인 교회론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결국 이러한 양측의 대립은 411년 칼타코 회의 이후 무력에 의해 진압됨으로서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412년에 발생한 로마의 함락은 어거스틴이 그의 교회론을 발전 시키는데 더욱 중요한 계기를 부여하였습니다

413~426년에 완성한 어거스틴의 필생의大作인 "신의 도성"(City of God)은 당시 지적 도전에 답하는 하나의 역사철학입니다 로마가 로마의 신(神)들을 섬길 때에는 평안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후로 로마의 신들이 진노하여 로마가 멸망하였다는 비난에 대하여 기독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변호한 책입니다 로마의 멸망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이미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무수한 재앙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로마는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의 극치를 보였으나 기독교로 말미암아 로마가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큰 유익을 얻게된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로마의 위대성은 인정하지만 이 땅의 도성이나 모든 제국은 종국적으로는 멸망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이나 업적은 불멸의 것이 될 수 없다는 논리와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책에서 하나님의 도성은 지상교회를 통하여 이미 시작되었으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언젠가는 인간의 나라, 악의 도성은 다 멸할 것이나 주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될 것이며 로마의 멸망도 이러한 역사의 한 과정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이 작품은 교회가 제국을 초월하여 점차 어두워져 가고 있는 시대속에서 계속 신앙과 소망을 유지할 수 있는 정신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은 중세 천년의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희망이 되었으며, 그 사상은 교황권 확장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의 또 다른 저서 "삼위일체론"(On the Trinity)은 서방신학을 결정적으로 확정시키는데 이를 만큼 명작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론에 관하여 터툴리안과 오리겐은 다소 종속설의 틀 속에 있었으나 어거스틴은 신의 단일성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은 같은 한 본질에 속하여 창조자 하나님과 전능한 삼위일체가 구별될 수 없이 일하고 계신다 아버지과 아들과 성신은 한 하나님이시다 그 분은 홀로 계시며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하시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지으신 분이시다" 라고 그의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위가 동등하시며, 먼저와 나중에 서로 사이에 없으시고, 더 높고 더 낮

음이 없으심"을 주장하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론적 추리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예배의 대상이어야 하며 삼위일체 이론도 그런 정신에서 받아들여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의 신학은 자신의 깊은 신앙적 체험으로 젖어있는 반면에 헬라 신 플라톤 철학에서 영향을 받은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신 플라톤주의가 악의 실재를 부인한 것은 오직 선의 결핍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참 실재는 오직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뿐이라고 주장한 것들이 어거스틴의 사상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의 이러한 경향은 죄관, 결혼관, 독신관, 금욕관, 교회관, 등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도나티스트와의 논쟁에서 교회의 가견적(可見的) 요소를 지나치게 주장한 나머지 그의 교회론과 예정론은 상치성(相馳性)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예정론은 구원이 성례를 베푸는 가견적 교회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교회론에 의해 한계점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그 시대의 교회를 대변하는 신학자에게는 그 시대에 주어진 제약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적 제약성을 초월하여 신학적 표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역사상 남아있는 영원한 도전과 과제일 것입니다.

4) 어거스틴의 영향력

어거스틴이 사망했을때 히포는 게르만족의 한 민족이었던 반달족에 의해 포위되어 있었고 아프리카에서의 로마문명은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년후 레랭의 빈켄티우스는 가톨릭교회의 정통성을 가리켜 "어디에나 있고, 언제나 있으며, 누구나 믿는 것"(Quod ubique quod semper quod ab omnibus creditum est) 이라는 유명한 구절로 표현하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의도는 어거스틴의 학설가운데 일부 과장된 주장들을 배제하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빈켄티우스는 감히 어거스틴을 이단적이라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어거스틴의 저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그가 서방 기독교에 끼친 엄청난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의 사상은 기독교를 통일시켜 왔으며, 언젠가는 현재의 분열을 치유할 것입니다. 이처럼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원인은 명쾌하고 심오한 그의 지성과 신비스럽기까지 한 그의 품행과 거대한 학문적 체계보다는 그의 독특한 종교적 천재성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안셀무스, 베르나르두스, 프란시스코스, 파스칼, 자크, 베닌 보쉬에, 조지 버틀러, 자

크 마리탱, 라인홀드, 니부어, 파울 틸리히 등 당대의 모든 학자들이 그를 통하여 큰 영감을 받았으며, 더 나아가 모든 서방교회들이 그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음은 그의 삶과 철학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동방교회 콘스탄티노플의 주교로서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워 질 정도로 널리 알려진 크리스토스(Chrysostomos, 347~407), 혈기로 유명한 테오도시우스 황제까지도 극찬한 밀란의 감독 암브로즈(Ambrose, 339~397), 라틴어 성경의 최고 권위자이며 당대 교회사의 대표적 권위자인 제롬(Jerome, 347~420), 그리고 교황 지존설을 발전시킨 로마 감독 대 레오(Leo the Great, 390~461), 이탈리아 넬시아 출신으로 서방에서 수도원을 설립하고 개혁한 베네딕트(480~?) 등이 어거스틴과 함께 주후 4~5세기를 대표하는 교회 정치지도자인 것입니다

33. 세계, 10개 국가의 대표적 선교운동

사도 바울의 평생에 걸친 선교운동은 그가 생존해 있을 동안 로마전역으로 확산되게 되었으며, 사통팔달로 연결되었던 교통의 중심지 로마를 중심으로 전세계를 향한 복음의 열정은 많은 순교자들의 피흘림속에서도 끊임없이 진행되어 갔습니다

이름조차 알 수없는 지구촌의 한 모퉁이, 나라도 없이 떠도는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태어나는 첫장면에서 조차 마굿간이라는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여, 제자들과 사람으로 부터 버림을 받아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어떤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음으로서 마지막 한 순간까지 이 땅, 자기 백성만을 생각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듯 하였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흔적조차 없어질 것 같은 기독교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흩어졌던 그의 제자들도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천년이 두번 지나간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는 십자가의 등불이 켜져 있고 적어도 15억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1) 로마(Roma)

로마(이탈리아어: Roma)는 이탈리아의 수도이며 라치오주의 주도로 테베레강 연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양문명을 대표하는 로마제국의 수도로서, 현재에는 로마 가톨릭의 중심지로서, 로마 가톨릭의 정치적 중심지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시국을 중앙에 놓고 있습니다 세계 문명사회에서는 로마를 '세계의 머리(Caput mundi)', '영원한 도시(la Città Eterna)'라고 칭하기도 하며, 270만명이 거주하는 유럽 최대의 관광도시입니다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한 지역으로, 가장 교회가 부흥한 지역입니다 박해를 받을때에도 카타콤에서 복음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가속화 하던 로마 교회는 코넬리어스(Cornelius) 감독때에는 기독교인들이 수십만명을 상회하였고, 46명의 감독과 100명이 넘는 교역자들이 선교활동을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시 외곽에 위치한 이탈리아 지역의 선교상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3세기 중엽까지 약 100명이 넘는 감독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교세를 짐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노바타안 분열 문제로 로마 감독회의가 개최될때 이탈리아에서 60여명이 참석한 사실에서 그 성장의 면모를 엿볼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현재에도 가톨릭의 도시이며 가톨릭을 상징으로 도시는 번성하고 있으나, 종교적인 색채보다는 관광상품의 색채가 강할 정도로 역사를 매개로 한 관광소비로 전략하였습니다. 물론 바티칸시국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의 영향력은 지금도 여전히 절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와 반대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기독교회는 축소되어 있습니다.

2) 프랑스(French Republic)

2세기 중엽, 리옹(Lyon)과 뵘(Vien) 지역에서 교회가 크게 성장하였으며, 2세기 후반 경에는 이레나우스(Irenaeus)의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여 선교의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3세기 중엽에는 파리의 최초 감독이었던 디오니시우스(Dionysius)를 포함한 7명의 선교사가 로마로 부터 파송된 사실에서 그 성장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프랑스인은 로마 가톨릭을 신앙하며, 16세기 종교개혁에 의하여 기독교 신자들도 일부 남아있습니다. 교회역사 학자들은 이 사람들을 "위그노" 라고 칭하며 앙리4세의 낭트칙령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루이 14세에 의하여 낭트칙령은 폐지되었고, 프랑스 개혁교회라는 호칭을 갖게 되었는데, 이들은 20세기 초까지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외에 일부는 이슬람교 신자도 있었으나 이들은 과거 식민지국가였던 북아프리카 거주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3) 스페인(Kingdom of Spain)

사도 바울이 최초로 선교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로마서15:23),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안도 그들이 활동할 때에 이미 교회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키프리안도 3세기 중엽에 이 지역교회에 서신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엘비라 대회(Elbira Syond)때 19명의 감독과 24명의 장로가 참석한 것으로 보아 교회의 발전이 상당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스페인 은 유럽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한때 멕시코를 비롯하여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국가와 필리핀, 아프리카 적도 기니 등 세계각지에 식민지 국가를 세운 강대국이었습니다. 스페인(영어명칭)은 헌법상 국명을 에스파냐(España)로 쓰며, 외교상 정식 국명은 에스파냐 왕국(스페인어: Reino de España 레이노 데 에스파냐)입니다. 스페인은 로마와 게르만족, 그리고 이슬람과 기독교로부터 계속되는 지배를 받아오다가 1500년대에 들어서 콜롬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스페인 전 인구의 76%가 예로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 국가를 정체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의 기독교는 이슬람교에 이어 9만명에 이를 정도로 미미한 편이며, 이들의 대부분은 로마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외로 여호와 증인의 신자가 10만명을 상회할 만큼 다종교주의자들이 많은 국가입니다.

4) 카르타고(Carthago)

카르타고(라틴어: Carthago, 페니키아어: Kart-Hadasht)는 현재 튀니지 일대에 위치한 페니키아인 계열의 고대도시로, 페니키아어(語)로는 콰르트하다쉬트(새로운 도시)이며, 그리스인은 칼케돈이라 칭하였습니다. 지중해를 두고 로마와 패권을 벌이다 주전 146년 제 3차 포에니 전쟁(149~146)에서 패배하여 로마 공화정의 아프리카 속주가 되었습니다. 이후 완전히 파괴된 도시를 아우구스투스가 재건하여 북아프리카 상공업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5세기 경에는 게르만계열의 반달족의 침략으로 폐허가 된 후, 698년 아랍인들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카르타고인들에게는 인신공희(人身供犧)라는 잔혹한 종교적 풍습이 있어서, 신전의 광장에는 여신(女神) 타니트와, 남신(男神) 바야르아몽에게 산 희생물로서 바쳐진 것으로 추측되는 어린이들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카르타고는 초기, 수사학(修辭學)·법률학 등 학문연구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3세기에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지로서 주교도시(主教都市)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439년에 반달인(人)에게 점령당하고, 698년에는 아라비아인에게 파괴되어 역사속으로 사라져 버린 도시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고대 카르타고인의 묘지와 카르타고 항구의 유적 및 원형극장과 공중욕탕 등 로마 식민지 시대의 유적이 그 시대를 대변하며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키프리안(Cyprian)과 터툴리안(Tertullian)을 배출한 카르타고는 서북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도시로 기독교회들이 2세기 이후로 점차 흥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이탈리아 이주민들에 의해 정착되어 라틴 문화권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라틴어로 된 고문서들이 많이 출간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이주민을 중심으로 지역 원주민들에게도 복음화율이 높았으며, 220년 카르타고 대회 때 70명의 감독이 참석하였고, 256년 대회때에는 87명의 감독들이 참석하여 북아프리카의 당시 교세를 짐작할 만한 큰 성장의 일면을 보여 주었습니다.

튀니지(아랍어: الجمهورية التونسية 엘 조움호리야 에트 토우니시아)는 현재 알제리와 리비아를 국경으로 하고 있는 아프리카에 위치한 이슬람교 국가입니다. 이슬람교의 등

장이전에는 키프리안, 터툴리안 교부들이 활동할 정도로 기독교운동이 활발하였으나, 현재의 국교는 이슬람교로 수니파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튀니지에서는 선교활동이 제한되어 있어서, 기독교 문서를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없으며, 튀니지 교회 신자들은 모두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선교활동 또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서 모든 선교활동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5) 소아시아(Asia Minor)

아나톨리아(Anatolia, 터키어: Anadolu, 그리스어: Ανατολή,)는 서아시아의 한 지역으로 현재의 터키 공화국내 고원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나톨리아는 이전에는 소아시아(Asia Minor, 그리스어: Μικρά Ασία)라고 칭하던 곳이었습니다 이 지방의 북쪽으로는 흑해, 북동쪽으로는 카프카스, 남동쪽으로는 이란고원, 남쪽으로는 지중해, 서쪽으로는 에게해가 있는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아카드, 앗시리아, 히타이트, 아르메니아, 로마,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제국 등이 아나톨리아를 지배하였던 중요한 국가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수많은 충돌과 문화적 교차로가 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두니아(Bythnia)지방엔 2세기 경, 교세가 크게 확장되었고, 브루기아(Phrygia)에서는 몬타네스 운동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다메섹과 안디옥 지역은 바울 당시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으며, 그 성장은 계속 이루어져 갔습니다 본도(Pontos)의 루키안(Lucian)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고 불평할 정도로 성장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소아시아 전역에 걸쳐 높은 복음화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터키는 공식 국가종교가 없는 세속국가로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무슬림 인구에 관한 2009년 자료에 따르면, 터키에서 7,360만 명의 주민, 즉 전체 인구의 98%가 무슬림이라고 할 만큼 무슬림의 영향력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들 무슬림 대다수는 수니파(85~90%)이며, 그외 주요 종파로 알레비파(10~15%), 시아파의 분파가 700~1,100만 명 정도로 영향력은 아주 강한 것입니다

최상위 이슬람 종교 기관은 종무원(터키어: Diyanet İşleri Başkanlığı)으로, 하나피 법학파의 이론을 해석하고, 터키에 등록된 모스크 75,000여 곳 활동을 관할하며, 지역과 주의 이맘을 고용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소수 민족은 100,000 명 이하로, 주로 기독교인이며 이들 대부분은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나 그리스정교(64,000명), 유대교(26,000명)에 불과하며, 이들은 무슬림으로 부터 온갖 협박과 박해를 받고 있으나 정부로 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에 처하여 있습니다

6) 인도(Republic of India)

인도 공화국(印度共和國, 힌디어: भारत गणराज्य, 영어: Republic of India)은 인도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로 면적은 세계에서 일곱번째로 넓으며, 인구는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국가입니다. 북쪽으로는 중국, 네팔, 부탄, 파키스탄이 있으며, 동쪽으로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벙골만이 있고, 서쪽으로는 아라비아해와, 남으로는 인도양과 스리랑카가 있습니다. 인도는 불교, 힌두교의 발상지이고, 각 지역마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사용하는 다문화 국가입니다.

인도에 복음을 소개한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사람인 도마(Thomas)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인도 남부지방에는 도마교회(St. Thomas Church)가 있으며, 이 교회의 판테누스(Pantaenus)가 아라비아를 거쳐 인도까지 가서 선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스마 인디코푸르트는 6세기에 인도교회가 건재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고 오늘날 인도에는 성 도마교단이 있으며, 미약하지만 복음화의 열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종교는 힌두교로서 인구의 절대다수가 신봉하는 종교입니다. 주전 2500년경 인더스 문명으로 시작한 인도는 아리아인들의 침략으로 베다신앙에서 파생한 힌두교를 국가적인 종교로 이어온 것입니다. 불교와 자이나교는 주전 6세기경에 편입되어 들어온 것이며, 주후 10세기에서 16세기 까지 무려 600년 동안 이슬람교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서는 힌두교에 이어 이슬람교인이 가장 많으며, 불교의 메카인 인도로서의 불교는 소승불교세력이 일부 있을뿐 큰 영향력은 갖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편자브주에는 시크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는 기이한 현상도 있습니다.

인도에서 기독교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1947년 조합교회, 장로교, 개혁신교회의 연합체인 성공회 교회, 남인도교회(The Church of South India (United))를 중심으로 침례교회, 루터교회, 구세군, 로마가톨릭, 시리아정교회 등이 극소수 있을 뿐입니다.

7) 아르메니아(Հայաստանի Հանրապետություն)

아르메니아(Հայաստան / Հայք)는 카프카스 지방에 위치한 내륙의 국가로서, 공식 명칭은 아르메니아 공화국(Հայաստանի Հանրապետություն 하야스타니 한라페투티윤)이며,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 터키, 이란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인구 300만명의 작은 국가입니다. 오스만제국, 말기(1915~1923)에 오스만 제국령 동부 아나톨리아지역

에서 터키가 아르메니아인을 강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아르메니아인 150만 명이 살해되는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후 1920년대 소련의 연방국가로 편입되었다가 1991년 소련의 해체로 독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연방국가 시절에도 스탈린에 의해 대숙청이 이루어졌으며 약소국으로서의 고통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 귀족사회 출신으로 카파도기아의 가이사랴에 망명생활을 하였던 그레고리(Gregory) 선교사에 의해 최초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티리다테스(Tiridates)왕을 신앙으로 인도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부족이 왕을 따라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레고리는 감독으로 추대되었습니다.

현재, 아르메니아인 대다수는 아르메니아 정교회를 신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슬람교 국가의 침략을 받아 국가의 존폐가 위기의 상황속에서도 종교적 일치속에서 정교회 문화를 지키는 높은 신앙심을 나타냈습니다.

8) 아일랜드(Ireland)

아일랜드(Ireland, 아일랜드어:Éire)는 유럽의 북서쪽, 영국의 좌측에 위치한 공화국으로서, 대서양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프랑스 갈루아족이 주전 5세기경, 아일랜드섬으로 건너와 토종 민족인 게일족과 함께 터전을 잡았습니다. 2. 그 후로 붉은 머리 켈트족이 이주해 왔으며, 5세기에 패트릭에 의해 가톨릭이 전파되었습니다.

패트릭(Patrick)선교사에 의해 영국보다 먼저 복음화 되었는데 그것은 패트릭이 유소년시절 아일랜드 해적에 붙잡혀 6년간 목장에서 노예처럼 일하게 되었고 그 과정속에서도 꿈을 버리지 않고 아일랜드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한 결과였습니다. 그가 석방된 뒤에도 아일랜드를 위하여 파리로 유학하여 감독이 되었으며 다시 아일랜드 선교사로 파송되어 아일랜드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는 신학교와 수도원을 세워 학문을 일으키고 전도의 불길을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그 열매로 나타난 콜롬바(Columba)는 스코틀랜드의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이 오나섬을 스코틀랜드 복음화의 전초기지로 삼고 열심히 선교에 주력한 결과로 기적적인 복음의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북아일랜드의 역사는 가톨릭과 기독교의 종교적 갈등의 역사이기도 하였습니다. 북아일랜드 종교갈등은 17세기에 올리버 크롬웰의 침공으로 식민지가 된 아일랜드에 18세기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이 이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북아일랜드의 얼스터에 이주한 장로교인들은 가톨릭교도들을 몰아내고, 인구의 대부분을 차

지했으며, 이들의 후손들은 지금도 정치,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일랜드 사람들은 수백년동안 영국에서 넘어온 기독교인들에게 차별과 억압을 받았고, 이것은 부활절봉기(1916년), 아일랜드 공화국군 결성 등의 무장투쟁으로 폭발하였습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이 가톨릭을 신앙함으로서 아일랜드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 것도 영국 기독교인들의 아일랜드에 대한 지배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층인 지주계급들은 가톨릭에서 장로교로 개종함으로서 그들 스스로의 재산과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아일랜드는 섬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아일랜드 공화국에서 가톨릭을 국교로 신앙하고 있으며, 영국령의 북아일랜드는 기독교가 장악하는 양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9) 게르만족(독일, Germanen)

게르만 족(독일어:Germanen)은 고대 유럽의 게르만계 민족들을 통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게르만인들은 문자보다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언들을 사용했으며, 공통된 신화와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켈트족에 비해 철기보급이 더디고 무기의 시대적 차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발전이 더디어 켈트족의 로마화 이후에도 한동안은 계속 그 상태로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와 인접한 프랑크족과 게르만족은 로마의 보호와 용병, 교역 등으로 많은 부와 권력을 쌓고 일부 로마화가 되어, 게르만족의 대이동 이후 가장 성장하게 되는 주역들이었습니다.

게르만족은 현재의 독일 북부지방과 덴마크, 그리고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작은 민족이었지만 역사의 수레바퀴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민족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264년, 카바도기아의 전쟁포로들을 통하여 서 고트족에 복음이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며 게르만 민족의 복음화에 가장 큰 공헌을 이룩한 사람은 울필라스(Ulfilas)였습니다. 그가 콘스탄티노플에 있을 동안 아리우스파의 기독교에 개종한 뒤 33년에 걸쳐 선교사업에 헌신하였습니다. 문자가 없었던 게르만 민족에게 헬라문자를 기초로 하여 문자를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30세에 이르러 콘스탄티노플의 감독 유세비우스에 의하여 고딕(Gothic) 크리스찬의 감독으로 안수를 받았으며 다뉴브강 북쪽에서 남쪽에 이르기까지 선교활동을 하였습니다.

독일 연방 공화국(독일: Bundesrepublik Deutschland)은 10세기 부터 1806년까지 신성 로마제국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16세기에 북독일은 루터교회가 로

마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된 종교개혁(Reformation)의 핵심부로 성장하였습니다 1871년 프랑스와 프로이센 전쟁에서 승리하여 독일은 최초로 통일을 이루어 근대적인 국민국가가 되었습니다 유태인 최악의 학살자이며 세계점령의 야욕을 부리던 히틀러가 일으킨 무모한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1949년에 독일은 연합군 점령지 경계선을 따라 동서독으로 분단되었으나, 1990년에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독일의 종교는 프랑크 왕국시대에 가톨릭이 전파되어 신성 로마제국(962~1806) 초기까지 크게 융성하였습니다 1517년 가톨릭의 사제였던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분리되고 그 후 30년간의 종교전쟁의 역사가 계속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 독일의 인구는 2/3로 줄었으며, 국가는 황폐하여 졌습니다 그 후 1648년의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면서 독일의 종교 전쟁은 종식되었으나, 신성 로마제국은 사실상 수많은 독립 공국으로 갈라졌고, 1806년 나폴레옹전쟁으로 신성 로마제국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독일 국민의 60%가량이 로마 가톨릭과 루터교(기독교)를 각각 절반씩 차지하며 신앙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슬람교, 유대교를 믿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바이레른을 중심으로 남부 독일에 많고, 기독교는 북부 독일에 공동체를 형성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과 동유럽계 이민에 의해 성공회와 정교회가 들어오면서 독일 기독교의 교파는 더욱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0) 영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영국의 정식명칭은 "그레이트 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으로 북대서양과 북해사이에 위치하며 그레이트 브리튼 섬과 아일랜드섬의 일부인 북아일랜드와 그리고 해외영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19세기 세계 최강의 국가로서 전 세계 1/4이 영국의 영토였으며 "해가 지지않는 나라" 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영국은 대서양 연안 구석기인들인 이베리아인들이 정착한 이래로, 켈트족이 선진 기술을 갖고 대륙에서 건너와 선주민과의 혼혈이 이루어졌고 브리튼 섬의 켈트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로마제국의 브리튼 정복 이후 소수의 로마인들이 건너와 문명을 전달하고 영국을 발전시켰습니다

주후 314년 8월 1일, 콘스탄틴 황제는 북아프리카에서의 정통 보편교회를 대표한다고 주장하였던 도나투스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방감독들을 소집하여 아를르 종교회의(Synod of Aries)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 영국에서 온 세 대표가 있었으니 이들은 요크의 에보리우스(Eboriu of York), 런던의 레스티투투스(Restitutus

of London)와 아델피우스(Adelphius)였습니다

영국교회가 이러한 총대들을 파견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의 많은 지역에 기독교가 확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교회의 시작과 초기 발전 상황에 관하여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아리마대 요셉을 비롯한 초대 기독교인들의 선교활동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은 증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 브리튼을 점령했던 로마군에 의해 기독교가 전파되었다는 학설이 가장유력한 것이나 그것은 오히려 미드라교(Mithar)였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복음화의 경로는 고을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설인 것입니다. 아를르 종교회의 이후 영국에서 두번째 파송한 회의는 359년 리미니 회의(Council of Rimini)였으며 수많은 총대들을 파견했는데 이 총대들의 과반수의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여러 경로를 거치면서 영국의 기독교는 끊임없이 성장하였고, 이러한 청교도 정신을 바탕으로 오늘날 가장 강대한 미국 기독교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영국 국민의 대다수는 기독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영국성공회(Church of Enland)로서 영국 기독교인들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는 영국 국교회이며 영국의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영국 성공회는 전세계 성공회 (Anglican Church 또는 Episcopal Church)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상통하는 세계성공회공동체 (Anglican Communion)의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를 차지하는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으로 형성되었으며 현재 스코틀랜드의 국교입니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11%로서 한때 5세기에서 16세기까지 영국의 교회를 사실상 지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국의 국교정책에도 불구하고 영국인 가운데 42%는 무신론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